

연구보고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책임연구원: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기봉(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이한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 학교 및 사회 환경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 건강 실태에 대한 파악과 기초자료 생산은 청소년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는 물론 미국과 일본 및 중국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며, 청소년연구의 유기적인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조사를 수행하였음

2. 조사개요

1)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국내조사의 경우 2010년 6월~7월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조사모집단은 조사시점 전국 12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임. 조사모집단은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시도별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하였음
-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과정은 먼저 전국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지역별 및 계열별(일반계고/전문계고)층화를 진행한 후 층화 sector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음
- 이후 할당 표본 수에 따른 추출 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는 2010년 9월~10월에 각각 조사가 수행 되었으며, 미국 조사의 경우 조사회사인 Idea Resource System에서 조사를 담당하였는데, 조사는 Durham, NC, DeWitt, NY, Kansas City, KS Chicago, IL, Agoura Hills, CA, Indianapolis, IN, Charlotte, NC, Idaho Falls, ID, Liberty, MO, Eugene, OR, Gallup, NM, Tulsa, OK 등 12개 지역, 13개교에서 집단질문지법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음
- 일본은 일본청소년연구소가 조사를 주관하였으며,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아오모리현, 기후현, 이바라키현, 후쿠오카현, 미야기현, 시즈오카현 등 8개 지역 10개 학교에서 설문을 진행하였음
- 중국은 상해사회과학원에서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북경시, 상해시, 서안시, 호남성의 衡陽市, 영하자치구의 은천시, 요녕성의 阜蒙縣(내몽고족의 자치구) 등 6개 지역 10개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음
- 표본추출과정은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1차로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역을 할당하였고, 이후 전국 고교 목록에서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학교에 조사 의뢰서를 송부하고 조사에 응한 학교에서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2) 조사대상

-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에서 실시한 조사대상자 현황은 한국은 3,933명(남자: 2,004명, 여자: 1,929명) 이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1,011명(남자: 455명, 여자 550명)이었음. 또한 일본의 경우는 1,113명(남자: 597명, 여자 515명)이었으며, 중국은 1,176명(남자 568명, 여자 604명) 이었음
- 학년별 분포는 각국 모두 대체로 고루 분포되었는데 한국은 1학년 1,374명(34.9%), 2학년 1,301명(33.1%), 3학년 1,258명(32%)이었으며, 미국은 1학년 299명(29.6%), 2학년 334명(33.0%), 3학년 369명(36.5%)로 나타났음. 일본은 1학년 446명(40.1%), 2학년 370명(33.2%), 3학년 296명(26.6%) 이었으며, 중국은 1학년 423명(36.0%), 2학년 341명(29.0%), 3학년 409명(34.8%)이었음

3) 조사내용

-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 건강에 대해 신체건강과 심리건강으로 영역을 구분하였고, 이후 신체 및 심리건강의 각 영역에 대해 세부영역과 세부영역별 조사내용을 개발하였음
- 신체건강에 대한 세부영역으로는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영양 및 식습관, 수면, 흡연, 음주, 개인위생, 활동제한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분항을 개발하였음
- 심리건강은 개인내적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여 각 세부영역에 대해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추가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의식 및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와 본인의 관심 등의 기타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주요 조사결과 및 제언

1) 신체건강 영역

-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나머지 3개국에 비해 평소 운동량이 적고, 그 차이도 컸으며, 학교 체육시간에도 운동량이 적은 편이었음. 평균 신장 및 체중의 경우 한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167.6cm, 평균 체중이 59.2kg으로 미국과 중국 다음 순이었음
-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은 ‘규칙적 운동’보다는 ‘식사량 줄임’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지 못하였음. 1주일에 한 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비율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초콜렛/사탕/아이스크림, 가공식품은 미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었으며,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적지 않은 편이었음. 반면,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았던 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적게 나타나 향후 영양교육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4개국 중 가장 적은 수면 시간을 나타냈고, 수면 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생각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수면시간 부족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됨
- 흡연과 음주 경험률은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도 22.2%와 49%로 적지 않았음.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흡연과 음주를 중학교시기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함
 -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나머지 3개국에 비해 금연과 금주 교육을 받은 비율이 적은 편으로 나타나 흡연과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식사하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에 손 씻는 정도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적어 개인위생 관념이 부족하며, 개인위생교육 경험률이 10.4%로 한국이 가장 적어 개인위생교육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비율은 미국이 28.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9.5%로 가장 적었지만, 건강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부모와 본인의 관심은 중국과 미국보다는 적어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심리건강 영역

- 한국 청소년들의 개인 내 부적응적 정서 중에서는 불안감이나 적대감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우울감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적 지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별 및 국가별 비교 결과에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에서 4개국 모두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가별 비교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87.8%가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4개국 중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분포를 보였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진로나 친구문제, 부모관계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계에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학습 및 진로 상담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특별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관계형성 기술이나 문제해결 방식과 같은 관계 증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요구됨
- 심리건강에 대한 성별 간 차이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심리적 민감성이나 예민성 혹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정서 중심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지역사회 영역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32%만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관련 기관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들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도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임
- 학교영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이 교사나 친구관계에서 모두 일본보다는 높았으나 미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음. 성별 차이를 보면, 교사관계는 남학생이 친구관계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 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개입이 요구됨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조사방법	3
1) 국내조사	3
2) 해외조사	6
3. 조사대상	6
4. 조사내용	7
II. 조사결과	9
1. 신체건강 조사결과	11
1) 신체활동	11
2) 비만 및 체중조절	13
3) 영양 및 식습관	20
4) 수 면	33
5) 흡 연	35
6) 음 주	39
7) 개인위생	43
8) 활동제한	47
9) 기타	48
2. 심리건강 조사결과	51
1) 개인 내적 영역 -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	51
2) 개인 내적 영역 - 스트레스	63
3) 개인 내적 영역 -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	68
4) 가족영역 - 부모의 지원	83

5) 지역사회영역 - 지역사회 지원	93
6) 학교영역 - 교사, 친구 관계	96

Ⅲ. 요약 및 결론 103

1. 요약	105
2. 결 론	111

부록 117

[부 록 1: 한국 설문지]	119
[부 록 2: 미국 설문지]	125
[부 록 3: 일본 설문지]	131
[부 록 4: 중국 설문지]	137

표 목차

<표 I-1>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 비율에 의한 표본 배분	4
<표 I-2>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5
<표 I-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5
<표 I-4> 조사대상자 현황	7
<표 I-5>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내용	8
<표 II-1> 최근 일주일 동안 신체활동 빈도	11
<표 II-2> 최근 일주일동안 체육수업시간 중 운동시간	12
<표 II-3> 신장	13
<표 II-4> 체중	14
<표 II-5>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여부	15
<표 II-6>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방법	17
<표 II-7> 자신의 체형에 대한 생각	18
<표 II-8>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19
<표 II-9>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 빈도	20
<표 II-10>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일)	21
<표 II-1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탄산음료)	22
<표 II-12>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패스트푸드)	23
<표 II-13>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	24
<표 II-14>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자)	25
<표 II-15>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26
<표 II-16>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채소)	27
<표 II-17>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우유)	28
<표 II-18>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고기나 생선)	29
<표 II-19>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가공식품)	30

<표 II-20>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커피)	31
<표 II-21> 학교에서 영양교육 받은 경험 여부	32
<표 II-22>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	33
<표 II-23>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생각	34
<표 II-24> 흡연경험 여부	35
<표 II-25> 처음 흡연한 시기	36
<표 II-26>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37
<표 II-27>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혹은 금연교육 수혜여부	38
<표 II-28> 음주경험 여부	39
<표 II-29> 처음 음주한 시기	40
<표 II-30>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41
<표 II-31> 음주예방 및 금주교육 수혜여부	42
<표 II-32> 최근 일주일동안 손 씻은 정도(식사 전)	43
<표 II-33>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화장실 다녀온 후)	44
<표 II-34>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	45
<표 II-35>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수혜 여부	46
<표 II-36> 최근 1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일수	47
<표 II-37>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	48
<표 II-38>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	49
<표 II-39>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	50
<표 II-40> 외롭다	51
<표 II-41> 기분이 울적하다	52
<표 II-42> 허무한 느낌이 든다	53
<표 II-43>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54
<표 II-44>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55
<표 II-45> 긴장이 된다	56
<표 II-46>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57
<표 II-47>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민다	58

<표 II-48>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59
<표 II-49>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60
<표 II-50>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61
<표 II-51>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62
<표 II-52>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63
<표 II-53> 스트레스 원인	65
<표 II-54> 스트레스 해소 방법	67
<표 II-55>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8
<표 II-56>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69
<표 II-57>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	70
<표 II-58>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1
<표 II-59>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72
<표 II-60>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73
<표 II-61>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74
<표 II-62>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75
<표 II-63>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76
<표 II-64>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77
<표 II-65>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78
<표 II-66>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79
<표 II-67>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80
<표 II-68>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81
<표 II-69>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82
<표 II-70>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83
<표 II-71> 고민을 들어 주신다	84
<표 II-7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85
<표 II-73>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86
<표 II-74>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87
<표 II-75> 올바른 공부태도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88

<표 II-76> 용돈을 주신다	89
<표 II-77>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90
<표 II-78>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91
<표 II-79> 부모의 지원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92
<표 II-80>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93
<표 II-8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94
<표 II-82>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95
<표 II-83>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6
<표 II-84>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97
<표 II-85> 내가 우수(성공하고 있다)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8
<표 II-86>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99
<표 II-87>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00
<표 II-88>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101

그림 목차

[그림 II-1] 최근 일주일동안 신체활동 빈도	11
[그림 II-2] 최근 일주일동안 체육수업시간 중 운동시간	12
[그림 II-3] 신장	13
[그림 II-4] 체중	14
[그림 II-5]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여부	15
[그림 II-6] 국가별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주요 방법 간 차이	16
[그림 II-7]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주요 방법별 국가 간 차이	16
[그림 II-8] 자신의 체형에 대한 생각	18
[그림 II-9]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19
[그림 II-10]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 빈도	20
[그림 II-1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일)	21
[그림 II-12]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탄산음료)	22
[그림 II-13]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패스트푸드)	23
[그림 II-14]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라면)	24
[그림 II-15]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자)	25
[그림 II-16]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	26
[그림 II-17]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채소)	27
[그림 II-18]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우유)	28
[그림 II-19]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고기나 생선)	29
[그림 II-20]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가공식품)	30
[그림 II-2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커피)	31
[그림 II-22] 학교에서 영양교육 받은 경험 여부	32
[그림 II-23]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	33
[그림 II-24]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생각	34
[그림 II-25] 흡연경험 여부	35

[그림 II-26] 처음 흡연한 시기	36
[그림 II-27]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37
[그림 II-28]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혹은 금연교육 수혜여부	38
[그림 II-29] 음주경험 여부	39
[그림 II-30] 처음 음주한 시기	40
[그림 II-31]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41
[그림 II-32] 음주예방 및 금주교육 수혜여부	42
[그림 II-33] 최근 일주일동안 손 씻은 정도(식사 전)	43
[그림 II-34]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화장실 다녀온 후)	44
[그림 II-35]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	45
[그림 II-36]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수혜 여부	46
[그림 II-37] 최근 1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일수	47
[그림 II-38]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	48
[그림 II-39]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	49
[그림 II-40]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	50
[그림 II-41] 외롭다	51
[그림 II-42] 기분이 울적하다	52
[그림 II-43] 허무한 느낌이 든다	53
[그림 II-4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54
[그림 II-45]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55
[그림 II-46] 긴장이 된다	56
[그림 II-47]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57
[그림 II-48]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민다	58
[그림 II-49]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59
[그림 II-50]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60
[그림 II-51]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61
[그림 II-52]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63
[그림 II-53] 국가별 주요 스트레스 원인	64

[그림 II-54] 주요 스트레스 원인별 국가 간 비교	64
[그림 II-55] 나라별 주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차이	66
[그림 II-56]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따른 국가 간 차이	66
[그림 II-5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68
[그림 II-58]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69
[그림 II-59]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70
[그림 II-6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1
[그림 II-6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72
[그림 II-62]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73
[그림 II-63]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74
[그림 II-64]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75
[그림 II-65]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76
[그림 II-66]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77
[그림 II-67]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78
[그림 II-68]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79
[그림 II-69]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80
[그림 II-70]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	81
[그림 II-7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83
[그림 II-72] 고민을 들어 주신다	84
[그림 II-73]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85
[그림 II-7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86
[그림 II-7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87
[그림 II-76] 올바른 공부태도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88
[그림 II-77] 용돈을 주신다	89
[그림 II-78]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90
[그림 II-79]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91
[그림 II-80]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	93
[그림 II-8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	

는 사람이 있다	94
[그림 II-82]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95
[그림 II-83]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6
[그림 II-84]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97
[그림 II-85] 내가 우수(성공하고 있다)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8
[그림 II-86]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99
[그림 II-87]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00

I.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방법
3. 조사대상
4. 조사내용

I.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가정, 학교 및 사회환경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 건강 실태에 대한 파악과 기초자료 생산은 청소년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는 물론 미국과 일본 및 중국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연구의 유기적인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방법

1) 국내조사

조사는 2010년 6월~7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조사모집단은 조사시점 전국 12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이 조사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시도별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과정은 먼저 전국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지역별 및 계열별(일반계고/전문계고)층화를 진행한 후 층화 sector별(24개 sector) 학생 수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이후 할당 표본 수에 따른 추출 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층화 sector별 할당된 학교 추출방법은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 확률표집법(PPS) 적용(층화 sector별로 고등학교리스트 정렬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학생 수 누적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정해진 학교 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하였다.

학교 추출 순은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하였고, 추출학급은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그 외 추출과정에서 추출 조건으로 고려한 사항은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였고,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 sector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였다. 또한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하였다.

다음 <표 I-1>는 각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수를 시도별로 할당한 결과표이다.

<표 I-1>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 비율에 의한 표본 배분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시도별 · 학년별 학생 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고등학교	일반고1	743	151	51	43	45	26	27	21	177	17	50	50	85
	일반고2	733	153	52	43	45	26	27	21	170	16	49	50	83
	일반고3	698	150	50	42	42	24	25	20	158	15	45	46	80
	전문고1	236	30	18	12	13	8	6	6	57	12	20	25	30
	전문고2	234	30	18	12	13	8	6	5	58	12	19	24	30
	전문고3	229	31	18	12	13	8	6	5	56	12	18	23	29
	합계	2,873	545	207	164	171	100	97	78	676	84	201	218	337

또한 <표 I-2>은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 학급수(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를 할당한 결과표이다. 조사는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부차모집단별 예상되는 최종 학생수(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는 <표 I-3>와 같다.

<표 I-2>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시도별·학년별 학급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고등학교	일반고1	28	5	2	2	2	1	1	1	6	1	2	2	3
	일반고2	27	5	2	2	2	1	1	1	5	1	2	2	3
	일반고3	27	5	2	2	2	1	1	1	5	1	2	2	3
	전문고1	13	1	1	1	1	1	1	1	2	1	1	1	1
	전문고2	13	1	1	1	1	1	1	1	2	1	1	1	1
	전문고3	13	1	1	1	1	1	1	1	2	1	1	1	1
	합계	121	18	9	9	9	6	6	6	22	6	9	9	12

<표 I-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고등학교	일반고1	980	175	70	70	70	35	35	35	210	35	70	70	105
	일반고2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일반고3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전문고1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전문고2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전문고3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합계	4,235	630	315	315	315	210	210	210	770	210	315	315	420

2) 국외조사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는 2010년 9월~10월에 각각 조사가 수행 되었다. 미국 조사는 조사회사인 Idea Resource System에서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Durham, NC, DeWitt, NY, Kansas City, KS Chicago, IL, Agoura Hills, CA, Indianapolis, IN, Charlotte, NC, Idaho Falls, ID, Liberty, MO, Eugene, OR, Gallup, NM, Tulsa, OK 등 12개 지역, 13개교에서 집단질문지법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일본은 일본청소년연구소가 조사를 주관하였으며,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아오모리현, 기후현, 이바라키현, 후쿠오카현, 미야기현, 시즈오카현 등 8개 지역 10개 학교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상해사회과학원에서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북경시, 상해시, 서안시, 호남성의 衡陽市, 영하자치구의 은천시, 요녕성의 阜蒙縣(내몽고족의 자치구) 등 6개 지역 10개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추출과정은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1차로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역을 할당하였고, 이후 전국 고교 목록에서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학교에 조사 의뢰서를 송부하고 조사에 응한 학교에서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대상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에서 실시한 조사대상자 현황은 <표 I-4>와 같다. 먼저 각국의 전체 조사 대상자는 한국 3,933명(남자: 2,004명, 여자: 1,929명)이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1,011명(남자: 455명, 여자 550명)이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1,113명(남자: 597명, 여자 515명)이었으며, 중국은 1,176명(남자 568명, 여자 604명)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각국 모두 대체로 고루 분포되었는데 한국은 1학년 1,374명(34.9%), 2학년 1,301명(33.1%), 3학년 1,258명(32%)이었으며, 미국은 1학년 299명(29.6%), 2학년 334명(33.0%), 3학년 369명(36.5%)로 나타났다. 일본은 1

학년 446명(40.1%), 2학년 370명(33.2%), 3학년 296명(26.6%) 이었으며, 중국은 1학년 423명(36.0%), 2학년 341명(29.0%), 3학년 409명(34.8%)이었다.

<표 I -4>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빈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전체		100(3,933)	100(1,011)	100(1,113)	100(1,176)
성별	남자	51.0(2,004)	45.0(455)	53.7(597)	48.3(568)
	여자	49.0(1,929)	54.4(550)	46.3(515)	51.4(604)
	무응답	-	0.6(6)	0.1(1)	0.3(4)
학년	1학년	34.9(1,374)	29.6(299)	40.1(446)	36.0(423)
	2학년	33.1(1,301)	33.0(334)	33.2(370)	29.0(341)
	3학년	32.0(1,258)	36.5(369)	26.6(296)	34.8(409)
	무응답	-	0.9(9)	0.1(1)	0.2(3)
학교 유형	일반계고	71.5(2,814)	100(1,011)	79.7(887)	79.6(936)
	전문계고	28.5(1,119)	-	20.1(224)	19.7(232)
	무응답	-	-	0.2(2)	0.7(8)

4. 조사내용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건강에 대해 신체건강과 심리건강으로 영역을 구분하였고, 이후 신체 및 심리건강의 각 영역에 대해 세부영역과 세부영역별 조사내용을 개발하였다.

신체건강에 대한 세부영역으로는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영양 및 흡습관, 수면, 흡연, 음주, 개인위생, 활동제한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문항을 개발하였다. 심리건강은 개인내적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여 각 세부영역에 대해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와 본인의 관심 등의 기타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 <표 I -5>과 같다.

<표 I-5>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내용

영역	세부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신체건강	신체활동	-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 최근 일주일간 체육시간 활용 신체활동 시간	2	
	비만 및 체중조절	- 현재의 신장과 체중, - 최근 1년간 체중 감소 시도 여부, - 최근 1년간 체중 감소 방법 -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자신의 체형(몸매)에 대한 만족도	5	
	영양 및 식습관	-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 최근 일주일간 건강 유익/유해 식품 섭취 빈도 -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영양교육 경험 여부	3	
	수면	-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2	
	흡연	- 흡연경험 여부 - 흡연시작 연령 - 흡연에 대한 의식 -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연교육 경험 여부	4	
	음주	- 음주경험 여부 - 음주시작 연령 - 음주에 대한 의식 -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금주교육 경험 여부	4	
	개인위생	- 최근 일주일간 손 씻기 실천 여부 (식사하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회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경험 여부	2	
	활동제한	- 최근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결석일수	1	
심리건강	개인 내적 영역	우울감	- 최근 일주일간 외로움/울적한 기분/허무한 느낌 등의 정도	3
		불안감	- 최근 일주일간 신경예민 및 마음안정 안됨/이유 없이 불안함/긴장/심장이 마구 뼕 등의 정도	4
		적대감	- 최근 일주일간 울화가 치밀/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부수고 싶은 충동,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짐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내포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 등의 정도	4
		스트레스	- 최근 1년간 스트레스 경험 빈도 - 스트레스 원인 - 스트레스 해소 방법	3
		자아존중감	-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	5
		자기효능감	-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	3
		정서조절	-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	3
		낙관주의	-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보고, 또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	3
	가족영역	부모의 지원	- 정서, 정보, 경제적 지원의 정도	9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지원	-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	3
	학교영역	교사관계	- 교사와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	3
		친구관계	-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3
기 타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의식 -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와 본인의 관심정도	2	

Ⅱ. 조사결과

1. 신체건강 조사결과
2. 심리건강 조사결과

II. 조사결과

1. 신체건강 조사결과

1) 신체활동

1. 최근 일주일동안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한국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로 미국(18.1%), 일본(14.3%), 중국(10.8%)보다 많았던 반면, ‘주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0.8%로 미국(26.0%), 일본(33.4%), 중국(17.7%)보다 적었음



[그림 II-1] 최근 일주일동안 신체활동 빈도

<표 II-1> 최근 일주일 동안 신체활동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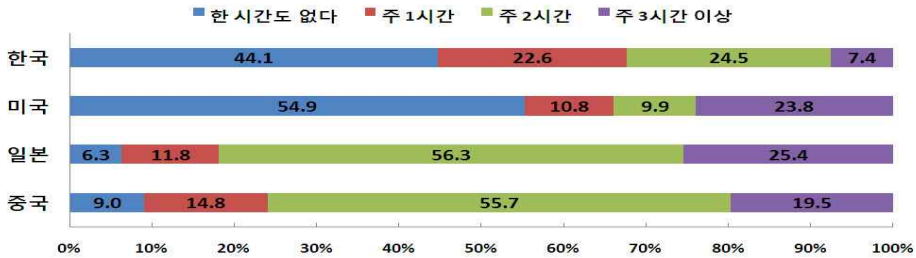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없다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이상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5.0	21.0	23.6	18.6	6.7	15.0	0.1
	여 자	100(1,929)	46.7	23.5	13.0	8.2	1.6	6.4	0.6
	전 체	100(3,933)	30.5	22.2	18.4	13.5	4.2	10.8	0.4
미국	남 자	100(455)	12.1	7.5	13.6	13.8	16.3	36.7	0.0
	여 자	100(550)	23.1	13.8	16.9	16.0	12.7	17.1	0.4
	전 체	100(1,005)	18.1	10.9	15.4	15.0	14.3	26.0	0.2
일본	남 자	100(597)	9.5	5.4	19.9	16.6	5.2	43.0	0.3
	여 자	100(515)	19.8	14.4	22.5	16.7	4.5	22.1	0.0
	전 체	100(1,112)	14.3	9.5	21.1	16.6	4.9	33.4	0.2
중국	남 자	100(568)	8.3	17.3	24.8	17.1	10.0	22.5	0.0
	여 자	100(604)	13.1	18.0	28.8	21.4	4.8	13.2	0.7
	전 체	100(1,172)	10.8	17.7	26.9	19.3	7.3	17.7	0.3

2. 최근 일주일동안 체육수업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시간은?

체육수업시간에 ‘3시간 이상’ 직접 운동을 한 경우는 한국이 7.4%로 가장 적었고 일본(25.4%), 미국(23.8%), 중국(19.5%) 순으로 많았음

○ 최근 일주일동안 체육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적이 ‘한 시간도 없었다’에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44.1%로 미국(54.9%)보다는 적었지만, 중국(9.0%)과 일본(6.3%)보다는 많았다. 반면, 체육시간에 ‘주 2시간 이상’ 직접 운동을 한 경우는 한국이 31.9%로 일본(81.7%), 중국(75.2%), 미국(33.7%)보다 적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시간이 많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운동시간이 많아질수록 여학생이 더 많게 나타났다.



[그림 II-2] 최근 일주일동안 체육수업시간 중 운동시간

<표 II-2> 최근 일주일동안 체육수업시간 중 운동시간

구분		전체(빈도)	1 시간도 없다	주 1시간	주 2시간	주 3시간 이상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7.9	26.2	33.5	11.2	1.1
	여 자	100(1,929)	60.8	18.9	15.2	3.5	1.6
	전 체	100(3,933)	44.1	22.6	24.5	7.4	1.3
미국	남 자	100(455)	51.2	11.4	9.2	27.9	0.2
	여 자	100(550)	58.0	10.4	10.4	20.4	0.9
	전 체	100(1,005)	54.9	10.8	9.9	23.8	0.6
일본	남 자	100(597)	5.5	11.9	57.3	25.1	0.2
	여 자	100(515)	7.2	11.7	55.1	25.6	0.4
	전 체	100(1,112)	6.3	11.8	56.3	25.4	0.3
중국	남 자	100(568)	10.4	17.1	54.6	17.3	0.7
	여 자	100(604)	7.6	12.6	56.8	21.7	1.3
	전 체	100(1,172)	9.0	14.8	55.7	19.5	1.0

2) 비만 및 체중조절

3-1. 신장

평균 신장은 미국이 169.0cm로 가장 컸고, 일본이 164.7cm로 가장 작았음

○ 4개국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을 비교하면 미국이 169.0cm로 가장 컸고, 중국(168.3cm), 한국(167.6cm), 일본(164.7cm) 순이었다.

○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는 미국이 175.9cm로 가장 컸고, 중국(173.5cm)과 한국(173.5cm), 일본(170.3cm) 순이었고, 여자는 중국이 163.4cm로 가장 컸고, 미국(163.3cm), 한국(161.4cm), 일본(158.0cm) 순이었다.



[그림 II-3] 신장

<표 II-3> 신장

구분		전체(빈도)	평균	표준편차
한 국	남 자	100(1,984)	173.5	5.6
	여 자	100(1,894)	161.4	5.3
	전 체	100(3,878)	167.6	8.1
미 국	남 자	100(442)	175.9	9.7
	여 자	100(526)	163.3	7.1
	전 체	100(968)	169.0	10.5
일 본	남 자	100(590)	170.3	5.7
	여 자	100(491)	158.0	5.7
	전 체	100(1,081)	164.7	8.4
중 국	남 자	100(556)	173.5	7.4
	여 자	100(595)	163.4	6.1
	전 체	100(1,151)	168.3	8.4
합 계	남 자	100(3,572)	173.3	6.7
	여 자	100(3,506)	161.6	6.1
	전 체	100(7,078)	167.5	8.7

3-2. 체중

4개국 청소년들의 평균 체중은 미국이 65.6kg으로 가장 무거웠고, 일본이 56.1kg으로 가장 가벼웠음

○ 4개국 청소년들의 평균 체중은 미국이 65.6kg으로 가장 무거웠고, 중국(59.9kg), 한국(59.2kg), 일본(56.1kg) 순이었다.

○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는 미국이 71.2kg으로 가장 무거웠고, 한국(64.9kg), 중국(64.5kg), 일본(60.6kg) 순이었고, 여자는 미국이 60.6kg으로 가장 무거웠고, 중국(55.5kg), 한국(53.2kg), 일본(50.0kg) 순이었다.



<그림 II-4> 체중

<표 II-4> 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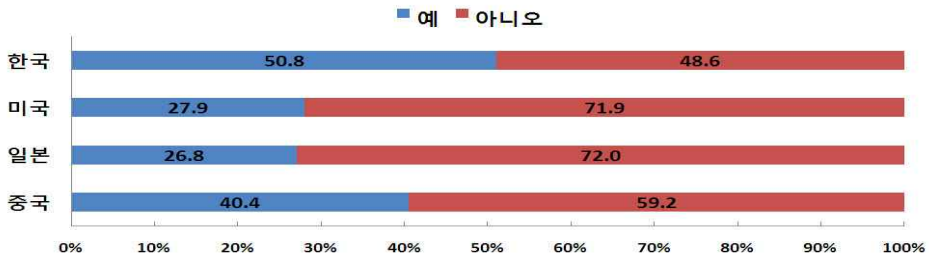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평균	표준편차
한국	남 자	100(1,984)	64.9	11.5
	여 자	100(1,894)	53.2	7.7
	전 체	100(3,878)	59.2	11.5
미국	남 자	100(442)	71.2	16.0
	여 자	100(526)	60.6	14.1
	전 체	100(968)	65.6	15.9
일본	남 자	100(590)	60.6	9.5
	여 자	100(491)	50.0	6.8
	전 체	100(1,081)	56.1	9.9
중국	남 자	100(556)	64.5	17.8
	여 자	100(595)	55.5	14.0
	전 체	100(1,151)	59.9	16.6
합 계	남 자	100(3,572)	64.9	13.3
	여 자	100(3,506)	54.3	10.5
	전 체	100(7,078)	59.8	13.2

4.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여부

한국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한국이 50.8%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6.8%로 가장 적었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가장 많았고, 중국(40.4%), 미국(27.9%), 일본(26.8%)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많았다. 특히, 한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배 정도 많았고, 일본은 4배 이상 많았다.



[그림 II-5]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여부

<표 II-5>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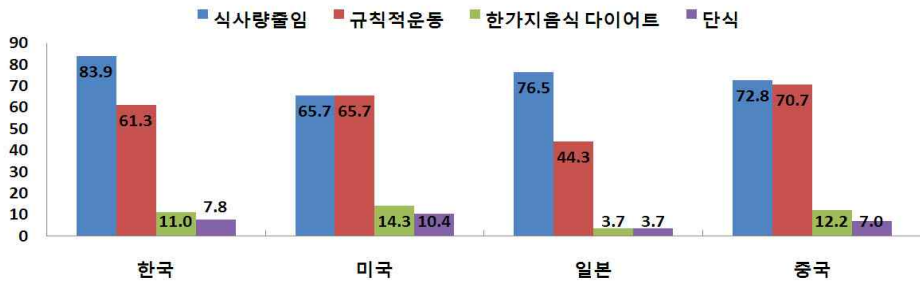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5.0	64.3	0.7
	여 자	100(1,929)	67.1	32.2	0.7
	전 체	100(3,933)	50.8	48.6	0.7
미국	남 자	100(455)	21.5	78.0	0.4
	여 자	100(550)	33.1	66.9	0.0
	전 체	100(1,005)	27.9	71.9	0.2
일본	남 자	100(597)	10.1	89.4	0.5
	여 자	100(515)	46.2	51.8	1.9
	전 체	100(1,112)	26.8	72.0	1.2
중국	남 자	100(568)	32.4	67.4	0.2
	여 자	100(604)	48.0	51.5	0.5
	전 체	100(1,172)	40.4	59.2	0.3

4-1.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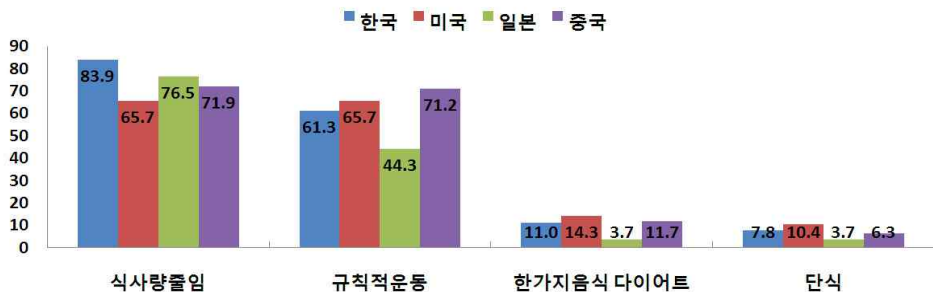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방법은 ‘식사량을 줄임’이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83.9%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았음

○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방법은 4개국 모두 ‘식사량 줄임’, ‘규칙적 운동’,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 ‘단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은 ‘식사량 줄임’과 ‘규칙적 운동’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방법들의 국가별 비교에 의하면, ‘식사량 줄임’은 한국이 가장 많았지만, ‘규칙적 운동’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많았고, ‘단식’과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는 미국이 가장 많았다.



[그림 II-6] 국가별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주요 방법 간 차이



[그림 II-7]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주요 방법별 국가 간 차이

<표 II-6>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방법

구분		전체(빈도)	식사량줄임	규칙적운동	단식	한가지음식 다이어트
한 국	남 자	100(702)	72.6	71.7	5.3	5.0
	여 자	100(1,294)	90.0	55.6	9.1	14.3
	전 체	100(1,996)	83.9	61.3	7.8	11.0
미 국	남 자	100(98)	55.1	67.3	7.1	16.3
	여 자	100(182)	71.4	64.8	12.1	13.2
	전 체	100(280)	65.7	65.7	10.4	14.3
일 본	남 자	100(60)	56.7	50.0	11.7	1.7
	여 자	100(238)	81.5	42.9	1.7	4.2
	전 체	100(298)	76.5	44.3	3.7	3.7
중 국	남 자	100(184)	62.0	78.8	6.5	7.1
	여 자	100(290)	79.7	65.5	7.2	15.5
	전 체	100(474)	72.8	70.7	7.0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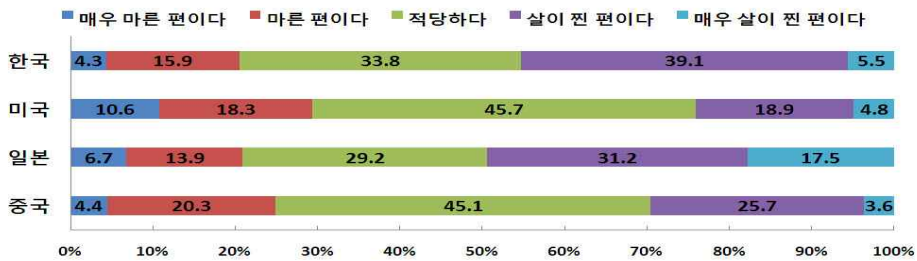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처방 후 살빼는약 복용	처방없이 살빼는약 복용	식사 후 구토	기타
한 국	남 자	100(702)	1.4	0.6	1.3	2.6
	여 자	100(1,294)	2.0	1.9	3.2	2.9
	전 체	100(1,996)	1.8	1.5	2.6	2.8
미 국	남 자	100(98)	0.0	1.0	4.1	31.6
	여 자	100(182)	3.3	3.8	7.1	31.9
	전 체	100(280)	2.1	2.9	6.1	31.8
일 본	남 자	100(60)	0.0	1.7	3.3	20.0
	여 자	100(238)	0.0	3.4	0.8	16.4
	전 체	100(298)	0.0	3.0	1.3	17.1
중 국	남 자	100(184)	5.4	4.9	4.3	3.8
	여 자	100(290)	1.0	5.5	2.1	5.2
	전 체	100(474)	2.7	5.3	3.0	4.6

5. 자신의 체형에 대한 생각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매우 살이 찢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일본이 17.5%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6%로 가장 적었음

○ 자신의 체형에 대해 ‘살이 찢 편이다’와 ‘매우 살이 찢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이 48.7%로 가장 많았고, 한국(44.6%), 중국(29.3%), 미국(23.7%)순으로 많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살이 찢 편으로 생각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여학생들은 71.1%가 살이 찢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림 II-8] 자신의 체형에 대한 생각

<표 II-7> 자신의 체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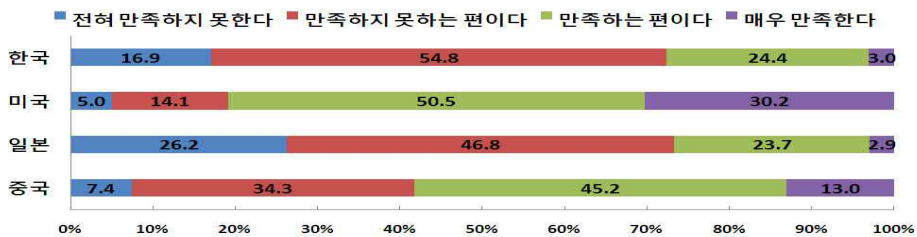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매우 마른 편이다	마른 편이다	적당하다	살이 찢 편이다	매우 살이 찢 편이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7.1	22.6	37.0	27.0	3.6	2.5
	여 자	100(1,929)	1.5	8.9	30.4	49.5	7.5	2.2
	전 체	100(3,933)	4.3	15.9	33.8	38.1	5.5	2.4
미국	남 자	100(455)	14.1	20.0	45.7	14.7	2.9	2.6
	여 자	100(550)	7.8	16.9	45.6	22.4	6.4	0.9
	전 체	100(1,005)	10.6	18.3	45.7	18.9	4.8	1.7
일본	남 자	100(597)	10.9	22.8	36.0	17.9	11.6	0.8
	여 자	100(515)	1.7	3.7	21.4	46.6	24.5	2.1
	전 체	100(1,112)	6.7	13.9	29.2	31.2	17.5	1.4
중국	남 자	100(568)	7.0	26.4	46.8	15.7	3.0	1.1
	여 자	100(604)	1.8	14.6	43.5	35.1	4.1	0.8
	전 체	100(1,172)	4.4	20.3	45.1	25.7	3.6	0.9

6.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30.2%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9%로 가장 적었음

○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응답한 비율은 미국(80.7%), 중국(58.2%), 한국(27.4%), 일본(26.6%)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미국과 중국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여학생들 중 81.4%와 86.7%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림 II-9]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표 II-8>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체(빈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0.5	51.9	32.7	4.1	0.8
	여 자	100(1,929)	23.5	57.9	15.8	1.9	1.0
	전 체	100(3,933)	16.9	54.8	24.4	3.0	0.9
미국	남 자	100(455)	4.4	10.3	48.6	36.5	0.2
	여 자	100(550)	5.5	17.3	52.2	25.1	0.0
	전 체	100(1,005)	5.0	14.1	50.5	30.2	0.1
일본	남 자	100(597)	15.6	45.4	33.8	5.0	0.2
	여 자	100(515)	38.4	48.3	12.0	0.4	0.8
	전 체	100(1,112)	26.2	46.8	23.7	2.9	0.4
중국	남 자	100(568)	7.9	23.4	49.8	18.8	0.0
	여 자	100(604)	7.0	44.5	40.9	7.5	0.2
	전 체	100(1,172)	7.4	34.3	45.2	13.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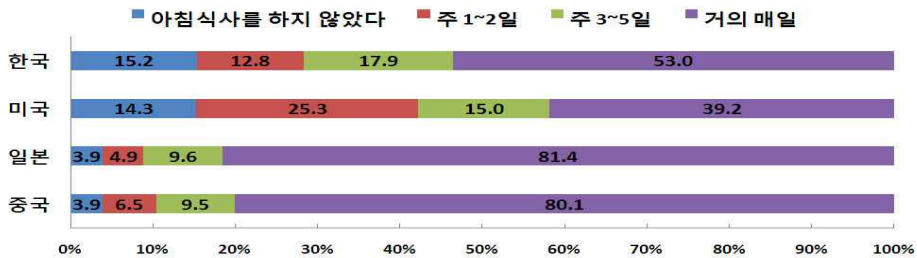
3) 영양 및 식습관

7.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 빈도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에 응답한 비율은 한국 청소년들이 15.2%로 가장 많았고, 중국(3.9%)과 일본(3.9%)이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일본이 81.4%로 가장 많았고, 중국(80.1%), 한국(53.0%), 미국(39.2%)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 빈도의 성별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 빈도

<표 II-9>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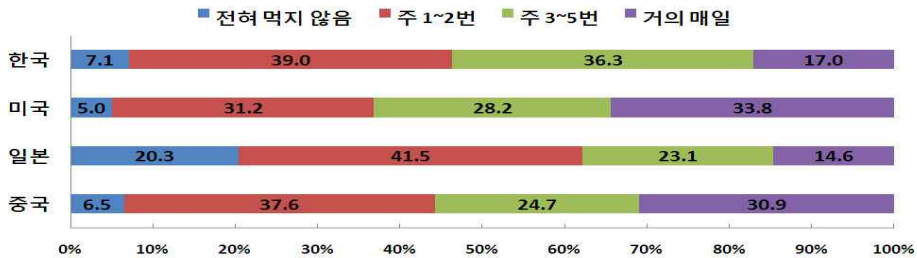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음	주 1-2일	주 3-5일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5.3	11.6	17.7	54.1	1.3
	여 자	100(1,929)	15.0	14.2	18.2	51.8	0.8
	전 체	100(3,933)	15.2	12.8	17.9	53.0	1.1
미국	남 자	100(455)	12.5	24.6	12.5	43.1	7.3
	여 자	100(550)	15.8	25.8	17.1	36.0	5.3
	전 체	100(1,005)	14.3	25.3	15.0	39.2	6.2
일본	남 자	100(597)	5.2	5.5	7.9	81.1	0.3
	여 자	100(515)	2.3	4.1	11.7	81.7	0.2
	전 체	100(1,112)	3.9	4.9	9.6	81.4	0.3
중국	남 자	100(568)	4.2	6.9	11.1	77.8	0.0
	여 자	100(604)	3.6	6.1	7.9	82.3	0.0
	전 체	100(1,172)	3.9	6.5	9.5	80.1	0.0

8-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일)

최근 일주일동안 과일을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미국이 33.8%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4.6%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과일을 먹은 비율은 미국(62.0%), 중국(55.6%), 한국(53.3%), 일본(37.7%) 순으로 많았고, 특히 일본은 과일을 전혀 먹지 않은 비율이 20.3%로 가장 많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과일을 더 자주 먹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그림 II-1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일)

<표 II-10>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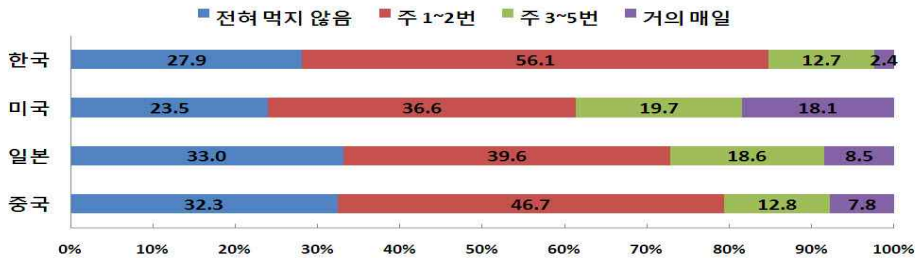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8.3	43.7	33.8	13.5	0.6
	여 자	100(1,929)	5.8	34.1	38.9	20.6	0.6
	전 체	100(3,933)	7.1	39.0	36.3	17.0	0.6
미국	남 자	100(455)	4.2	32.3	30.3	31.9	1.3
	여 자	100(550)	5.6	30.4	26.4	35.5	2.2
	전 체	100(1,005)	5.0	31.2	28.2	33.8	1.8
일본	남 자	100(597)	19.6	41.5	25.1	13.6	0.2
	여 자	100(515)	21.2	41.6	20.8	15.7	0.8
	전 체	100(1,112)	20.3	41.5	23.1	14.6	0.4
중국	남 자	100(568)	10.2	45.4	21.8	22.0	0.5
	여 자	100(604)	3.0	30.3	27.3	39.2	0.2
	전 체	100(1,172)	6.5	37.6	24.7	30.9	0.3

8-2.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탄산음료)

**최근 일주일동안 탄산음료를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미국이 18.1%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4%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먹은 비율은 미국(37.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27.1%), 중국(20.6%), 한국(15.1%)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탄산음료를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탄산음료)

<표 II-1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탄산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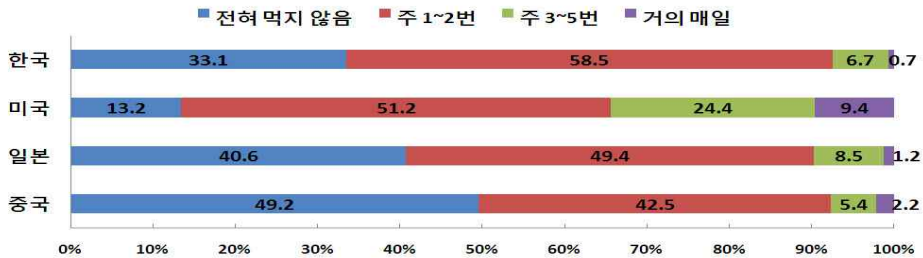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1.7	58.2	15.7	3.3	1.0
	여 자	100(1,929)	34.4	53.9	9.7	1.4	0.6
	전 체	100(3,933)	27.9	56.1	12.7	2.4	0.8
미국	남 자	100(455)	23.7	31.0	24.6	18.7	2.0
	여 자	100(550)	23.3	41.3	15.6	17.6	2.2
	전 체	100(1,005)	23.5	36.6	19.7	18.1	2.1
일본	남 자	100(597)	25.3	39.7	22.9	11.9	0.2
	여 자	100(515)	41.9	39.4	13.6	4.5	0.6
	전 체	100(1,112)	33.0	39.6	18.6	8.5	0.4
중국	남 자	100(568)	24.3	46.0	19.0	10.2	0.5
	여 자	100(604)	39.7	47.4	7.0	5.5	0.5
	전 체	100(1,172)	32.3	46.7	12.8	7.8	0.5

8-3.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패스트푸드)

**최근 일주일동안 패스트푸드를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미국이 9.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0.7%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율은 미국(33.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9.7%), 중국(7.6%), 한국(7.4%)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3]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패스트푸드)

<표 II-12>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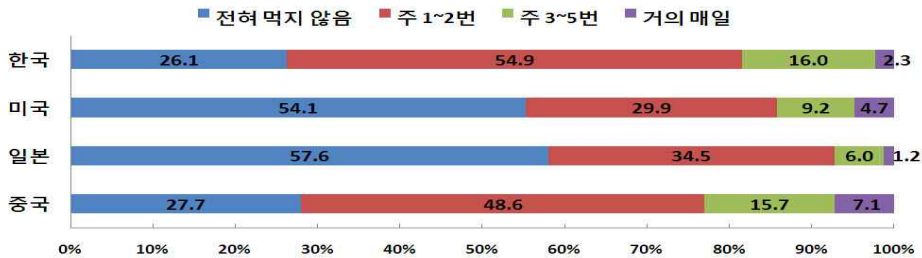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자	100(2,004)	31.1	59.1	7.6	1.1	1.0
	여자	100(1,929)	35.1	57.9	5.8	0.3	0.8
	전체	100(3,933)	33.1	58.5	6.7	0.7	0.9
미국	남자	100(455)	10.3	50.3	29.2	8.6	1.5
	여자	100(550)	15.6	52.0	20.4	10.0	2.0
	전체	100(1,005)	13.2	51.2	24.4	9.4	1.8
일본	남자	100(597)	39.4	49.6	9.5	1.3	0.2
	여자	100(515)	42.1	49.1	7.2	1.0	0.6
	전체	100(1,112)	40.6	49.4	8.5	1.2	0.4
중국	남자	100(568)	52.1	37.7	6.0	3.3	0.9
	여자	100(604)	46.5	47.0	4.8	1.2	0.5
	전체	100(1,172)	49.2	42.5	5.4	2.2	0.7

8-4.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라면)

최근 일주일동안 라면을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중국이 7.1%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2%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라면을 먹은 비율은 중국이 2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18.3%), 미국(13.9%), 일본(7.2%)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라면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유사하였다.



[그림 II-14]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라면)

<표 II-13>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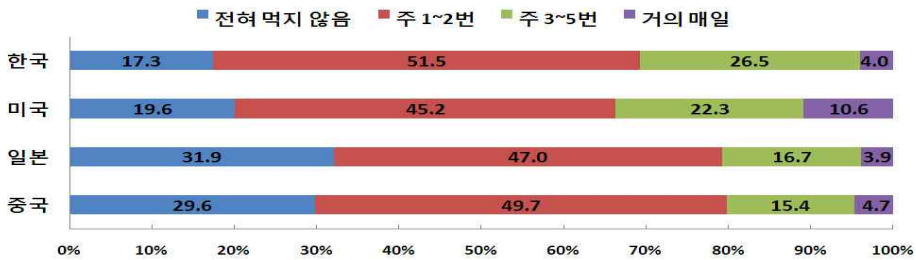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9.8	56.3	20.1	3.0	0.8
	여 자	100(1,929)	32.8	53.3	11.7	1.6	0.6
	전 체	100(3,933)	26.1	54.9	16.0	2.3	0.7
미국	남 자	100(455)	53.8	31.0	8.8	5.1	1.3
	여 자	100(550)	54.4	28.9	9.5	4.4	2.9
	전 체	100(1,005)	54.1	29.9	9.2	4.7	2.2
일본	남 자	100(597)	48.9	40.0	8.9	1.8	0.3
	여 자	100(515)	67.6	28.2	2.7	0.4	1.2
	전 체	100(1,112)	57.6	34.5	6.0	1.2	0.7
중국	남 자	100(568)	28.2	45.4	16.0	9.2	1.2
	여 자	100(604)	27.3	51.7	15.4	5.1	0.5
	전 체	100(1,172)	27.7	48.6	15.7	7.1	0.9

8-5.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자)

최근 일주일동안 과자를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미국이 10.6%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9%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과자를 먹은 비율은 미국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30.5%), 일본(20.6%), 중국(20.1%)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과자를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자)

<표 II-14>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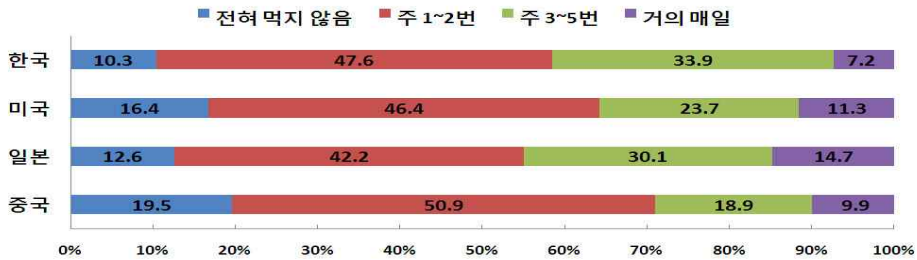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8.3	53.0	24.4	3.3	1.0
	여 자	100(1,929)	16.2	49.9	28.7	4.6	0.7
	전 체	100(3,933)	17.3	51.5	26.5	4.0	0.8
미국	남 자	100(455)	19.1	44.6	25.5	9.0	1.8
	여 자	100(550)	20.0	45.6	19.6	12.0	2.7
	전 체	100(1,005)	19.6	45.2	22.3	10.6	2.3
일본	남 자	100(597)	34.0	45.7	15.9	4.0	0.3
	여 자	100(515)	29.5	48.5	17.7	3.7	0.6
	전 체	100(1,112)	31.9	47.0	16.7	3.9	0.4
중국	남 자	100(568)	38.4	44.0	12.7	3.9	1.1
	여 자	100(604)	21.4	55.0	17.9	5.5	0.3
	전 체	100(1,172)	29.6	49.7	15.4	4.7	0.7

8-6.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최근 일주일동안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을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일본이 14.7%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7.2%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을 먹은 비율은 일본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41.1%), 미국(35.0%), 중국(28.8%)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6]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표 II-15>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초콜렛, 사탕, 아이스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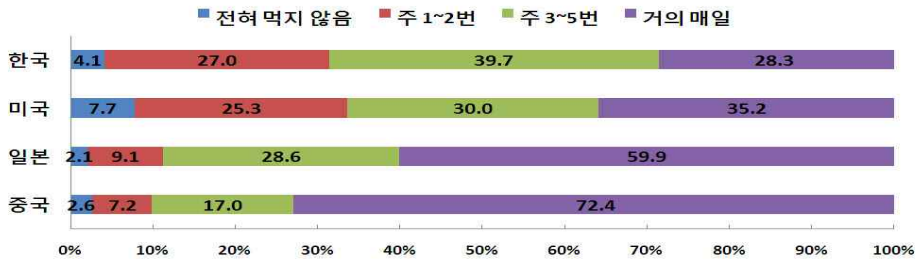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1.1	49.1	32.3	6.5	1.0
	여 자 100(1,929)	9.5	46.1	35.6	7.9	0.8
	전 체 100(3,933)	10.3	47.6	33.9	7.2	0.9
미국	남 자 100(455)	19.1	45.9	23.1	10.1	1.8
	여 자 100(550)	14.2	46.7	24.2	12.4	2.5
	전 체 100(1,005)	16.4	46.4	23.7	11.3	2.2
일본	남 자 100(597)	18.1	43.6	27.1	11.2	0.0
	여 자 100(515)	6.2	40.6	33.6	18.8	0.8
	전 체 100(1,112)	12.6	42.2	30.1	14.7	0.4
중국	남 자 100(568)	24.5	51.8	15.7	6.9	1.2
	여 자 100(604)	14.7	50.0	22.0	12.7	0.5
	전 체 100(1,172)	19.5	50.9	18.9	9.9	0.9

8-7.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채소)

최근 일주일동안 채소를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중국이 72.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8.3%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채소를 먹은 비율은 중국이 8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88.5%), 한국(68.0%), 미국(65.2%)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채소를 먹은 빈도가 4개국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7]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채소)

<표 II-16>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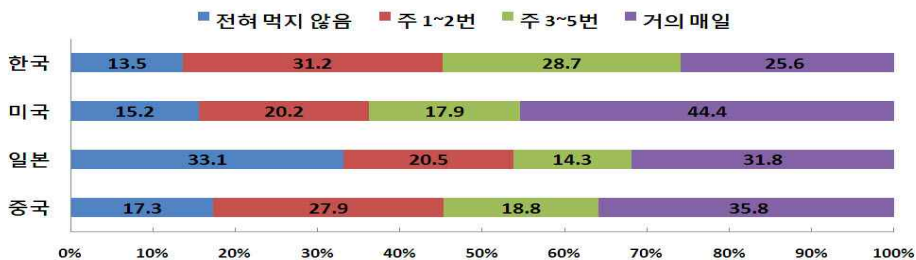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9	27.2	40.2	27.8	0.9
	여 자	100(1,929)	4.3	26.7	39.3	28.8	0.9
	전 체	100(3,933)	4.1	27.0	39.7	28.3	0.9
미국	남 자	100(455)	8.8	27.9	32.5	29.0	1.8
	여 자	100(550)	6.7	23.1	27.8	40.4	2.0
	전 체	100(1,005)	7.7	25.3	30.0	35.2	1.9
일본	남 자	100(597)	2.0	9.9	29.8	58.3	0.0
	여 자	100(515)	2.1	8.2	27.2	61.7	0.8
	전 체	100(1,112)	2.1	9.1	28.6	59.9	0.4
중국	남 자	100(568)	2.5	7.6	19.7	68.8	1.4
	여 자	100(604)	2.6	6.8	14.4	75.7	0.5
	전 체	100(1,172)	2.6	7.2	17.0	72.4	0.9

8-8.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우유)

최근 일주일동안 우유를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미국이 44.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5.6%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우유를 먹은 비율은 미국이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54.6%), 한국(54.3%), 일본(46.1%)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우유를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8]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우유)

<표 II-17>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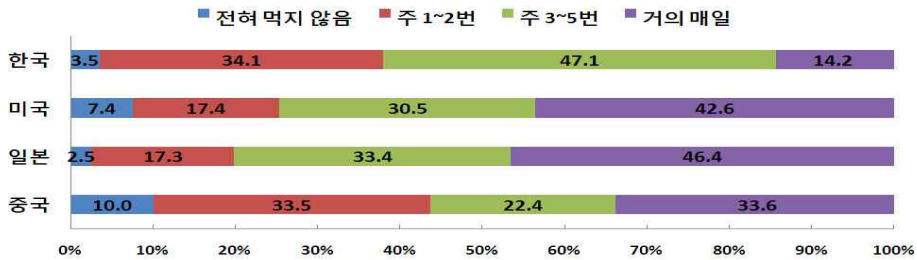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9.3	29.5	31.0	29.1	1.0
	여 자	100(1,929)	17.9	32.9	26.3	21.8	1.0
	전 체	100(3,933)	13.5	31.2	28.7	25.6	1.0
미국	남 자	100(455)	9.9	18.7	18.0	51.6	1.8
	여 자	100(550)	19.6	21.5	17.8	38.4	2.7
	전 체	100(1,005)	15.2	20.2	17.9	44.4	2.3
일본	남 자	100(597)	25.6	19.6	15.9	38.9	0.0
	여 자	100(515)	41.7	21.6	12.4	23.7	0.6
	전 체	100(1,112)	33.1	20.5	14.3	31.8	0.3
중국	남 자	100(568)	18.8	28.2	17.6	35.2	0.2
	여 자	100(604)	15.9	27.6	19.9	36.4	0.2
	전 체	100(1,172)	17.3	27.9	18.8	35.8	0.2

8-9.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고기나 생선)

최근 일주일동안 고기나 생선을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일본이 46.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4.2%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은 비율은 일본이 7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73.1%), 한국(61.3%), 중국(56.0%)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고기나 생선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9]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고기나 생선)

<표 II-18>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고기나 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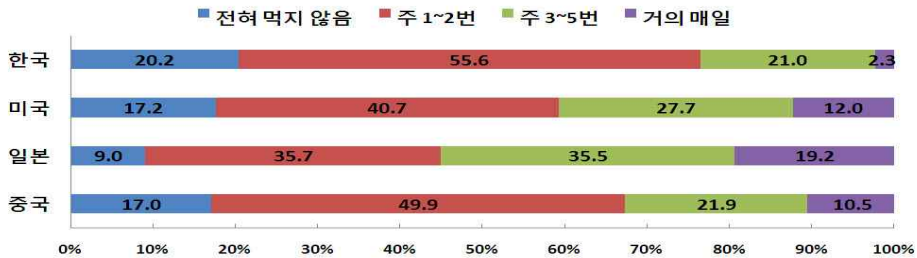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7	32.4	48.7	15.3	1.0
	여 자	100(1,929)	4.4	35.9	45.5	13.2	1.1
	전 체	100(3,933)	3.5	34.1	47.1	14.2	1.1
미국	남 자	100(455)	4.4	15.6	28.8	49.7	1.5
	여 자	100(550)	9.8	18.9	32.0	36.7	2.5
	전 체	100(1,005)	7.4	17.4	30.5	42.6	2.1
일본	남 자	100(597)	1.8	13.9	33.0	51.1	0.2
	여 자	100(515)	3.3	21.2	33.8	41.0	0.8
	전 체	100(1,112)	2.5	17.3	33.4	46.4	0.4
중국	남 자	100(568)	8.5	31.7	23.1	36.1	0.7
	여 자	100(604)	11.4	35.3	21.9	31.3	0.2
	전 체	100(1,172)	10.0	33.5	22.4	33.6	0.4

8-10.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가공식품)

최근 일주일동안 가공식품을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일본이 19.2%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3%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가공식품을 먹은 비율은 일본이 5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39.7%), 중국(32.4%), 한국(23.3%)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0]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가공식품)

<표 II-19>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가공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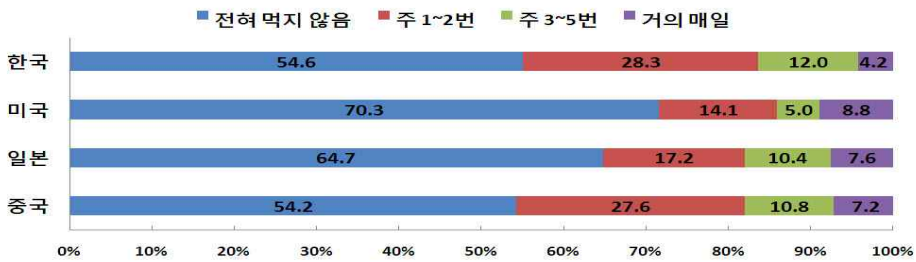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7.8	56.9	21.7	2.5	1.1
	여 자	100(1,929)	22.7	54.2	20.2	2.0	1.0
	전 체	100(3,933)	20.2	55.6	21.0	2.3	1.0
미국	남 자	100(455)	13.6	38.2	30.8	15.2	2.2
	여 자	100(550)	20.2	42.7	25.1	9.5	2.5
	전 체	100(1,005)	17.2	40.7	27.7	12.0	2.4
일본	남 자	100(597)	8.4	34.2	36.3	20.8	0.3
	여 자	100(515)	9.7	37.5	34.6	17.3	1.0
	전 체	100(1,112)	9.0	35.7	35.5	19.2	0.6
중국	남 자	100(568)	14.6	50.0	24.6	9.7	1.1
	여 자	100(604)	19.2	49.8	19.4	11.3	0.3
	전 체	100(1,172)	17.0	49.9	21.9	10.5	0.7

8-1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커피)

최근 일주일동안 커피를 ‘거의 매일’ 먹은 경우는 미국이 8.8%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4.2%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주 3회 이상’ 커피를 먹은 비율은 중국과 일본이 1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16.2%), 미국(13.8%)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커피)

<표 II-20> 최근 일주일동안 자주 먹은 음식(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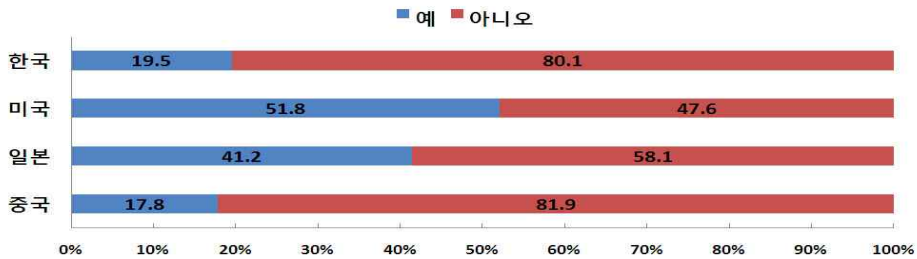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먹지않음	주 1-2번	주 3-5번	거의 매일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56.3	28.1	10.3	4.2	1.1
	여 자	100(1,929)	52.8	28.6	13.7	4.1	0.7
	전 체	100(3,933)	54.6	28.3	12.0	4.2	0.9
미국	남 자	100(455)	74.3	11.9	4.6	7.7	1.5
	여 자	100(550)	67.1	16.0	5.3	9.6	2.0
	전 체	100(1,005)	70.3	14.1	5.0	8.8	1.8
일본	남 자	100(597)	59.3	18.8	12.2	9.7	0.0
	여 자	100(515)	70.9	15.3	8.3	5.0	0.4
	전 체	100(1,112)	64.7	17.2	10.4	7.6	0.2
중국	남 자	100(568)	57.7	23.9	9.3	8.5	0.5
	여 자	100(604)	50.8	31.0	12.1	6.0	0.2
	전 체	100(1,172)	54.2	27.6	10.8	7.2	0.3

9. 학교에서 영양교육 받은 경험 여부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51.8%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7.8%로 가장 적었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19.5%가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17.8%)보다는 많았지만, 미국(51.8%)과 일본(41.2%)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에서 영양교육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영양교육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 학교에서 영양교육 받은 경험 여부

<표 II-21> 학교에서 영양교육 받은 경험 여부

구분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한국	남자	100(2,004)	19.9	79.6	0.5
	여자	100(1,929)	19.1	80.7	0.2
	전체	100(3,933)	19.5	80.1	0.4
미국	남자	100(455)	53.0	46.4	0.7
	여자	100(550)	50.9	48.5	0.5
	전체	100(1,005)	51.8	47.6	0.6
일본	남자	100(597)	45.7	53.9	0.3
	여자	100(515)	35.9	62.9	1.2
	전체	100(1,112)	41.2	58.1	0.7
중국	남자	100(568)	17.4	82.2	0.4
	여자	100(604)	18.2	81.6	0.2
	전체	100(1,172)	17.8	8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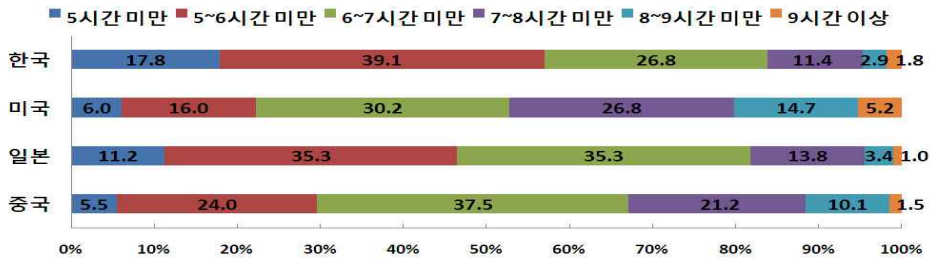
4) 수 면

10.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비율은 미국이 19.9%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4.4%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비율은 미국이 46.7%로 가장 많았고, 중국(32.8%), 일본(18.2%), 한국(16.1%)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비율은 한국, 미국, 중국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았으며, 일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림 II-23]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

<표 II-22>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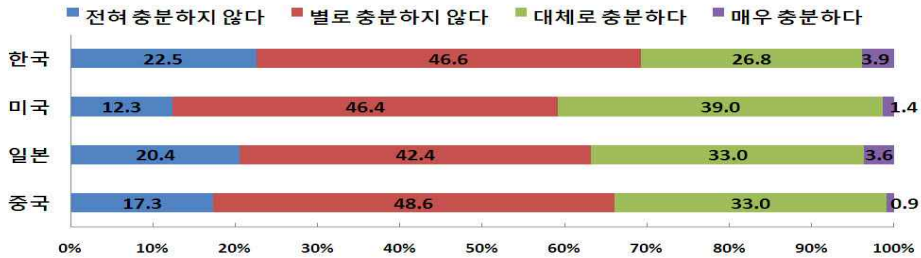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4.6	37.7	29.7	13.1	2.7	1.9	0.1
	여 자	100(1,929)	21.2	40.5	23.8	9.6	3.2	1.7	0.1
	전 체	100(3,933)	17.8	39.1	26.8	11.4	2.9	1.8	0.1
미국	남 자	100(455)	6.4	13.8	30.1	25.9	17.4	5.3	1.1
	여 자	100(550)	5.6	17.8	30.4	27.5	12.5	5.1	1.1
	전 체	100(1,005)	6.0	16.0	30.2	26.8	14.7	5.2	1.1
일본	남 자	100(597)	12.4	34.3	36.7	12.7	2.8	1.0	0.0
	여 자	100(515)	9.9	36.3	33.6	15.0	4.1	1.0	0.2
	전 체	100(1,112)	11.2	35.3	35.3	13.8	3.4	1.0	0.1
중국	남 자	100(568)	4.4	16.9	37.9	23.8	14.1	2.6	0.4
	여 자	100(604)	6.5	30.6	37.1	18.9	6.3	0.5	0.2
	전 체	100(1,172)	5.5	24.0	37.5	21.2	10.1	1.5	0.3

11.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생각

자신의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 긍정응답률은 미국이 40.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30.7%로 가장 적었음

○ 자신의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 긍정응답률은 미국이 40.4%로 가장 많았고, 일본(36.6%), 중국(33.9%), 한국(30.7%)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자신의 수면시간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림 II-24]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생각

<표 II-23>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생각

구분		전체(빈도)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별로 충분하지 않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0.3	45.7	29.4	4.3	0.2
	여 자	100(1,929)	24.8	47.6	24.0	3.4	0.2
	전 체	100(3,933)	22.5	46.6	26.8	3.9	0.2
미국	남 자	100(455)	12.7	44.4	40.9	1.3	0.7
	여 자	100(550)	12.0	48.0	37.5	1.5	1.1
	전 체	100(1,005)	12.3	46.4	39.0	1.4	0.9
일본	남 자	100(597)	22.1	38.7	34.5	3.9	0.8
	여 자	100(515)	18.4	46.8	31.3	3.3	0.2
	전 체	100(1,112)	20.4	42.4	33.0	3.6	0.5
중국	남 자	100(568)	14.6	43.5	40.7	1.1	0.2
	여 자	100(604)	19.9	53.5	25.8	0.8	0.0
	전 체	100(1,172)	17.3	48.6	33.0	0.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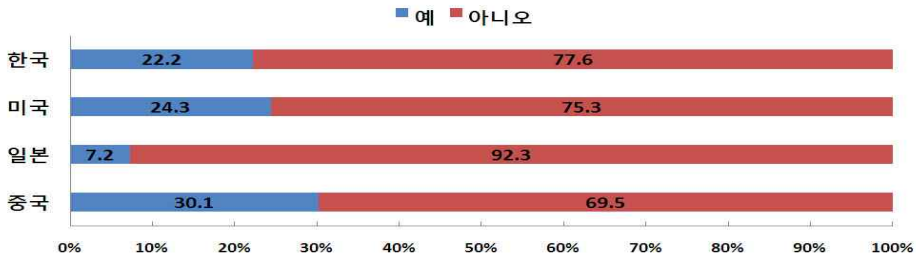
5) 흡 연

12. 흡연경험 여부

지금까지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30.1%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7.2%로 가장 적었음

○ 지금까지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30.1%로 가장 많았고, 미국(24.3%), 한국(22.2%), 일본(7.2%)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흡연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5] 흡연경험 여부

<표 II-24> 흡연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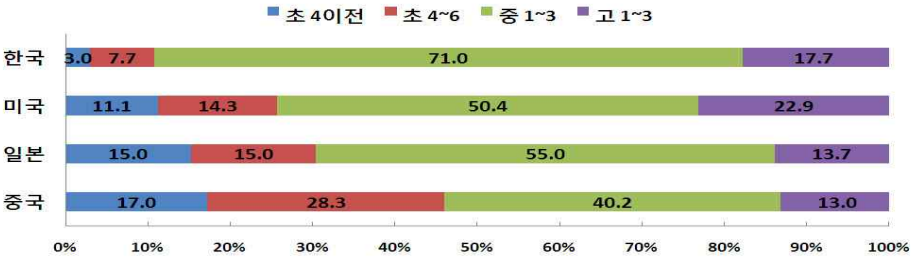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3.1	66.7	0.1
	여 자	100(1,929)	10.8	88.9	0.3
	전 체	100(3,933)	22.2	77.6	0.2
미국	남 자	100(455)	24.8	75.2	0.0
	여 자	100(550)	23.8	75.5	0.7
	전 체	100(1,005)	24.3	75.3	0.4
일본	남 자	100(597)	8.0	91.5	0.5
	여 자	100(515)	6.2	93.2	0.6
	전 체	100(1,112)	7.2	92.3	0.5
중국	남 자	100(568)	43.8	55.5	0.7
	여 자	100(604)	17.2	82.8	0.0
	전 체	100(1,172)	30.1	69.5	0.3

13. 처음 흡연한 시기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처음으로 흡연한 시기가 ‘초6 이전’인 비율은 중국이 45.3%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7%로 가장 적었음

○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처음으로 흡연한 시기가 ‘초6 이전’인 비율은 중국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일본(30.0%), 미국(25.4%), 한국(10.7%)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초6 이전’에 처음 흡연을 경험한 비율은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게 나타났다.



[그림 II-26] 처음 흡연한 시기

<표 II-25> 처음 흡연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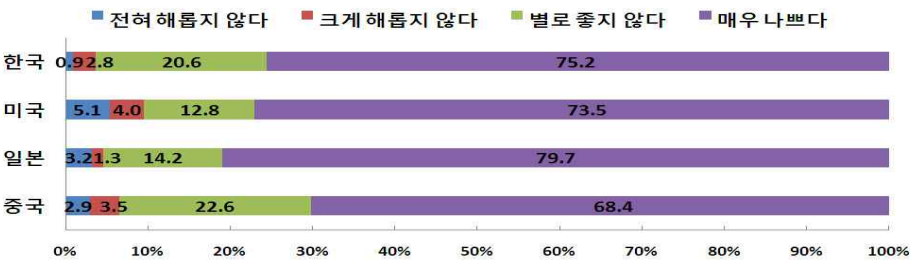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초 4이전	초 4~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무응답
한국	남 자	100(664)	2.7	8.1	16.7	29.2	24.8	12.8	3.6	1.7	0.3
	여 자	100(209)	3.8	6.2	18.2	31.1	22.5	11.0	4.8	1.0	1.4
	전 체	100(873)	3.0	7.7	17.1	29.7	24.3	12.4	3.9	1.5	0.6
미국	남 자	100(113)	14.2	13.3	15.0	11.5	20.4	13.3	7.1	5.3	0.0
	여 자	100(131)	8.4	15.3	16.0	18.3	19.1	10.7	8.4	1.5	2.3
	전 체	100(244)	11.1	14.3	15.6	15.2	19.7	11.9	7.8	3.3	1.2
일본	남 자	100(48)	14.6	16.7	8.3	20.8	20.8	12.5	4.2	2.1	0.0
	여 자	100(32)	15.6	12.5	9.4	28.1	25.0	3.1	3.1	0.0	3.1
	전 체	100(80)	15.0	15.0	8.8	23.8	22.5	8.8	3.8	1.3	1.3
중국	남 자	100(249)	19.3	26.1	12.4	17.7	10.0	4.8	5.2	2.8	1.6
	여 자	100(104)	11.5	33.7	7.7	18.3	14.4	7.7	3.8	1.9	1.0
	전 체	100(353)	17.0	28.3	11.0	17.8	11.3	5.7	4.8	2.5	1.4

14.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95.8%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6.3%로 가장 적었음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와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95.8%로 가장 많았고, 일본(93.9%), 중국(91.0%), 미국(86.3%)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와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개국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II-27>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표 II-26>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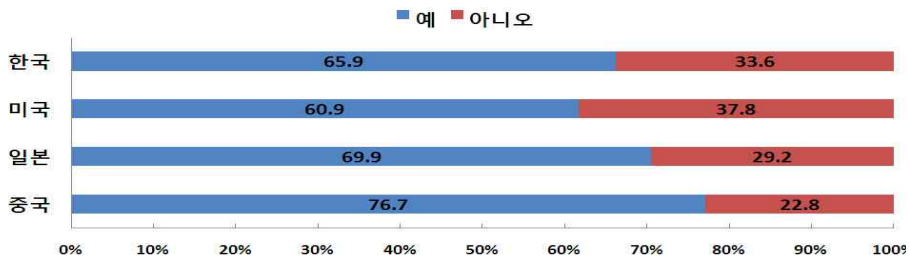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해롭지 않다	크게 해롭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나쁘다	무응답
한국	남자	100(2,004)	1.4	3.5	25.0	69.5	0.6
	여자	100(1,929)	0.4	2.0	16.0	81.2	0.5
	전체	100(3,933)	0.9	2.8	20.6	75.2	0.6
미국	남자	100(455)	5.7	4.0	15.2	69.7	5.5
	여자	100(550)	4.5	4.0	10.9	76.7	3.8
	전체	100(1,005)	5.1	4.0	12.8	73.5	4.6
일본	남자	100(597)	3.0	1.7	15.4	77.9	2.0
	여자	100(515)	3.5	1.0	12.8	81.7	1.0
	전체	100(1,112)	3.2	1.3	14.2	79.7	1.5
중국	남자	100(568)	2.5	5.3	30.1	58.1	4.0
	여자	100(604)	3.3	1.8	15.6	78.1	1.2
	전체	100(1,172)	2.9	3.5	22.6	68.4	2.6

15.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또는 금연교육을 받아본 경험여부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중국이 76.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0.9%로 가장 적었음

○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중국이 76.7%로 가장 많았고, 일본(69.9%), 한국(65.9%), 미국(60.9%)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았으며, 미국, 일본, 중국은 유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28]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혹은 금연교육 수혜여부

<표 II-27>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혹은 금연교육 수혜여부

구분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8.2	31.4	0.3
	여 자	100(1,929)	63.6	35.9	0.6
	전 체	100(3,933)	65.9	33.6	0.5
미국	남 자	100(455)	60.4	38.0	1.5
	여 자	100(550)	61.3	37.6	1.1
	전 체	100(1,005)	60.9	37.8	1.3
일본	남 자	100(597)	69.8	29.8	0.3
	여 자	100(515)	69.9	28.5	1.6
	전 체	100(1,112)	69.9	29.2	0.9
중국	남 자	100(568)	76.8	23.1	0.2
	여 자	100(604)	76.7	22.5	0.8
	전 체	100(1,172)	76.7	22.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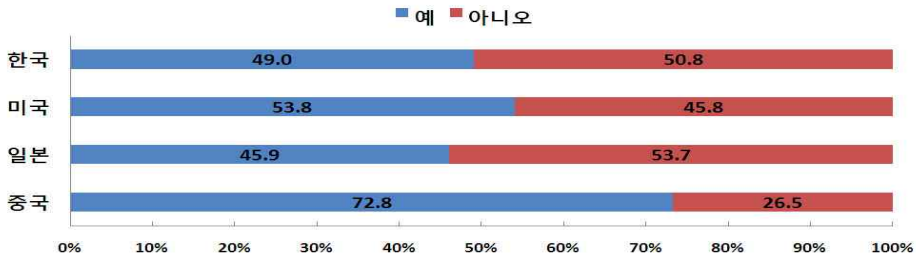
6) 음 주

16. 음주경험 여부

지금까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72.8%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45.9%로 가장 적었음

○ 지금까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72.8%로 가장 많았고, 미국(53.8%), 한국(49.0%), 일본(45.9%)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음주경험이 더 많았고, 미국과 일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음주경험이 더 많았다.



[그림 II-29] 음주경험 여부

<표 II-28> 음주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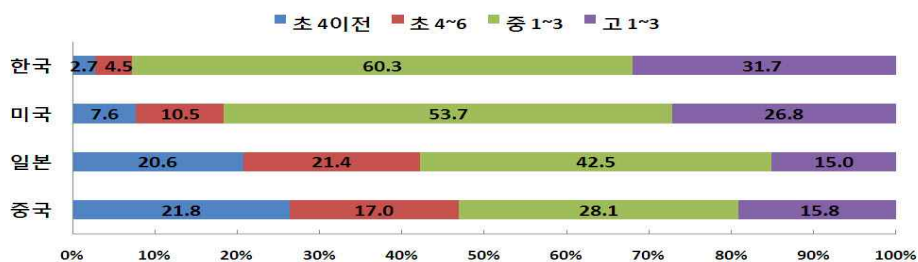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52.0	47.7	0.2
	여 자	100(1,929)	45.8	54.0	0.2
	전 체	100(3,933)	49.0	50.8	0.2
미국	남 자	100(455)	51.6	47.7	0.7
	여 자	100(550)	55.6	44.2	0.2
	전 체	100(1,005)	53.8	45.8	0.4
일본	남 자	100(597)	42.4	57.3	0.3
	여 자	100(515)	49.9	49.5	0.6
	전 체	100(1,112)	45.9	53.7	0.4
중국	남 자	100(568)	82.7	16.5	0.7
	여 자	100(604)	63.4	35.9	0.7
	전 체	100(1,172)	72.8	26.5	0.7

17. 처음 음주한 시기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처음으로 음주한 시기가 ‘초6 이전’인 비율은
중국이 38.8%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7.2%로 가장 적었음**

○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처음으로 음주한 시기가 ‘초6 이전’인 비율은 중국이 38.8%로 가장 많았고, 일본(42.0%), 미국(18.1%), 한국(7.2%)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초6 이전’에 처음 음주를 경험한 비율은 한국, 미국, 중국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이 나타났고, 일본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II-30] 처음 음주한 시기

<표 II-29> 처음 음주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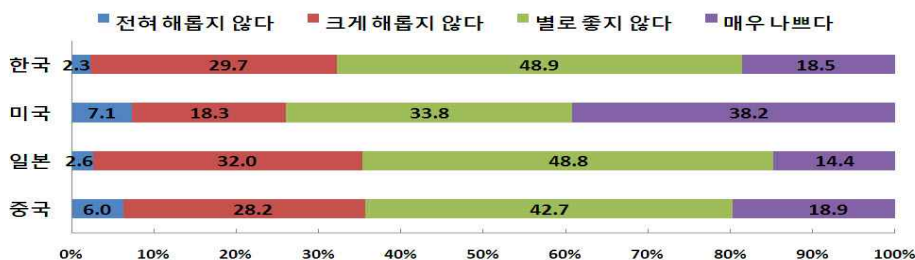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초 4 이전	초 4~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무응답
한국	남 자	100(1,043)	3.4	4.6	10.6	17.0	28.9	23.1	8.6	3.2	0.7
	여 자	100(884)	1.9	4.4	13.0	23.6	28.2	17.6	7.6	2.8	0.8
	전 체	100(1,927)	2.7	4.5	11.7	20.0	28.5	20.6	8.1	3.0	0.7
미국	남 자	100(235)	9.8	10.6	11.9	19.1	20.9	15.3	7.7	2.6	2.1
	여 자	100(306)	5.9	10.5	16.0	17.0	22.2	17.3	8.8	1.6	0.7
	전 체	100(541)	7.6	10.5	14.2	17.9	21.6	16.5	8.3	2.0	1.3
일본	남 자	100(253)	21.3	20.6	13.8	13.4	15.8	8.7	4.3	1.6	0.4
	여 자	100(257)	19.8	22.2	16.0	14.4	11.7	12.1	3.1	0.4	0.4
	전 체	100(510)	20.6	21.4	14.9	13.9	13.7	10.4	3.7	1.0	0.4
중국	남 자	100(470)	23.8	14.9	15.1	10.2	19.4	10.2	4.5	1.5	0.4
	여 자	100(383)	19.3	19.6	15.9	11.7	17.0	11.2	3.1	1.0	1.0
	전 체	100(853)	21.8	17.0	15.5	10.9	18.3	10.7	3.9	1.3	0.7

18.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72.0%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1.6%로 가장 적었음

○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와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72.0%로 가장 많았고, 한국(67.4%), 일본(63.2%), 중국(61.6%)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와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개국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게 나타났다.



[그림 II-31]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표 II-30>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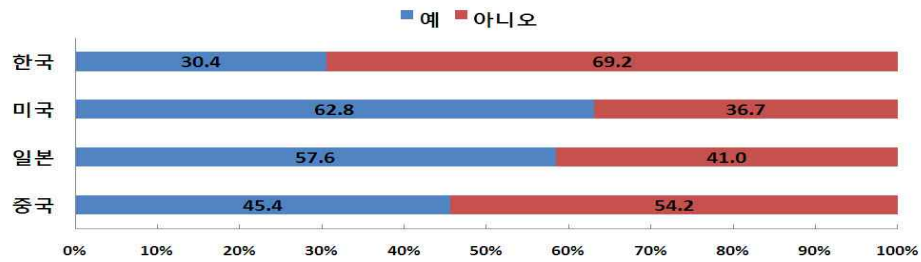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해롭지 않다	크게 해롭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나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2	34.6	44.3	17.3	0.5
	여 자	100(1,929)	1.3	24.7	53.7	19.8	0.5
	전 체	100(3,933)	2.3	29.7	48.9	18.5	0.5
미국	남 자	100(455)	8.8	19.1	34.7	33.8	3.5
	여 자	100(550)	5.6	17.6	33.1	41.8	1.8
	전 체	100(1,005)	7.1	18.3	33.8	38.2	2.6
일본	남 자	100(597)	4.0	35.3	42.7	15.2	2.7
	여 자	100(515)	1.0	28.2	55.9	13.4	1.6
	전 체	100(1,112)	2.6	32.0	48.8	14.4	2.2
중국	남 자	100(568)	8.3	32.7	37.7	16.0	5.3
	여 자	100(604)	3.8	23.8	47.5	21.7	3.1
	전 체	100(1,172)	6.0	28.2	42.7	18.9	4.2

19. 최근 1년 동안 음주예방 또는 금주교육을 받아본 경험여부

최근 1년 동안 음주예방이나 금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62.8%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30.4%로 가장 적었음

○ 최근 1년 동안 음주예방이나 금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62.8%로 가장 많았고, 일본(57.6%), 중국(45.4%), 한국(30.4%)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더 많았으며, 일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32] 음주예방 및 금주교육 수혜여부

<표 II-31> 음주예방 및 금주교육 수혜여부

구분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1.1	68.5	0.4
	여 자	100(1,929)	29.7	69.9	0.4
	전 체	100(3,933)	30.4	69.2	0.4
미국	남 자	100(455)	64.0	35.8	0.2
	여 자	100(550)	61.8	37.5	0.7
	전 체	100(1,005)	62.8	36.7	0.5
일본	남 자	100(597)	56.3	42.4	1.3
	여 자	100(515)	59.2	39.4	1.4
	전 체	100(1,112)	57.6	41.0	1.3
중국	남 자	100(568)	47.2	52.5	0.4
	여 자	100(604)	43.7	55.8	0.5
	전 체	100(1,172)	45.4	54.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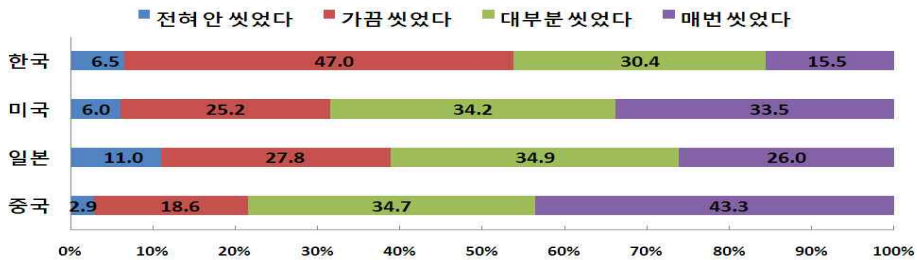
7) 개인위생

20-1. 최근 일주일동안 손 씻은 정도(식사 전)

최근 일주일동안 식사하기 전에 손 씻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또는 ‘매번’ 씻은 비율은 중국이 78.0%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45.9%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식사하기 전에 손 씻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또는 ‘매번’ 씻은 비율은 중국이 78.0%로 가장 많았고, 미국(67.7%), 일본(60.9%), 한국(45.9%)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식사하기 전에 ‘대부분’ 또는 ‘매번’ 손 씻은 비율은 한국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고, 미국과 중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일본은 유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33] 최근 일주일동안 손 씻은 정도(식사 전)

<표 II-32> 최근 일주일동안 손 씻은 정도(식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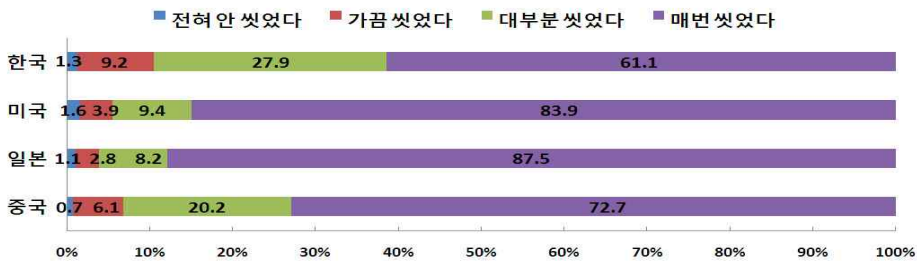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안 씻었다	가끔 씻었다	대부분 씻었다	매번 씻었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5.4	42.0	32.4	19.4	0.8
	여 자	100(1,929)	7.6	52.2	28.3	11.4	0.6
	전 체	100(3,933)	6.5	47.0	30.4	15.5	0.7
미국	남 자	100(455)	5.9	26.2	35.4	31.2	1.3
	여 자	100(550)	6.0	24.4	33.3	35.5	0.9
	전 체	100(1,005)	6.0	25.2	34.2	33.5	1.1
일본	남 자	100(597)	12.7	26.3	31.2	29.5	0.3
	여 자	100(515)	8.9	29.5	39.2	21.9	0.4
	전 체	100(1,112)	11.0	27.8	34.9	26.0	0.4
중국	남 자	100(568)	4.2	20.1	31.0	44.2	0.5
	여 자	100(604)	1.7	17.2	38.2	42.5	0.3
	전 체	100(1,172)	2.9	18.6	34.7	43.3	0.4

20-2. 최근 일주일동안 손 씻은 정도(화장실 다녀온 후)

최근 일주일동안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또는 ‘매번’ 씻은 비율은 일본이 95.7%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89.0%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화장실 다녀온 후에 손 씻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또는 ‘매번’ 씻은 비율은 일본이 95.7%로 가장 많았고, 미국(93.3%), 중국(92.9%), 한국(89.0%)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에 ‘대부분’ 또는 ‘매번’ 손 씻은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고, 중국은 유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34]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화장실 다녀온 후)

<표 II-33>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화장실 다녀온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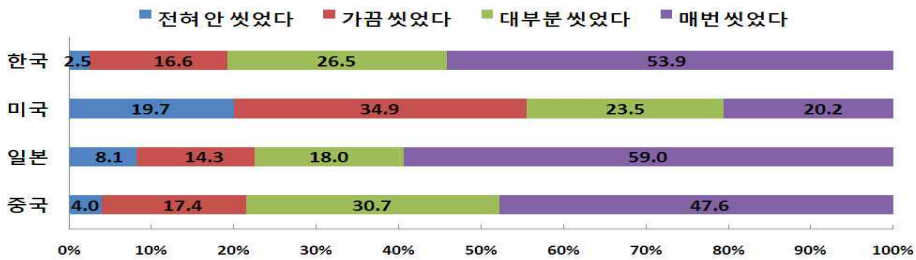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안 씻었다	가끔 씻었다	대부분 씻었다	매번 씻었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8	10.6	30.8	56.1	0.7
	여 자	100(1,929)	0.8	7.7	24.8	66.4	0.4
	전 체	100(3,933)	1.3	9.2	27.9	61.1	0.5
미 국	남 자	100(455)	1.5	6.2	12.5	78.5	1.3
	여 자	100(550)	1.6	2.0	6.7	88.4	1.3
	전 체	100(1,005)	1.6	3.9	9.4	83.9	1.3
일 본	남 자	100(597)	1.8	3.0	8.9	85.6	0.7
	여 자	100(515)	0.2	2.5	7.4	89.7	0.2
	전 체	100(1,112)	1.1	2.8	8.2	87.5	0.4
중 국	남 자	100(568)	0.7	5.8	21.7	71.5	0.4
	여 자	100(604)	0.7	6.3	18.9	73.8	0.3
	전 체	100(1,172)	0.7	6.1	20.2	72.7	0.3

20-3. 최근 일주일동안 손 씻은 정도(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최근 일주일동안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또는 ‘매번’ 씻은 비율은 한국이 80.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43.7%로 가장 적었음**

○ 최근 일주일동안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손 씻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또는 ‘매번’ 씻은 비율은 한국이 80.4%로 가장 많았고, 중국(78.3%), 일본(77.0%), 미국(43.7%)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 또는 ‘매번’ 손 씻은 비율은 4개국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다.



[그림 II-35]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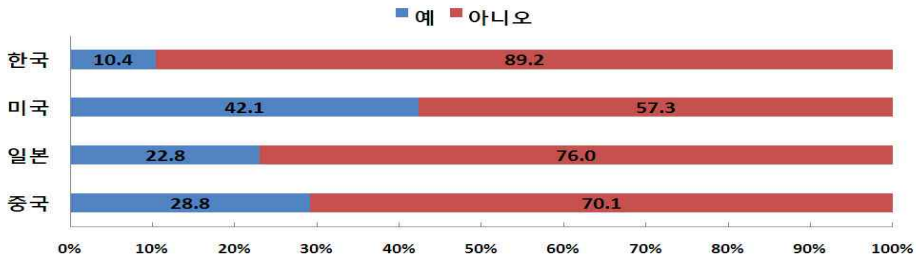
<표 II-34> 최근 일주일간 손 씻은 정도(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구분		전체(빈도)	전혀 안 씻었다	가끔 씻었다	대부분 씻었다	매번 씻었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7	16.9	25.8	53.8	0.6
	여 자	100(1,929)	2.2	16.2	27.2	54.0	0.4
	전 체	100(3,933)	2.5	16.6	26.5	53.9	0.5
미 국	남 자	100(455)	22.6	36.5	21.5	17.4	2.0
	여 자	100(550)	17.3	33.6	25.1	22.5	1.5
	전 체	100(1,005)	19.7	34.9	23.5	20.2	1.7
일 본	남 자	100(597)	10.2	13.7	16.4	59.0	0.7
	여 자	100(515)	5.6	15.0	19.8	59.0	0.6
	전 체	100(1,112)	8.1	14.3	18.0	59.0	0.6
중 국	남 자	100(568)	3.9	20.6	32.9	42.3	0.4
	여 자	100(604)	4.1	14.4	28.6	52.6	0.2
	전 체	100(1,172)	4.0	17.4	30.7	47.6	0.3

2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수혜 여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42.1%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4%로 가장 적었음

-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42.1%로 가장 많았고, 중국(28.8%), 일본(22.8%), 한국(10.4%)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36]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수혜 여부

<표 II-35>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 수혜 여부

구분		전체(빈도)	예	아니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1.7	87.7	0.5
	여 자	100(1,929)	9.0	90.8	0.3
	전 체	100(3,933)	10.4	89.2	0.4
미국	남 자	100(455)	44.6	54.9	0.4
	여 자	100(550)	40.0	59.3	0.7
	전 체	100(1,005)	42.1	57.3	0.6
일본	남 자	100(597)	27.8	71.5	0.7
	여 자	100(515)	16.9	81.2	1.9
	전 체	100(1,112)	22.8	76.0	1.3
중국	남 자	100(568)	30.1	68.1	1.8
	여 자	100(604)	27.6	71.9	0.5
	전 체	100(1,172)	28.8	7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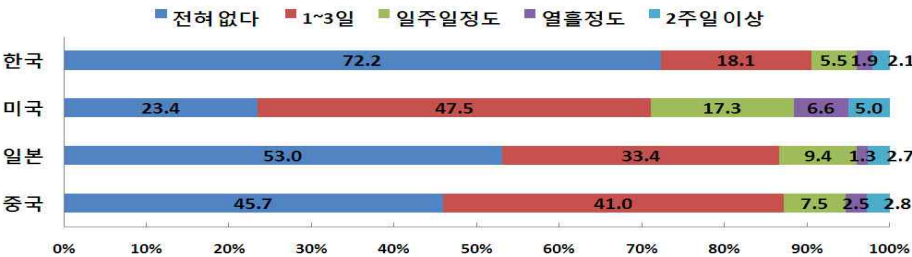
8) 활동제한

22. 최근 1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일수

최근 1년 동안 질병이나 다쳐서 ‘일주일 이상’ 결석한 비율은 미국이 28.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9.5%로 가장 적었음

○ 최근 1년 동안 질병이나 다쳐서 ‘일주일 이상’ 결석한 비율은 미국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일본(13.4%), 중국(12.8%), 한국(9.5%)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최근 1년 동안 질병이나 다쳐서 ‘일주일 이상’ 결석한 비율은 한국, 일본, 중국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았고, 미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37] 최근 1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일수

<표 II-36> 최근 1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일수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1~3일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2주일 이상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72.4	17.2	6.1	2.0	2.0	0.3
	여 자	100(1,929)	72.1	19.1	4.8	1.7	2.2	0.2
	전 체	100(3,933)	72.2	18.1	5.5	1.9	2.1	0.2
미 국	남 자	100(455)	25.9	47.0	17.6	5.1	4.4	0.0
	여 자	100(550)	21.3	47.8	17.1	7.8	5.5	0.5
	전 체	100(1,005)	23.4	47.5	17.3	6.6	5.0	0.3
일 본	남 자	100(597)	51.1	34.2	10.6	1.7	2.2	0.3
	여 자	100(515)	55.1	32.4	8.0	1.0	3.3	0.2
	전 체	100(1,112)	53.0	33.4	9.4	1.3	2.7	0.3
중 국	남 자	100(568)	47.4	36.6	9.0	3.7	2.8	0.5
	여 자	100(604)	44.2	45.0	6.1	1.3	2.8	0.5
	전 체	100(1,172)	45.7	41.0	7.5	2.5	2.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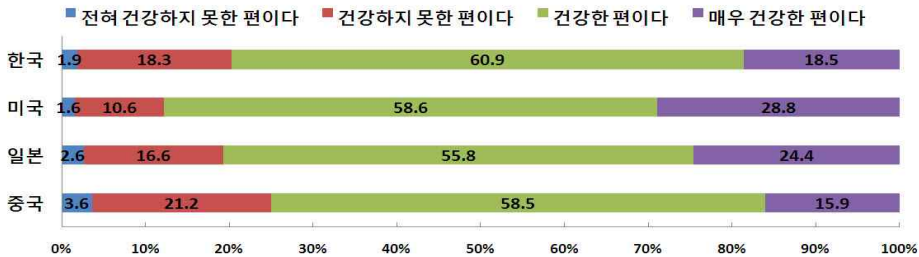
9) 기타

23.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

자신의 건강상태에 ‘매우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28.8%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5.9%로 가장 적었음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한 편이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87.4%로 가장 많았고, 일본(80.2%), 한국(79.4%), 중국(74.4%)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한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고, 일본과 중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38]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

<표 II-37>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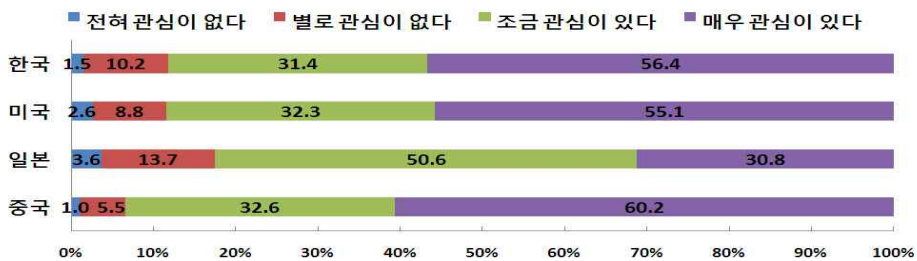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한 편이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2	16.8	60.4	20.2	0.5
	여 자	100(1,929)	1.7	19.8	61.5	16.7	0.3
	전 체	100(3,933)	1.9	18.3	60.9	18.5	0.4
미국	남 자	100(455)	1.1	7.5	51.6	39.3	0.4
	여 자	100(550)	2.0	13.3	64.4	20.0	0.4
	전 체	100(1,005)	1.6	10.6	58.6	28.8	0.4
일본	남 자	100(597)	3.2	17.6	53.1	25.5	0.7
	여 자	100(515)	1.9	15.5	59.0	23.1	0.4
	전 체	100(1,112)	2.6	16.6	55.8	24.4	0.5
중국	남 자	100(568)	4.6	20.8	55.1	18.5	1.1
	여 자	100(604)	2.6	21.7	61.8	13.4	0.5
	전 체	100(1,172)	3.6	21.2	58.5	15.9	0.8

24-1.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60.2%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0.8%로 가장 적었음

○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다’와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92.8%로 가장 많았고, 한국(87.8%), 미국(87.4%), 일본(81.4%)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다’와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개국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II-39]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

<표 II-38>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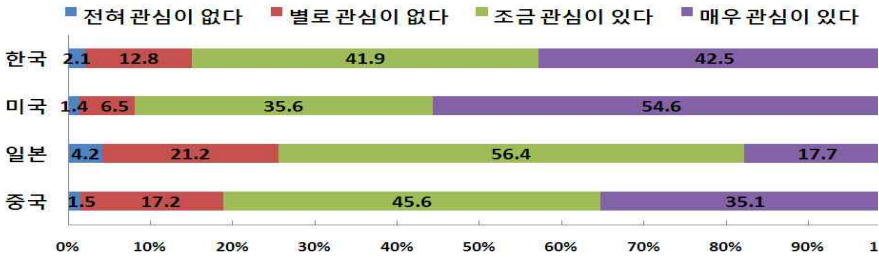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1	9.5	32.6	55.4	0.3
	여 자	100(1,929)	0.8	10.9	30.2	57.5	0.6
	전 체	100(3,933)	1.5	10.2	31.4	56.4	0.5
미국	남 자	100(455)	2.2	7.9	31.4	56.5	2.0
	여 자	100(550)	2.9	9.5	33.1	54.0	0.5
	전 체	100(1,005)	2.6	8.8	32.3	55.1	1.2
일본	남 자	100(597)	3.7	11.9	51.4	32.0	1.0
	여 자	100(515)	3.5	15.7	49.7	29.5	1.6
	전 체	100(1,112)	3.6	13.7	50.6	30.8	1.3
중국	남 자	100(568)	1.1	5.8	34.9	57.6	0.7
	여 자	100(604)	1.0	5.3	30.5	62.7	0.5
	전 체	100(1,172)	1.0	5.5	32.6	60.2	0.6

24-2.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54.6%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7.7%로 가장 적었음

○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다’와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90.2%로 가장 많았고, 한국(84.4%), 중국(80.7%), 일본(74.1%) 순이었다.

○ 성별 분석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다’와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개국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II-40]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

<표 II-39>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관심정도

구분		전체(빈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8	12.3	42.9	41.5	0.6
	여 자	100(1,929)	1.3	13.4	41.0	43.5	0.8
	전 체	100(3,933)	2.1	12.8	41.9	42.5	0.7
미국	남 자	100(455)	1.3	6.8	34.3	54.9	2.6
	여 자	100(550)	1.5	6.2	36.7	54.4	1.3
	전 체	100(1,005)	1.4	6.5	35.6	54.6	1.9
일본	남 자	100(597)	4.9	20.1	54.3	20.3	0.5
	여 자	100(515)	3.5	22.5	58.8	14.8	0.4
	전 체	100(1,112)	4.2	21.2	56.4	17.7	0.4
중국	남 자	100(568)	2.5	17.4	42.4	37.0	0.7
	여 자	100(604)	0.5	17.1	48.7	33.3	0.5
	전 체	100(1,172)	1.5	17.2	45.6	35.1	0.6

2. 심리건강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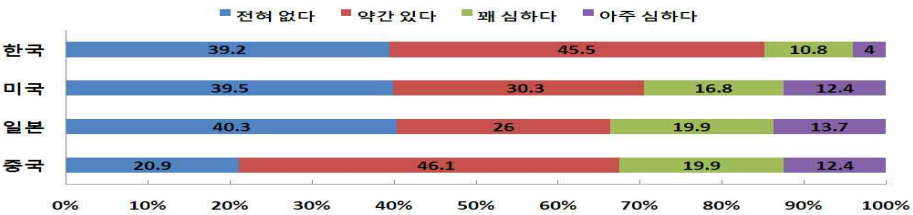
1) 개인 내적 영역-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

25-1. 우울감 - 외롭다

일본의 긍정 응답률이 33.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15.2%로 가장 낮았음

○ ‘외롭다’는 물음에 대해 한국의 경우 꽤 심하다 이상의 긍정 응답 비율이 15.2%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29.2%, 중국은 32.3%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모두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남학생들보다 높았고, 중국의 경우는 남학생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1] 외롭다

<표 II-40> 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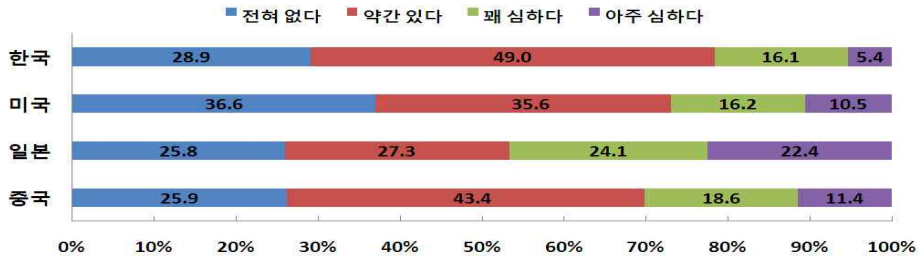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9.6	39.3	7.0	3.4	0.7
	여 자	100(1,929)	28.4	51.9	14.7	4.6	0.5
	전 체	100(3,933)	39.2	45.5	10.8	4.0	0.6
미국	남 자	100(455)	45.5	30.8	14.1	8.8	0.9
	여 자	100(550)	34.2	30.2	19.3	15.3	1.1
	전 체	100(1,005)	39.5	30.3	16.8	12.4	1.1
일본	남 자	100(597)	48.6	25.0	16.6	9.7	0.2
	여 자	100(515)	30.7	27.0	23.9	18.3	0.2
	전 체	100(1,112)	40.3	26.0	19.9	13.7	0.2
중국	남 자	100(568)	19.7	41.0	23.2	15.5	0.5
	여 자	100(604)	21.7	51.2	16.9	9.6	0.7
	전 체	100(1,172)	20.9	46.1	19.9	12.4	0.7

25-2. 우울감 - 기분이 울적하다

일본의 긍정 응답률이 46.5%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21.5%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기분이 울적하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21.5%로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26.7% 이었으며, 중국은 30%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46.5%로 가장 높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모두 남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여학생들보다 낮았으나, 중국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긍정 응답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2] 기분이 울적하다

<표 II-41> 기분이 울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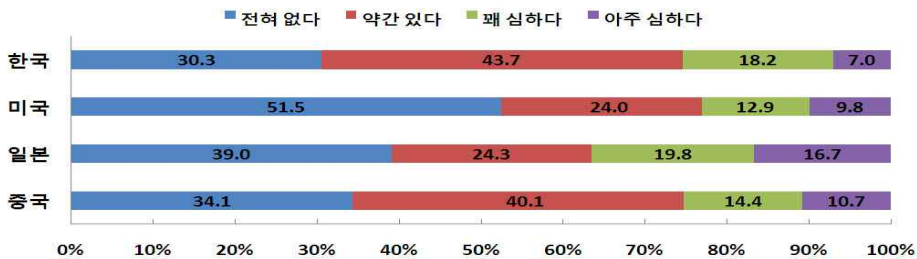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1.0	43.9	10.9	3.4	0.7
	여 자	100(1,929)	16.4	54.4	21.5	7.4	0.4
	전 체	100(3,933)	28.9	49.0	16.1	5.4	0.6
미국	남 자	100(455)	42.2	38.0	12.1	6.8	0.9
	여 자	100(550)	31.8	33.8	19.8	13.5	1.1
	전 체	100(1,005)	36.6	35.6	16.2	10.5	1.1
일본	남 자	100(597)	31.7	27.3	21.8	18.9	0.3
	여 자	100(515)	19.0	27.4	26.6	26.4	0.6
	전 체	100(1,112)	25.8	27.3	24.1	22.4	0.4
중국	남 자	100(568)	25.5	42.1	20.1	12.0	0.4
	여 자	100(604)	26.2	44.9	17.2	10.9	0.8
	전 체	100(1,172)	25.9	43.4	18.6	11.4	0.7

25-3. 우울감 - 허무한 느낌이 든다

일본의 긍정 응답률이 36.5%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22.7%로 가장 낮았음

○ ‘허무한 느낌이 든다’라는 물음에 대해 일본의 긍정 응답 비율이 36.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한국이 25.2%, 중국은 25.1%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22.7%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모두 남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여학생들보다 낮았으나, 중국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꽤 심하다’ 이상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3] 허무한 느낌이 든다

<표 II-42> 허무한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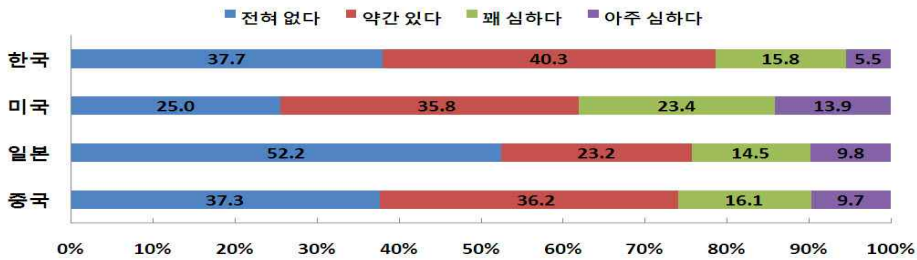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6.7	42.7	14.6	5.3	0.7
	여 자	100(1,929)	23.6	44.8	22.0	8.8	0.8
	전 체	100(3,933)	30.3	43.7	18.2	7.0	0.7
미국	남 자	100(455)	54.9	25.7	10.8	7.0	1.5
	여 자	100(550)	48.9	22.7	14.7	12.0	1.6
	전 체	100(1,005)	51.5	24.0	12.9	9.8	1.8
일본	남 자	100(597)	41.0	25.5	17.6	15.7	0.2
	여 자	100(515)	36.7	22.9	22.3	17.9	0.2
	전 체	100(1,112)	39.0	24.3	19.8	16.7	0.2
중국	남 자	100(568)	32.9	37.1	17.4	12.1	0.4
	여 자	100(604)	35.3	42.9	11.6	9.4	0.8
	전 체	100(1,172)	34.1	40.1	14.4	10.7	0.7

25-4. 불안감 -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미국이 37.3%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21.3%로 가장 낮았음

○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 비율이 37.3%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국이 25.8%, 일본은 24.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1.3%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두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표 II-43>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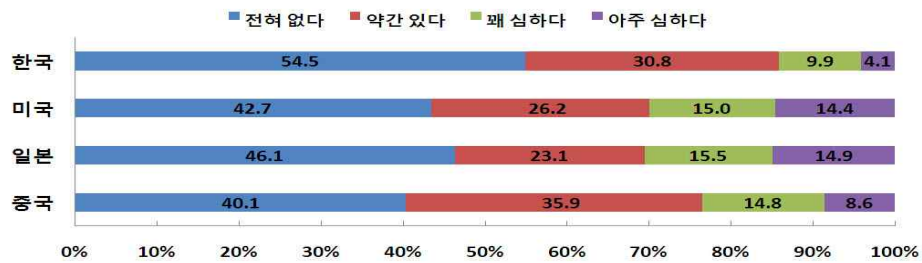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5.9	37.3	12.3	3.7	0.8
	여 자	100(1,929)	29.2	43.4	19.4	7.3	0.6
	전 체	100(3,933)	37.7	40.3	15.8	5.5	0.7
미국	남 자	100(455)	30.8	37.8	20.9	9.5	1.1
	여 자	100(550)	20.4	34.4	25.8	17.5	2.0
	전 체	100(1,005)	25.0	35.8	23.4	13.9	1.8
일본	남 자	100(597)	60.0	20.3	11.4	8.0	0.3
	여 자	100(515)	43.3	26.6	18.1	11.8	0.2
	전 체	100(1,112)	52.2	23.2	14.5	9.8	0.4
중국	남 자	100(568)	42.4	34.0	14.8	8.1	0.7
	여 자	100(604)	32.6	38.2	17.4	11.3	0.5
	전 체	100(1,172)	37.3	36.2	16.1	9.7	0.7

25-5. 불안감 -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일본이 30.4%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14.0%로 가장 낮았음

○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라는 물음에 대해 일본의 긍정 응답 비율이 30.4%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미국이 29.4%, 중국은 23.4%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14.0%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두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5]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표 II-44>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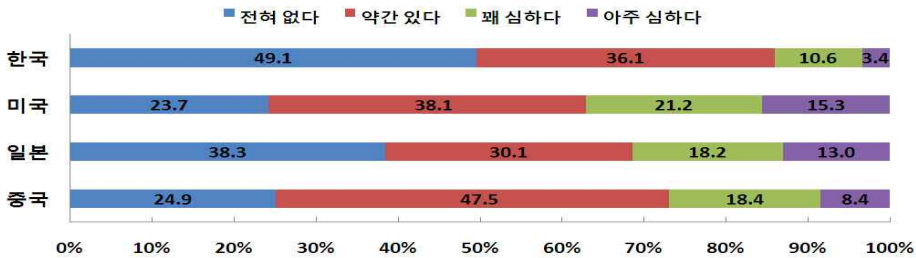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4.2	25.4	7.0	2.6	0.7
	여 자	100(1,929)	44.5	36.3	13.0	5.7	0.5
	전 체	100(3,933)	54.5	30.8	9.9	4.1	0.6
미국	남 자	100(455)	50.8	25.7	11.2	10.8	1.5
	여 자	100(550)	36.5	26.5	18.2	17.5	1.3
	전 체	100(1,005)	42.7	26.2	15.0	14.4	1.6
일본	남 자	100(597)	54.6	20.4	13.1	11.6	0.3
	여 자	100(515)	36.3	26.2	18.4	18.8	0.2
	전 체	100(1,112)	46.1	23.1	15.5	14.9	0.4
중국	남 자	100(568)	46.7	32.2	12.9	7.6	0.7
	여 자	100(604)	33.9	39.4	16.6	9.6	0.5
	전 체	100(1,172)	40.1	35.9	14.8	8.6	0.7

25-6. 불안감 - 긴장이 된다

미국이 36.5%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14.0%로 가장 낮았음

○ ‘긴장이 된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 비율이 36.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이 31.2%, 중국은 26.8%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14.0%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두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6] 긴장이 된다

<표 II-45> 긴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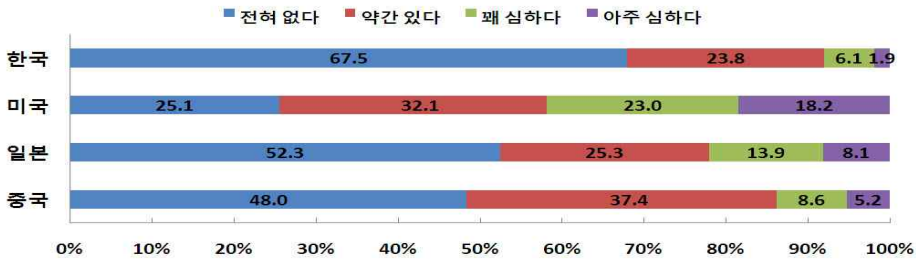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53.9	33.7	8.9	2.7	0.8
	여 자	100(1,929)	44.2	38.7	12.3	4.1	0.7
	전 체	100(3,933)	49.1	36.1	10.6	3.4	0.7
미국	남 자	100(455)	27.0	41.1	19.3	11.2	1.3
	여 자	100(550)	21.3	35.6	22.7	18.7	1.6
	전 체	100(1,005)	23.7	38.1	21.2	15.3	1.7
일본	남 자	100(597)	41.4	28.0	19.6	10.9	0.2
	여 자	100(515)	34.8	32.6	16.7	15.5	0.4
	전 체	100(1,112)	38.3	30.1	18.2	13.0	0.4
중국	남 자	100(568)	27.3	45.8	18.5	7.7	0.7
	여 자	100(604)	22.5	49.3	18.4	9.1	0.7
	전 체	100(1,172)	24.9	47.5	18.4	8.4	0.8

25-7. 불안감 -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미국이 41.2%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8.0%로 가장 낮았음

○ ‘심장이 마구 뛴다’라는 물음에 대해 ‘꽤 심하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미국의 경우 41.2%로 나타나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이 22.0%, 중국은 13.8%로 나타났다. 한국은 8.0%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두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7]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표 II-46>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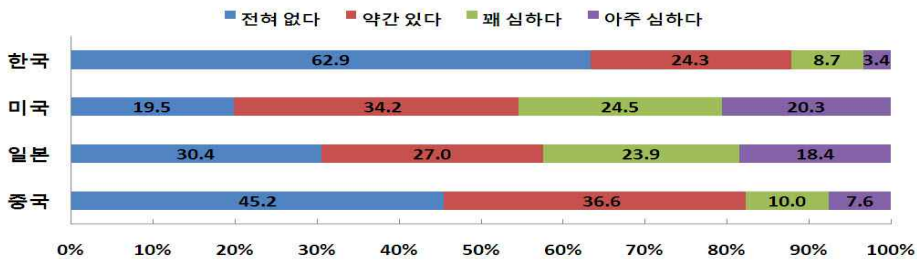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72.3	20.7	4.4	1.7	0.9
	여 자	100(1,929)	62.5	27.1	7.8	2.1	0.5
	전 체	100(3,933)	67.5	23.8	6.1	1.9	0.7
미국	남 자	100(455)	27.3	34.5	22.4	14.1	1.8
	여 자	100(550)	23.6	30.4	23.5	21.6	0.9
	전 체	100(1,005)	25.1	32.1	23.0	18.2	1.5
일본	남 자	100(597)	55.8	23.3	13.4	7.2	0.3
	여 자	100(515)	48.3	27.8	14.6	9.1	0.2
	전 체	100(1,112)	52.3	25.3	13.9	8.1	0.4
중국	남 자	100(568)	51.6	34.5	7.4	5.5	1.1
	여 자	100(604)	44.4	40.4	9.8	5.0	0.5
	전 체	100(1,172)	48.0	37.4	8.6	5.2	0.9

25-8. 적대감 -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민다

미국이 44.8%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12.1%로 가장 낮았음

○ ‘울화가 치민다’라는 물음에 대해 ‘꽤 심하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미국의 경우 44.8%로 나타나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이 42.3%, 중국은 17.6%로 나타났다. 한국은 12.1%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았으며, 중국은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8]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민다

<표 II-47>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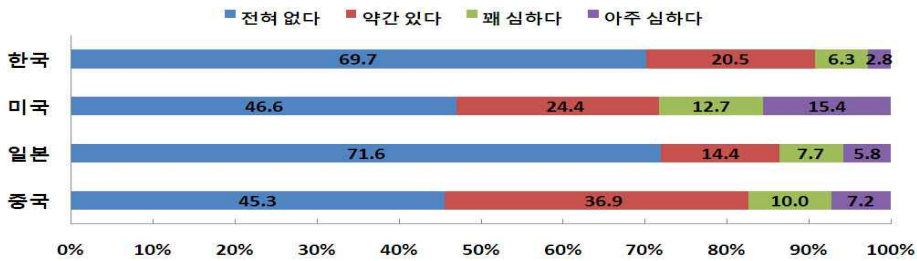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8.1	21.5	6.7	2.7	0.9
	여 자	100(1,929)	57.4	27.3	10.8	4.1	0.4
	전 체	100(3,933)	62.9	24.3	8.7	3.4	0.7
미국	남 자	100(455)	27.0	36.5	21.5	13.6	1.3
	여 자	100(550)	13.5	32.7	26.7	25.8	1.3
	전 체	100(1,005)	19.5	34.2	24.5	20.3	1.5
일본	남 자	100(597)	38.0	27.3	20.3	14.2	0.2
	여 자	100(515)	21.6	26.8	28.2	23.3	0.2
	전 체	100(1,112)	30.4	27.0	23.9	18.4	0.3
중국	남 자	100(568)	46.5	34.5	10.2	8.3	0.5
	여 자	100(604)	44.0	38.6	9.9	7.0	0.5
	전 체	100(1,172)	45.2	36.6	10.0	7.6	0.6

25-9. 적대감 -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미국이 28.1%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9.1%로 가장 낮았음

○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는 물음에 대해 ‘꽤 심하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미국의 경우 28.1%로 나타나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국이 17.2%, 일본은 13.5%로 나타났다. 한국은 9.1%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9]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표 II-48>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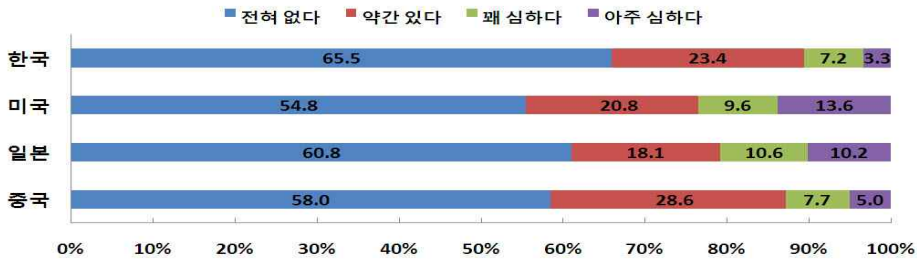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8.1	21.8	6.3	2.9	0.8
	여 자	100(1,929)	71.3	19.2	6.3	2.7	0.4
	전 체	100(3,933)	69.7	20.5	6.3	2.8	0.6
미국	남 자	100(455)	42.2	26.6	16.3	14.3	0.7
	여 자	100(550)	50.5	22.7	9.6	16.4	0.7
	전 체	100(1,005)	46.6	24.4	12.7	15.4	0.9
일본	남 자	100(597)	70.0	14.7	7.2	7.5	0.5
	여 자	100(515)	73.6	14.0	8.3	3.9	0.2
	전 체	100(1,112)	71.6	14.4	7.7	5.8	0.4
중국	남 자	100(568)	41.4	37.3	12.9	8.1	0.4
	여 자	100(604)	48.8	36.8	7.5	6.5	0.5
	전 체	100(1,172)	45.3	36.9	10.0	7.2	0.5

25-10. 적대감 -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미국이 23.2%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10.5%로 가장 낮았음

○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는 물음에 대해 ‘꽤 심하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미국의 경우 23.2%로 나타나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이 20.8%, 중국은 12.7%로 나타났다. 한국은 10.5%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미국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았으며, 한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II-50]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표 II-49>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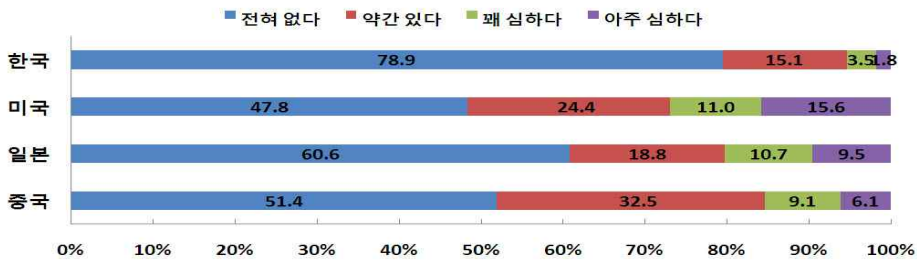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6.3	22.7	6.9	3.3	0.8
	여 자	100(1,929)	64.7	24.1	7.5	3.3	0.4
	전 체	100(3,933)	65.5	23.4	7.2	3.3	0.6
미국	남 자	100(455)	51.0	22.4	12.7	12.7	1.1
	여 자	100(550)	58.2	19.5	7.1	14.4	0.9
	전 체	100(1,005)	54.8	20.8	9.6	13.6	1.2
일본	남 자	100(597)	62.5	16.1	10.7	10.6	0.2
	여 자	100(515)	59	20.4	10.5	9.7	0.4
	전 체	100(1,112)	60.8	18.1	10.6	10.2	0.4
중국	남 자	100(568)	62.1	23.4	9.0	4.8	0.7
	여 자	100(604)	54.0	33.6	6.6	5.3	0.5
	전 체	100(1,172)	58.0	28.6	7.7	5.0	0.7

25-11. 적대감 -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미국이 26.6%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국이 5.3%로 가장 낮았음

○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라는 물음에 대해 ‘꽤 심하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미국의 경우 26.6%로 나타나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이 20.5%, 중국은 15.2%로 나타났다. 한국은 5.3%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1]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표 II-50>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매우 심하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82.1	12.7	2.6	1.7	0.9
	여 자	100(1,929)	75.6	17.5	4.5	2.0	0.5
	전 체	100(3,933)	78.9	15.1	3.5	1.8	0.7
미국	남 자	100(455)	49.2	26.2	10.1	13.4	1.1
	여 자	100(550)	46.7	23.3	11.6	17.5	0.9
	전 체	100(1,005)	47.8	24.4	11.0	15.6	1.2
일본	남 자	100(597)	63.8	17.1	9.2	9.4	0.5
	여 자	100(515)	56.9	20.8	12.4	9.7	0.2
	전 체	100(1,112)	60.6	18.8	10.7	9.5	0.4
중국	남 자	100(568)	57.0	27.1	9.2	6.0	0.7
	여 자	100(604)	46.2	37.7	9.1	6.1	0.8
	전 체	100(1,172)	51.4	32.5	9.1	6.1	0.9

■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등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우울, 불안, 적대감 및 모든 요인을 합산한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도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 국가별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및 부적응적 요인 전체 등 모든 요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예컨대 우울감의 경우 일본이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불안감과 적대감, 부적응적 요인 전체에서 미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 -51>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구분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부적응적 요인(전체)		
	M (SD)	t	F	M (SD)	t	F	M (SD)	t	F	M (SD)	t	F
한국	남자 (n=2,004)	1.76 (0.69)	-15.35 ***	1.54 (0.63)	-11.36 ***		1.39 (0.59)	-3.35 **		1.55 (0.52)	-11.46 ***	
	여자 (n=1,929)	2.11 (0.71)		1.78 (0.69)			1.46 (0.63)			1.75 (0.57)		
	전체 (n=3,933)	1.93 (0.72)		1.65 (0.66)			1.43 (0.61)			1.65 (0.56)		
미국	남자 (n=455)	1.80 (0.83)	-4.88 ***	2.08 (0.77)	-5.45 ***	192.50 ***	2.00 (0.86)	-1.52		1.97 (0.66)	-4.61 ***	183.02 ***
	여자 (n=550)	2.07 (0.93)		2.35 (0.84)			2.09 (0.92)			2.18 (0.72)		
	전체 (n=1,005)	1.94 (0.90)		2.22 (0.81)			2.05 (0.89)			2.09 (0.70)		
일본	남자 (n=597)	2.08 (0.93)	-5.16 ***	1.80 (0.78)	-4.83 ***	(ab, ac, ad, bc, bd)	1.74 (0.83)	-2.30 *	(ab, ac, ad, bc, bd)	1.86 (0.72)	-4.71 ***	(ab, ac, ad, bc, bd)
	여자 (n=515)	2.37 (0.96)		2.04 (0.85)			1.85 (0.80)			2.06 (0.74)		
	전체 (n=1,112)	2.21 (0.96)		1.91 (0.83)			1.79 (0.82)			1.95 (0.74)		
중국	남자 (n=568)	2.21 (0.84)	2.81 **	1.86 (0.70)	-3.38 **		1.72 (0.75)	-0.02		1.91 (0.65)	-0.27	
	여자 (n=604)	2.08 (0.77)		2.20 (0.71)			1.72 (0.72)			1.92 (0.62)		
	전체 (n=1,172)	2.14 (0.81)		1.93 (0.70)			1.72 (0.74)			1.91 (0.63)		
전체	M(SD)	2.01(0.81)		1.82(0.74)			1.62(0.75)			1.80(0.64)		

주1. * $p<.05$, ** $p<.01$, *** $p<.001$, 주2. a=한국, b=미국, c=일본, d=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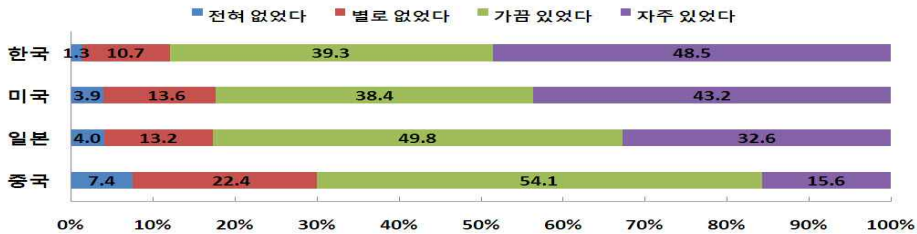
2) 개인 내적 영역 - 스트레스

26. 스트레스 빈도 -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느꼈던 빈도

한국의 긍정 응답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69.7%로 가장 낮았음

○ 국가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도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한국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87.8%로 4개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자주 있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이 82.4%, 미국이 81.6%였으며, 중국은 69.7%로 가장 낮았다.

○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2]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표 II-52>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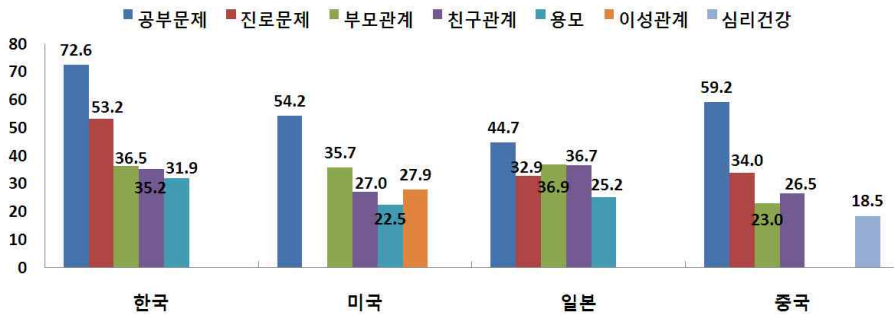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7	15.2	44.3	38.5	0.2
	여 자	100(1,929)	0.8	6.0	34.1	58.8	0.3
	전 체	100(3,933)	1.3	10.7	39.3	48.5	0.3
미국	남 자	100(455)	5.3	18.7	42.4	32.5	1.1
	여 자	100(550)	2.5	9.5	35.3	52.2	0.5
	전 체	100(1,005)	3.9	13.6	38.4	43.2	1.0
일본	남 자	100(597)	4.4	16.4	52.3	26.6	0.3
	여 자	100(515)	3.5	9.5	47.0	39.6	0.4
	전 체	100(1,112)	4.0	13.2	49.8	32.6	0.4
중국	남 자	100(568)	9.7	27.1	48.8	13.9	0.5
	여 자	100(604)	5.0	18.0	59.3	17.2	0.5
	전 체	100(1,172)	7.4	22.4	54.1	15.6	0.5

27. 스트레스 원인 -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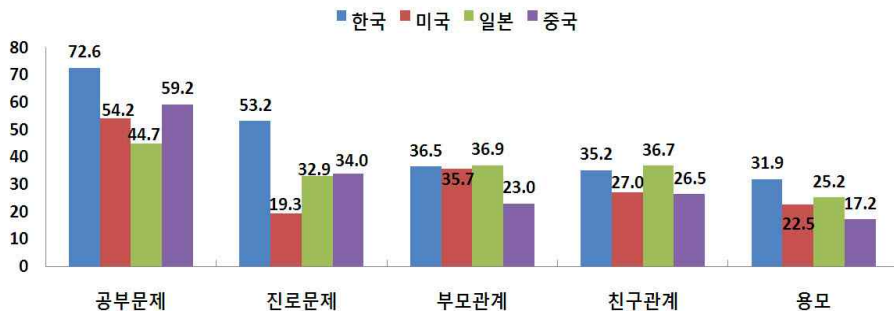
국가별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공부문제’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72.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았음

○ 국가별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한국은 공부, 진로, 부모, 친구, 용모 순이었으며, 다른 나라의 순위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한국과 대체로 비슷한 요인들이 5순위 내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성과의 관계가 3순위였으며, 중국은 심리건강이 5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4개국 전체 응답을 합한 결과에서는 공부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로, 부모관계, 친구관계, 용모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3] 국가별 주요 스트레스 원인



[그림 II-54] 주요 스트레스 원인별 국가 간 비교

<표 II-53>

구분		전체(빈도)	부모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용모	신체 건강	심리 건강	금전 문제	친구 관계
한 국	남 자	100(2,004)	35.0	14.8	22.6	9.6	9.6	8.9	28.9
	여 자	100(1,929)	38.0	21.3	41.6	12.9	19.1	15.1	41.7
	전 체	100(3,933)	36.5	18.0	31.9	11.2	14.3	12.0	35.2
미 국	남 자	100(455)	27.5	16.3	12.5	6.8	7.5	19.3	24.0
	여 자	100(550)	42.9	20.0	30.9	12.9	12.0	25.3	29.8
	전 체	100(1,005)	35.7	18.2	22.5	10.1	9.9	22.5	27.0
일 본	남 자	100(597)	32.5	14.1	16.1	7.9	15.1	18.8	26.3
	여 자	100(515)	42.1	22.1	35.7	9.5	22.5	18.8	48.9
	전 체	100(1,112)	36.9	17.8	25.2	8.6	18.5	18.8	36.7
중 국	남 자	100(568)	19.4	3.7	13.2	13.2	17.6	14.6	20.4
	여 자	100(604)	26.5	4.3	21.0	12.7	17.7	15.2	32.5
	전 체	100(1,172)	23.0	4.1	17.2	12.9	17.6	14.9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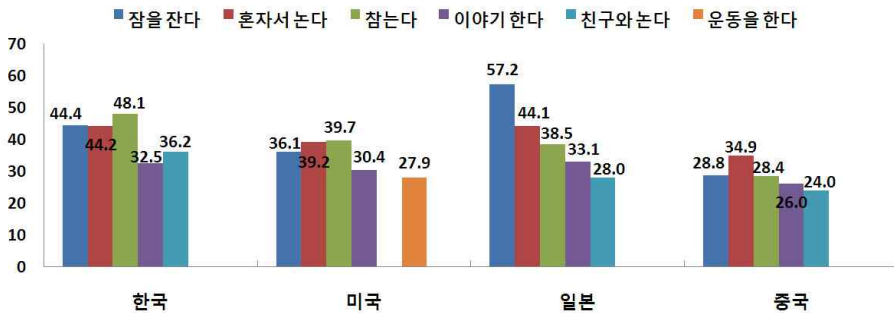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이성 관계	선후배 관계	교사 관계	진로 문제	공부 문제	기타
한 국	남 자	100(2,004)	16.2	2.6	8.1	44.6	66.6	2.8
	여 자	100(1,929)	15.6	4.0	9.7	62.2	78.9	1.5
	전 체	100(3,933)	15.9	3.3	8.9	53.2	72.6	2.1
미 국	남 자	100(455)	26.4	3.1	4.8	15.6	49.2	19.8
	여 자	100(550)	29.5	4.4	6.7	22.5	58.7	20.5
	전 체	100(1,005)	27.9	3.8	5.8	19.3	54.2	20.2
일 본	남 자	100(597)	10.7	9.2	9.7	29.8	47.7	8.2
	여 자	100(515)	10.5	14.6	8.9	36.5	41.4	10.3
	전 체	100(1,112)	10.6	11.7	9.3	32.9	44.7	9.2
중 국	남 자	100(568)	17.1	5.3	12.5	31.2	52.3	4.4
	여 자	100(604)	13.2	4.3	10.4	36.8	65.9	3.8
	전 체	100(1,172)	15.1	4.1	11.4	34.0	59.2	4.1

28. 스트레스 해소 방법 - 스트레스를 주로 어떻게 푸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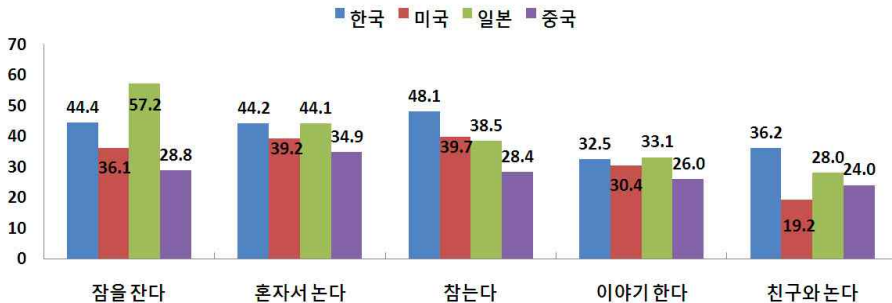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은 ‘참는다’가 각각 48.1%, 39.7%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잠을 잔다’가 57.2%, 중국은 ‘혼자서 논다’가 34.9% 가장 높았음**

○ 국가별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한국은 참는다, 잠을 잔다, 혼자서 논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참는다, 혼자서 논다, 잠을 잔다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잠을 잔다, 혼자서 논다, 참는다 순이었으며, 중국은 혼자서 논다, 참는다, 잠을 잔다 순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4개국 전체 응답을 합한 결과에서는 잠을 잔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혼자서 논다, 참는다, 이야기 한다, 친구와 논다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5] 나라별 주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차이



[그림 II-56]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따른 국가 간 차이

<표 II-54> 스트레스 해소 방법

구분		전체(빈도)	참는다	잠을 잔다	운동을 한다	친구와 논다	혼자서 논다	화풀이 한다
한 국	남 자	100(2,004)	45.1	33.9	30.4	35.7	44.1	6.3
	여 자	100(1,929)	51.3	55.3	7.6	36.7	44.3	13.6
	전 체	100(3,933)	48.1	44.4	19.2	36.2	44.2	9.9
미 국	남 자	100(455)	40.2	31.0	28.8	24.4	42.6	4.6
	여 자	100(550)	39.6	40.7	22.7	15.1	36.4	13.1
	전 체	100(1,005)	39.7	36.1	25.3	19.2	39.2	9.2
일 본	남 자	100(597)	33.7	56.3	28.0	25.3	45.1	10.6
	여 자	100(515)	44.1	58.4	15.9	31.3	43.1	11.7
	전 체	100(1,112)	38.5	57.2	22.4	28.0	44.1	11.1
중 국	남 자	100(568)	26.6	24.1	26.8	24.3	33.5	6.3
	여 자	100(604)	30.1	33.3	16.2	23.7	36.3	12.1
	전 체	100(1,172)	28.4	28.8	21.3	24.0	34.9	9.3

구분		전체(빈도)	이야기 한다	먹는다	담배를 핀다	술을 마신다	아무것도 안함	기타
한 국	남 자	100(2,004)	20.6	14.8	13.0	7.9	11.5	1.2
	여 자	100(1,929)	44.9	39.0	4.1	5.4	18.0	3.6
	전 체	100(3,933)	32.5	26.7	8.7	6.7	14.7	2.4
미 국	남 자	100(455)	22.0	17.1	9.7	5.7	17.6	9.7
	여 자	100(550)	37.6	28.7	8.5	6.7	14.2	18.0
	전 체	100(1,005)	30.4	23.3	9.0	6.2	15.6	14.2
일 본	남 자	100(597)	20.3	12.1	1.5	2.7	11.4	4.4
	여 자	100(515)	48.0	25.2	0.2	3.9	10.7	5.4
	전 체	100(1,112)	33.1	18.1	0.9	3.2	11.1	4.9
중 국	남 자	100(568)	19.2	9.7	13.0	11.8	12.0	4.4
	여 자	100(604)	32.6	29.8	3.0	5.3	18.2	4.6
	전 체	100(1,172)	26.0	20.2	7.8	8.4	15.1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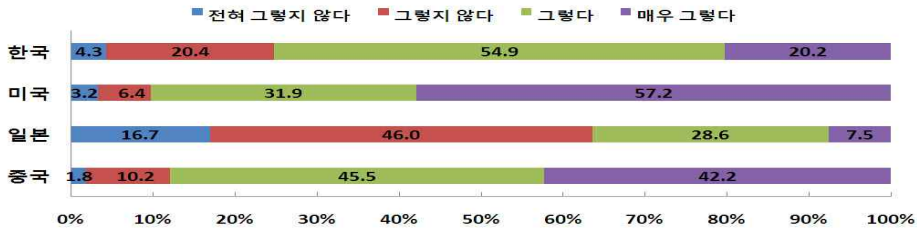
3) 개인 내적 영역-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

29-1. 자존감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9.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36.1%로 가장 낮았음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 비율이 89.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국은 87.7%, 한국은 75.1%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36.1%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중국의 경우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표 II-55>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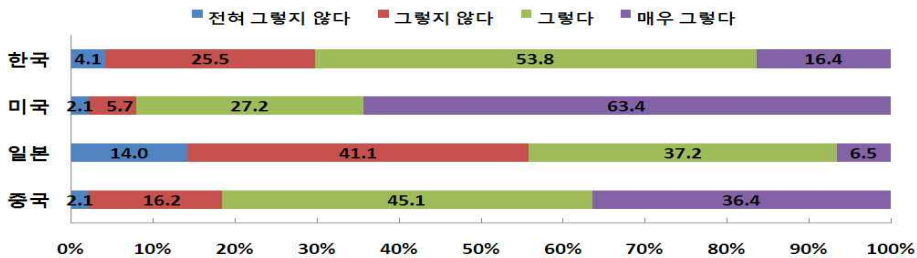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5.0	20.0	54.9	19.9	0.1
	여 자	100(1,929)	3.5	20.9	54.8	20.6	0.2
	전 체	100(3,933)	4.3	20.4	54.9	20.2	0.2
미국	남 자	100(455)	2.9	5.1	31.2	59.8	1.1
	여 자	100(550)	3.5	7.6	32.9	55.3	0.7
	전 체	100(1,005)	3.2	6.4	31.9	57.2	1.3
일본	남 자	100(597)	13.1	41.4	32.3	11.7	1.5
	여 자	100(515)	21.0	51.5	24.3	2.5	0.8
	전 체	100(1,112)	16.7	46.0	28.6	7.5	1.3
중국	남 자	100(568)	2.6	8.3	45.4	43.3	0.4
	여 자	100(604)	1.0	12.1	45.7	41.1	0.2
	전 체	100(1,172)	1.8	10.2	45.5	42.2	0.3

29-2. 자존감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90.6%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43.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70.2%로 나타났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90.6%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81.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일본은 43.7%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중국의 경우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8]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표 II-56>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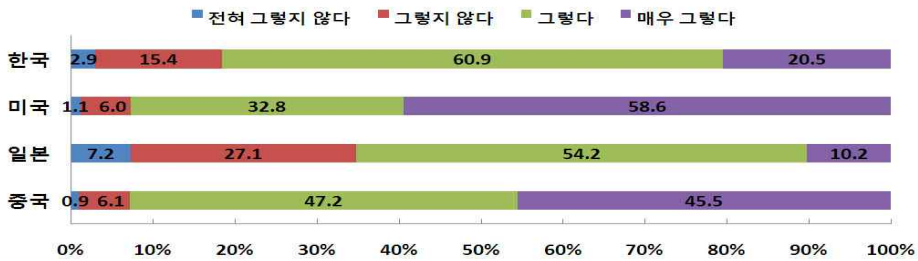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5	23.2	53.5	18.6	0.1
	여 자	100(1,929)	3.7	27.9	54.1	14.1	0.2
	전 체	100(3,933)	4.1	25.5	53.8	16.4	0.2
미 국	남 자	100(455)	2.4	5.7	24.8	65.5	1.5
	여 자	100(550)	1.8	5.8	29.5	62.0	0.9
	전 체	100(1,005)	2.1	5.7	27.2	63.4	1.6
일 본	남 자	100(597)	12.1	36.2	40.7	9.7	1.3
	여 자	100(515)	16.3	46.8	33.2	2.7	1.0
	전 체	100(1,112)	14.0	41.1	37.2	6.5	1.3
중 국	남 자	100(568)	2.3	15.7	43.1	38.7	0.2
	여 자	100(604)	2.0	16.6	47.0	34.3	0.2
	전 체	100(1,172)	2.1	16.2	45.1	36.4	0.3

29-3. 자존감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92.7%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64.4%로 가장 낮았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81.4%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92.7%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91.4%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일본은 64.4%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모든 나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9]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표 II-57>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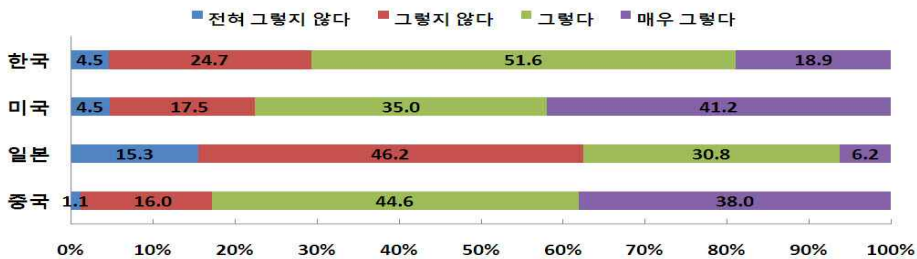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4	15.4	60.1	20.9	0.2
	여 자	100(1,929)	2.5	15.4	61.7	20.1	0.3
	전 체	100(3,933)	2.9	15.4	60.9	20.5	0.2
미국	남 자	100(455)	1.5	6.4	29.5	61.3	1.3
	여 자	100(550)	0.7	5.8	35.8	56.7	0.9
	전 체	100(1,005)	1.1	6.0	32.8	58.6	1.5
일본	남 자	100(597)	7.2	26.8	50.8	13.7	1.5
	여 자	100(515)	7.2	27.6	58.3	6.0	1.0
	전 체	100(1,112)	7.2	27.1	54.2	10.2	1.3
중국	남 자	100(568)	1.2	7.0	45.1	46.5	0.2
	여 자	100(604)	0.7	5.1	49.3	44.7	0.2
	전 체	100(1,172)	0.9	6.1	47.2	45.5	0.3

29-4. 자존감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82.6%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3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70.5%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82.6%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76.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일본은 37%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남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II-58>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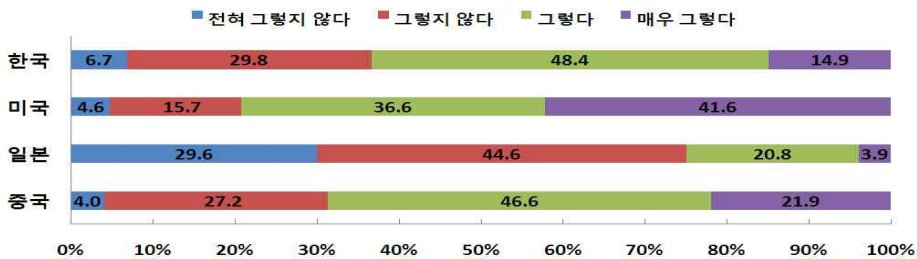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2	21.5	52.6	21.4	0.2
	여 자	100(1,929)	4.8	28.0	50.5	16.4	0.3
	전 체	100(3,933)	4.5	24.7	51.6	18.9	0.3
미국	남 자	100(455)	4.2	13.0	33.6	47.9	1.3
	여 자	100(550)	4.9	21.5	36.5	35.8	1.3
	전 체	100(1,005)	4.5	17.5	35.0	41.2	1.7
일본	남 자	100(597)	13.1	42.9	33.7	9.0	1.3
	여 자	100(515)	17.9	50.1	27.6	2.9	1.6
	전 체	100(1,112)	15.3	46.2	30.8	6.2	1.5
중국	남 자	100(568)	1.4	13.2	46.8	38.4	0.2
	여 자	100(604)	0.8	18.4	42.7	37.7	0.3
	전 체	100(1,172)	1.1	16.0	44.6	38.0	0.3

29-5. 자존감 -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8.2%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24.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3.3%로 나타났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78.2%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68.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일본은 24.7%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남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 차이의 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표 II-59>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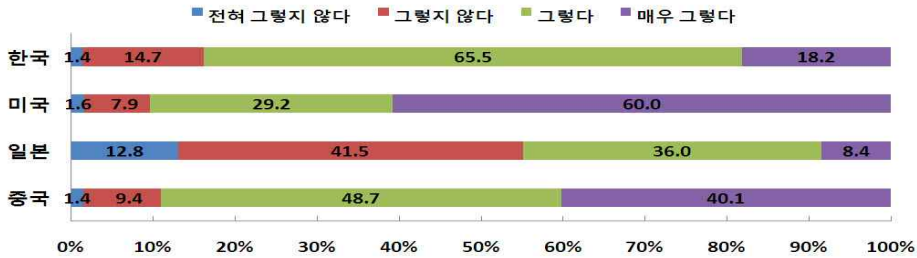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1	25.0	50.7	17.9	0.2
	여 자	100(1,929)	7.4	34.8	45.9	11.7	0.2
	전 체	100(3,933)	6.7	29.8	48.4	14.9	0.2
미 국	남 자	100(455)	4.8	9.9	36.3	47.7	1.3
	여 자	100(550)	4.5	20.7	37.3	36.5	0.9
	전 체	100(1,005)	4.6	15.7	36.6	41.6	1.4
일 본	남 자	100(597)	23.6	43.2	25.5	6.4	1.3
	여 자	100(515)	36.5	46.2	15.5	1.0	0.8
	전 체	100(1,112)	29.6	44.6	20.8	3.9	1.2
중 국	남 자	100(568)	4.0	25.4	46.1	24.1	0.4
	여 자	100(604)	4.0	28.8	47.4	19.7	0.2
	전 체	100(1,172)	4.0	27.2	46.6	21.9	0.3

29-6. 자기효능감 -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9.2%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83.7% 이었음

○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88.8%, 한국 83.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44.4%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2]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표 II-60>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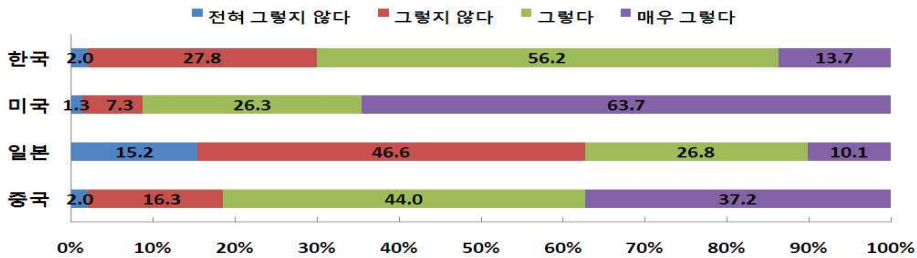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4	15.1	64.4	18.9	0.2
	여 자	100(1,929)	1.3	14.4	66.7	17.4	0.2
	전 체	100(3,933)	1.4	14.7	65.5	18.2	0.2
미국	남 자	100(455)	1.8	6.8	24.0	66.2	1.3
	여 자	100(550)	1.5	8.9	33.6	55.3	0.7
	전 체	100(1,005)	1.6	7.9	29.2	60.0	1.3
일본	남 자	100(597)	12.2	38.4	37.5	10.6	1.3
	여 자	100(515)	13.6	45.2	34.4	5.8	1.0
	전 체	100(1,112)	12.8	41.5	36.0	8.4	1.3
중국	남 자	100(568)	1.2	10.4	45.2	43.0	0.2
	여 자	100(604)	1.7	8.6	52.2	37.3	0.3
	전 체	100(1,172)	1.4	9.4	48.7	40.1	0.3

29-7. 자기효능감 -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90%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36.9%로 가장 낮았음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81.2%, 한국 69.9% 순 이었다. 일본은 36.9%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은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3]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표 II-61>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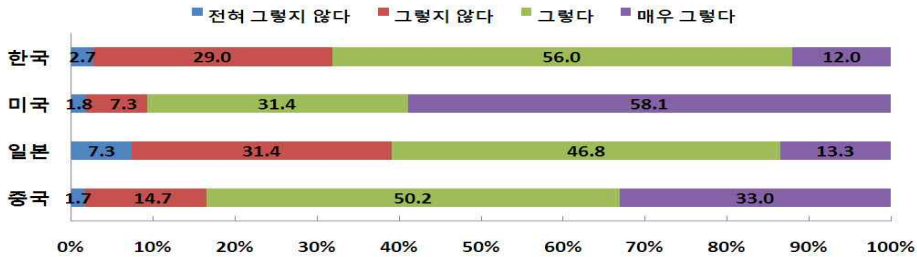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1	24.1	59.0	14.5	0.2
	여 자	100(1,929)	1.9	31.7	53.4	12.9	0.2
	전 체	100(3,933)	2.0	27.8	56.2	13.7	0.2
미국	남 자	100(455)	0.7	5.7	22.2	70.1	1.3
	여 자	100(550)	1.8	8.7	29.8	58.7	0.9
	전 체	100(1,005)	1.3	7.3	26.3	63.7	1.4
일본	남 자	100(597)	13.1	43.7	28.3	13.4	1.5
	여 자	100(515)	17.7	50.1	25.0	6.2	1.0
	전 체	100(1,112)	15.2	46.6	26.8	10.1	1.3
중국	남 자	100(568)	2.1	15.8	40.1	41.7	0.2
	여 자	100(604)	2.0	16.7	47.8	33.1	0.3
	전 체	100(1,172)	2.0	16.3	44.0	37.2	0.3

29-8. 자기효능감 -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9.5%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60.1%로 가장 낮았다

○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9.5%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83.2%, 한국 6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60.1%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4]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표 II-62>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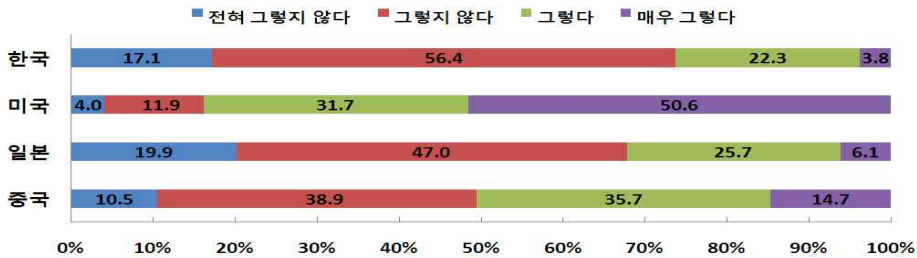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2.6	26.5	57.3	13.2	0.4
	여 자	100(1,929)	2.7	31.6	54.6	10.8	0.3
	전 체	100(3,933)	2.7	29.0	56.0	12.0	0.4
미국	남 자	100(455)	1.5	4.8	28.6	64.0	1.1
	여 자	100(550)	1.8	9.5	34.0	53.5	1.3
	전 체	100(1,005)	1.8	7.3	31.4	58.1	1.5
일본	남 자	100(597)	7.5	32.3	43.6	15.2	1.3
	여 자	100(515)	7.0	30.3	50.7	11.1	1.0
	전 체	100(1,112)	7.3	31.4	46.8	13.3	1.3
중국	남 자	100(568)	1.8	13.7	47.5	36.6	0.4
	여 자	100(604)	1.7	15.6	52.8	29.6	0.3
	전 체	100(1,172)	1.7	14.7	50.2	33.0	0.4

29-9. 정서조절 -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2.3%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26.1%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2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82.3%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50.4%, 일본은 31.8%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의 경우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5]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표 II-63>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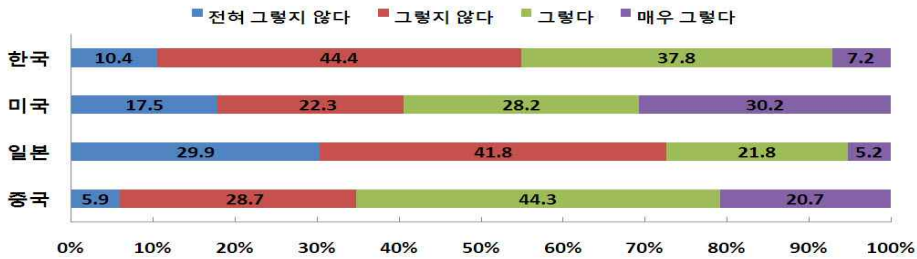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4.3	56.3	24.6	4.5	0.2
	여 자	100(1,929)	20.1	56.5	20.0	3.2	0.3
	전 체	100(3,933)	17.1	56.4	22.3	3.8	0.3
미국	남 자	100(455)	2.4	9.5	28.1	58.2	1.8
	여 자	100(550)	5.1	13.8	34.9	44.7	1.5
	전 체	100(1,005)	4.0	11.9	31.7	50.6	1.9
일본	남 자	100(597)	20.3	47.2	24.1	7.0	1.3
	여 자	100(515)	19.4	46.8	27.6	5.0	1.2
	전 체	100(1,112)	19.9	47.0	25.7	6.1	1.3
중국	남 자	100(568)	10.7	40.5	34.2	14.4	0.2
	여 자	100(604)	10.1	37.4	37.4	14.9	0.2
	전 체	100(1,172)	10.5	38.9	35.7	14.7	0.3

29-10. 정서조절 -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65%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2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45%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65%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58.4%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27%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6]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표 II-64>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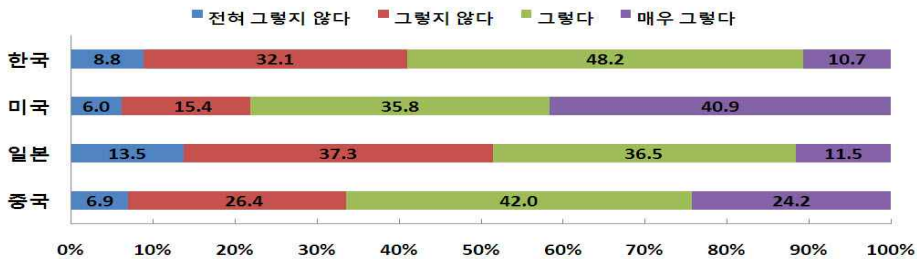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9	38.4	44.5	10.0	0.2
	여 자	100(1,929)	14.0	50.5	30.9	4.3	0.2
	전 체	100(3,933)	10.4	44.4	37.8	7.2	0.2
미국	남 자	100(455)	12.5	18.5	29.2	38.0	1.8
	여 자	100(550)	21.5	25.6	27.6	23.8	1.5
	전 체	100(1,005)	17.5	22.3	28.2	30.2	1.9
일본	남 자	100(597)	23.1	42.2	25.3	7.9	1.5
	여 자	100(515)	37.9	41.4	17.9	2.1	0.8
	전 체	100(1,112)	29.9	41.8	21.8	5.2	1.3
중국	남 자	100(568)	5.1	27.6	42.6	24.5	0.2
	여 자	100(604)	6.5	30.0	46.2	17.1	0.3
	전 체	100(1,172)	5.9	28.7	44.3	20.7	0.3

29-11. 정서조절 -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48%로 가장 낮았음

○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가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이 66.2%로 나타났다. 한국은 58.9%로 이었으며, 일본은 48%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7]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표 II-65>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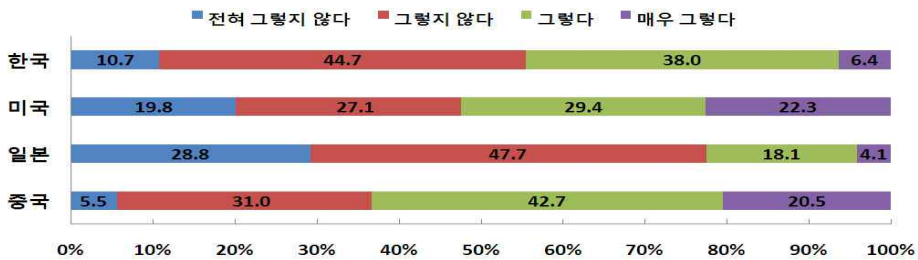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4	26.5	52.8	14.1	0.2
	여 자	100(1,929)	11.3	37.9	43.4	7.1	0.3
	전 체	100(3,933)	8.8	32.1	48.2	10.7	0.3
미국	남 자	100(455)	2.9	12.3	32.5	50.8	1.5
	여 자	100(550)	8.5	18.2	38.7	33.1	1.5
	전 체	100(1,005)	6.0	15.4	35.8	40.9	1.8
일본	남 자	100(597)	11.2	36.3	36.0	15.1	1.3
	여 자	100(515)	16.1	38.4	37.1	7.4	1.0
	전 체	100(1,112)	13.5	37.3	36.5	11.5	1.3
중국	남 자	100(568)	5.6	22.7	44.0	27.3	0.4
	여 자	100(604)	8.1	30.0	40.4	21.2	0.3
	전 체	100(1,172)	6.9	26.4	42.0	24.2	0.4

29-12. 낙관주의 -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63.2%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22.2%로 가장 낮았다

○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물음에 대해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6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 51.7%, 한국 44.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2.2%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8]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표 II-66>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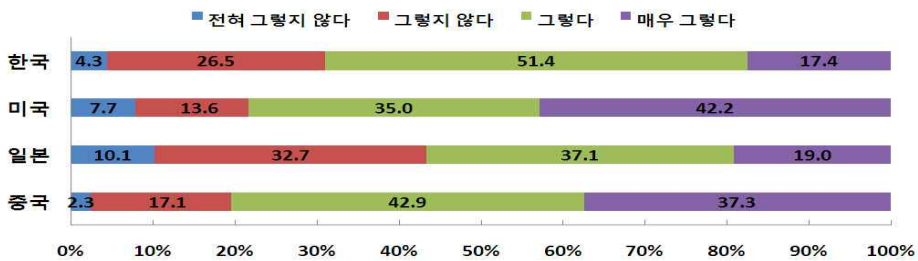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8.2	41.4	42.4	7.8	0.2
	여 자	100(1,929)	13.3	48.1	33.5	4.9	0.3
	전 체	100(3,933)	10.7	44.7	38.0	6.4	0.3
미국	남 자	100(455)	11.9	26.4	31.2	29.5	1.1
	여 자	100(550)	26.4	27.8	28.2	16.4	1.3
	전 체	100(1,005)	19.8	27.1	29.4	22.3	1.5
일본	남 자	100(597)	23.1	48.4	20.8	6.4	1.3
	여 자	100(515)	35.3	47.0	15.1	1.6	1.0
	전 체	100(1,112)	28.8	47.7	18.1	4.1	1.3
중국	남 자	100(568)	4.0	28.7	42.6	24.6	0.0
	여 자	100(604)	6.8	33.4	42.9	16.6	0.3
	전 체	100(1,172)	5.5	31.0	42.7	20.5	0.3

29-13. 낙관주의 -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80.2%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56.1%로 가장 낮았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8.8%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80.2%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77.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56.1%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9]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I-67>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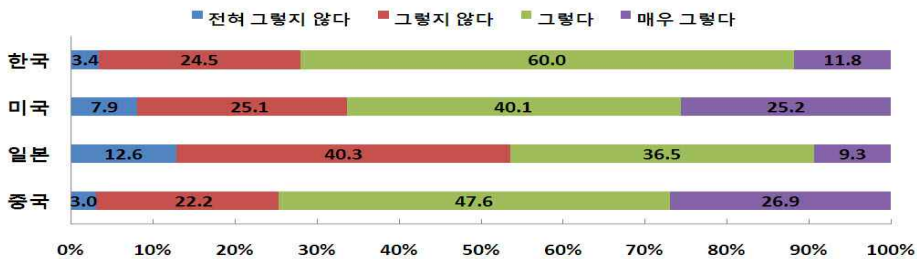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4	26.2	51.5	17.4	0.3
	여 자	100(1,929)	4.1	26.9	51.3	17.5	0.3
	전 체	100(3,933)	4.3	26.5	51.4	17.4	0.3
미국	남 자	100(455)	7.7	13.4	35.6	42.2	1.1
	여 자	100(550)	7.6	13.6	34.7	42.7	1.3
	전 체	100(1,005)	7.7	13.6	35.0	42.2	1.5
일본	남 자	100(597)	11.1	31.5	35.0	21.1	1.3
	여 자	100(515)	8.9	34.2	39.6	16.5	0.8
	전 체	100(1,112)	10.1	32.7	37.1	19.0	1.2
중국	남 자	100(568)	2.5	16.7	38.9	41.4	0.5
	여 자	100(604)	2.2	17.4	46.7	33.6	0.2
	전 체	100(1,172)	2.3	17.1	42.9	37.3	0.4

29-14. 낙관주의 -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74.5%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45.8%로 가장 낮았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71.8%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74.5%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65.3%로 한국보다 낮았다. 일본은 45.8%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 차이의 정도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0]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표 II-68>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0	23.0	61.0	12.7	0.3
	여 자	100(1,929)	3.7	26.2	58.9	10.9	0.3
	전 체	100(3,933)	3.4	24.5	60.0	11.8	0.3
미국	남 자	100(455)	5.3	19.1	40.2	33.8	1.5
	여 자	100(550)	10.0	30.0	40.4	18.4	1.3
	전 체	100(1,005)	7.9	25.1	40.1	25.2	1.7
일본	남 자	100(597)	11.2	40.5	35.2	11.6	1.5
	여 자	100(515)	14.2	40.0	38.1	6.6	1.2
	전 체	100(1,112)	12.6	40.3	36.5	9.3	1.4
중국	남 자	100(568)	2.1	21.5	45.8	30.3	0.4
	여 자	100(604)	3.8	23.0	49.5	23.5	0.2
	전 체	100(1,172)	3.0	22.2	47.6	26.9	0.3

■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 개인 내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분석결과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도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 국가별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자존감, 자기 효능감 정서조절 및 개인 내 적응적 요인 전체에서 미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낙관주의에서는 중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II -69>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구분		자존감			자기 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적응적 요인(전체)		
		M (SD)	t	F	M (SD)	t	F	M (SD)	t	F	M (SD)	t	F	M (SD)	t	F
한국	남자 (n=2,004)	2.89 (0.61)	3.69 ***		2.89 (0.58)	3.09 **		2.51 (0.60)	12.73 ***		2.72 (0.56)	4.80 ***		2.77 (0.46)	7.24 ***	
	여자 (n=1,929)	2.82 (0.61)			2.84 (0.56)			2.26 (0.61)			2.63 (0.57)			2.67 (0.47)		
	전체 (n=3,933)	2.86 (0.60)			2.87 (0.57)			2.39 (0.61)			2.68 (0.57)			2.72 (0.47)		
미국	남자 (n=455)	3.43 (0.58)	3.10 **	651.77 ***	3.59 (0.56)	4.03 ***	620.32 ***	3.24 (0.68)	7.14 ***	395.23 ***	2.99 (0.73)	5.67 ***	207.84 ***	3.33 (0.51)	5.98 ***	687.80 ***
	여자 (n=550)	3.31 (0.59)			3.44 (0.60)			2.91 (0.75)			2.72 (0.75)			3.13 (0.54)		
	전체 (n=1,005)	3.36 (0.59)			3.51 (0.59)			3.01 (0.74)			2.84 (0.75)			3.22 (0.54)		
일본	남자 (n=597)	2.44 (0.67)	6.89 ***	(ab, ac, ad, bc, bd, cd)	2.52 (0.71)	3.10 **	(ab, ac, ad, bc, bd, cd)	2.31 (0.68)	4.61 ***		2.42 (0.68)	3.50 ***	(ab, ac, ad, bc, bd, cd)	2.42 (0.56)	5.96 ***	(ab, ac, ad, bc, bd, cd)
	여자 (n=515)	2.18 (0.54)			2.40 (0.63)			2.13 (0.61)			2.28 (0.61)			2.24 (0.46)		
	전체 (n=1,112)	2.32 (0.62)			2.47 (0.68)			2.22 (0.65)			2.36 (0.65)			2.34 (0.52)		
중국	남자 (n=568)	3.20 (0.55)	1.16		3.24 (0.63)	2.11 *		2.77 (0.67)	2.17 *		3.04 (0.64)	3.37 **		3.08 (0.50)	2.57 **	
	여자 (n=604)	3.16 (0.54)			3.16 (0.61)			2.69 (0.69)			2.91 (0.64)			3.01 (0.50)		
	전체 (n=1,172)	3.18 (0.55)			3.20 (0.62)			2.73 (0.69)			2.98 (0.65)			3.04 (0.50)		
전체 M(SD)		2.90(0.67)			2.95(0.67)			2.51(0.70)			2.70(0.65)			2.78(0.56)		

주1. * $p<.05$, ** $p<.01$, *** $p<.001$, 주2. a=한국, b=미국, c=일본, d=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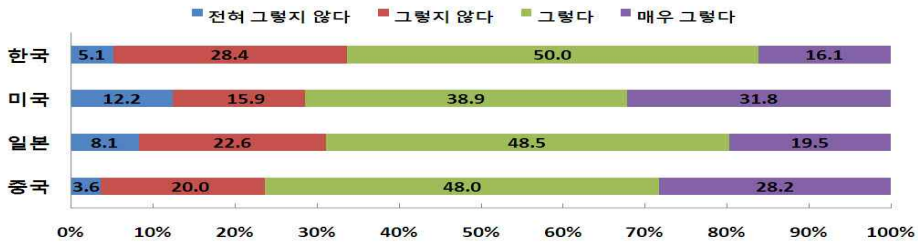
4) 가족영역 - 부모의 지원

30-1. 정서적 지원 -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76.2%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66.1%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76.2%로 가장 높았고, 미국 70.7%, 일본 68%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표 II-70>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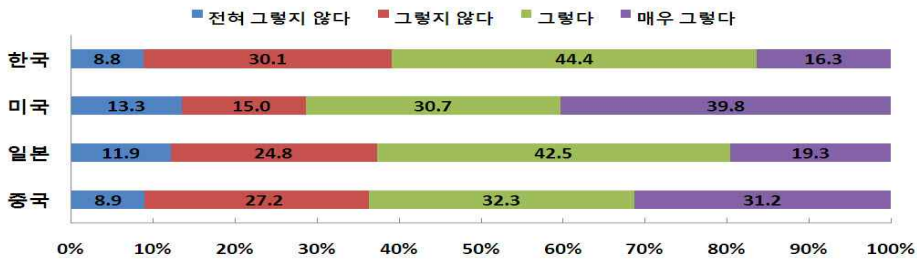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7	27.0	50.2	17.6	0.4
	여 자	100(1,929)	5.5	29.8	49.8	14.7	0.3
	전 체	100(3,933)	5.1	28.4	50.0	16.1	0.4
미국	남 자	100(455)	7.5	13.4	40.2	37.6	1.3
	여 자	100(550)	16.2	18.2	38.2	26.7	0.7
	전 체	100(1,005)	12.2	15.9	38.9	31.8	1.3
일본	남 자	100(597)	7.9	21.9	49.6	19.1	1.5
	여 자	100(515)	8.3	23.3	47.4	20.0	1.0
	전 체	100(1,112)	8.1	22.6	48.5	19.5	1.3
중국	남 자	100(568)	3.5	19.9	48.4	28.2	0.0
	여 자	100(604)	3.6	20.0	47.7	28.3	0.3
	전 체	100(1,172)	3.6	20.0	48.0	28.2	0.3

30-2. 정서적 지원 - 고민을 들어 주신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0.5%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60.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70.5%로 가장 높았고, 중국 63.5%, 일본 61.8%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의 경우 긍정 응답률의 차이가 없었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2> 고민을 들어 주신다

<표 II-71> 고민을 들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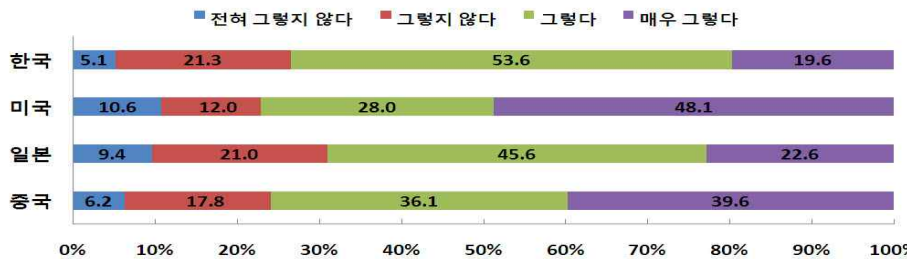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8.9	30.1	44.7	15.9	0.4
	여 자	100(1,929)	8.8	30.1	44.1	16.7	0.3
	전 체	100(3,933)	8.8	30.1	44.4	16.3	0.4
미국	남 자	100(455)	9.5	13.8	30.5	44.8	1.3
	여 자	100(550)	16.4	16.0	30.9	36.0	0.7
	전 체	100(1,005)	13.3	15.0	30.7	39.8	1.3
일본	남 자	100(597)	11.1	29.6	41.0	16.6	1.7
	여 자	100(515)	13.0	19.2	44.3	22.5	1.0
	전 체	100(1,112)	11.9	24.8	42.5	19.3	1.4
중국	남 자	100(568)	10.6	29.9	33.6	25.9	0.0
	여 자	100(604)	7.3	24.7	31.3	36.3	0.5
	전 체	100(1,172)	8.9	27.2	32.3	31.2	0.3

30-3. 정서적 지원 -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68.2%로 가장 낮았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73.2%로 나타났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75.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68.2%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3]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표 II-7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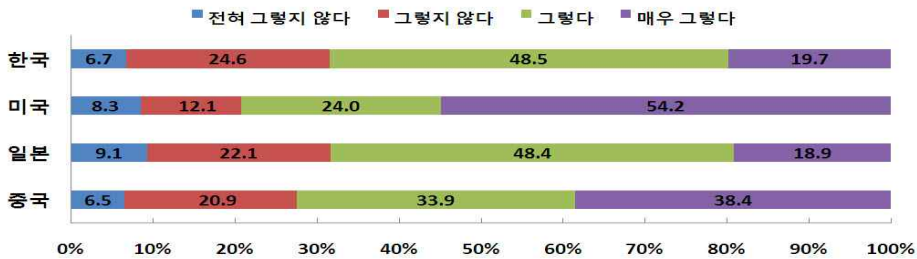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5.0	20.0	54.4	20.1	0.5
	여 자	100(1,929)	5.1	22.8	52.8	19.1	0.2
	전 체	100(3,933)	5.1	21.3	53.6	19.6	0.4
미국	남 자	100(455)	6.8	10.5	28.1	53.0	1.5
	여 자	100(550)	13.8	13.1	28.2	44.2	0.7
	전 체	100(1,005)	10.6	12.0	28.0	48.1	1.4
일본	남 자	100(597)	9.0	23.3	45.7	20.3	1.7
	여 자	100(515)	9.9	18.4	45.4	25.2	1.0
	전 체	100(1,112)	9.4	21.0	45.6	22.6	1.4
중국	남 자	100(568)	7.0	17.4	39.4	35.7	0.4
	여 자	100(604)	5.1	18.2	33.1	43.4	0.2
	전 체	100(1,172)	6.2	17.8	36.1	39.6	0.3

30-4. 정보적 지원 -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8.2%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67.3%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8.2%로 나타났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78.2%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72.3%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67.3%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표 II-73>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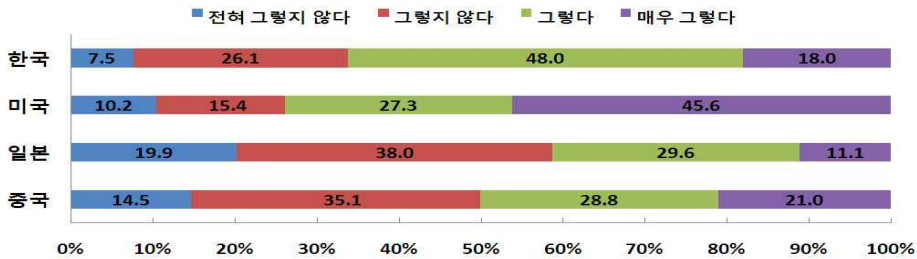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9	23.5	48.8	20.3	0.5
	여 자	100(1,929)	6.5	25.8	48.2	19.1	0.4
	전 체	100(3,933)	6.7	24.6	48.5	19.7	0.5
미국	남 자	100(455)	5.5	12.7	23.1	57.6	1.1
	여 자	100(550)	10.5	11.6	25.1	51.6	1.1
	전 체	100(1,005)	8.3	12.1	24.0	54.2	1.4
일본	남 자	100(597)	8.5	21.8	49.4	18.4	1.8
	여 자	100(515)	9.7	22.5	47.4	19.4	1.0
	전 체	100(1,112)	9.1	22.1	48.4	18.9	1.5
중국	남 자	100(568)	6.9	22.5	34.7	35.7	0.2
	여 자	100(604)	6.1	19.5	33.1	41.1	0.2
	전 체	100(1,172)	6.5	20.9	33.9	38.4	0.3

30-5. 정보적 지원 -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2.9%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40.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72.9%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49.8%로 한국보다 낮았다. 일본은 40.7%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표 II-74>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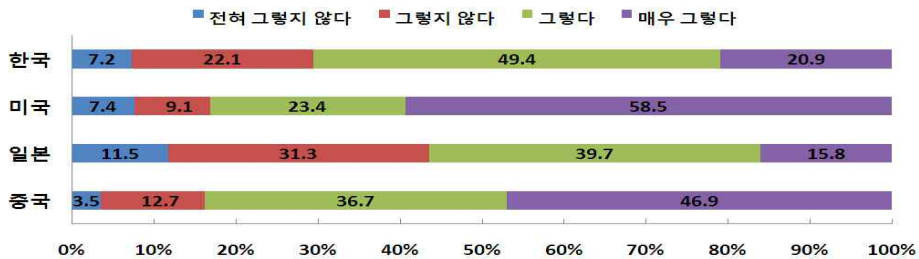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7.4	25.0	48.7	18.4	0.5
	여 자	100(1,929)	7.6	27.2	47.3	17.5	0.4
	전 체	100(3,933)	7.5	26.1	48.0	18.0	0.4
미국	남 자	100(455)	7.5	16.7	26.6	47.9	1.3
	여 자	100(550)	12.5	14.5	28.2	43.6	1.1
	전 체	100(1,005)	10.2	15.4	27.3	45.6	1.5
일본	남 자	100(597)	19.4	36.3	30.3	12.2	1.7
	여 자	100(515)	20.4	40.0	28.9	9.7	1.0
	전 체	100(1,112)	19.9	38.0	29.6	11.1	1.4
중국	남 자	100(568)	14.4	34.2	32.0	18.8	0.5
	여 자	100(604)	14.4	36.3	26.0	23.0	0.3
	전 체	100(1,172)	14.5	35.1	28.8	21.0	0.5

30-6. 정보적 지원 - 올바른 공부태도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83.6%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55.5%로 가장 낮았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태도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70.3%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83.6%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81.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55.5%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6] 올바른 공부태도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표 II-75> 올바른 공부태도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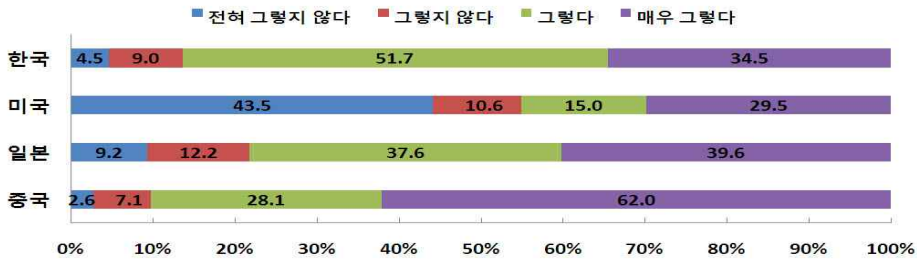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7.1	21.3	50.1	21.1	0.3
	여 자	100(1,929)	7.4	22.9	48.6	20.8	0.4
	전 체	100(3,933)	7.2	22.1	49.4	20.9	0.4
미국	남 자	100(455)	5.5	7.7	24.8	60.7	1.3
	여 자	100(550)	8.9	10.4	22.4	57.1	1.3
	전 체	100(1,005)	7.4	9.1	23.4	58.5	1.6
일본	남 자	100(597)	11.2	29.5	39.7	17.8	1.8
	여 자	100(515)	11.8	33.4	39.8	13.6	1.4
	전 체	100(1,112)	11.5	31.3	39.7	15.8	1.7
중국	남 자	100(568)	4.2	13.2	36.4	46.0	0.2
	여 자	100(604)	2.6	12.3	37.3	47.7	0.2
	전 체	100(1,172)	3.5	12.7	36.7	46.9	0.3

30-7. 경제적 지원 - 용돈을 주신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44.5%로 가장 낮았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86.2%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77.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은 44.5%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7] 용돈을 주신다

<표 II-76> 용돈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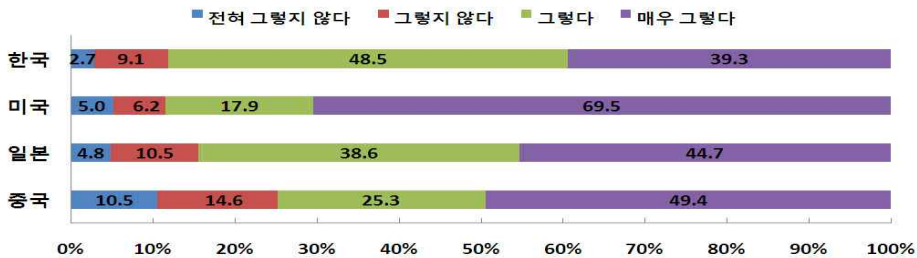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6	9.9	51.6	33.5	0.3
	여 자	100(1,929)	4.4	8.1	51.7	35.5	0.3
	전 체	100(3,933)	4.5	9.0	51.7	34.5	0.3
미국	남 자	100(455)	39.3	11.2	15.2	33.0	1.3
	여 자	100(550)	47.3	10.2	15.1	26.5	0.9
	전 체	100(1,005)	43.5	10.6	15.0	29.5	1.4
일본	남 자	100(597)	9.0	10.6	39.2	39.5	1.7
	여 자	100(515)	9.3	14.2	35.7	39.8	1.0
	전 체	100(1,112)	9.2	12.2	37.6	39.6	1.4
중국	남 자	100(568)	2.3	9.3	32.9	55.5	0.0
	여 자	100(604)	2.8	5.0	23.7	68.4	0.2
	전 체	100(1,172)	2.6	7.1	28.1	62.0	0.2

30-8. 경제적 지원 -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한국의 긍정 응답률이 87.8%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74.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87.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 87.4%, 일본 83.3%, 중국 74.7%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8]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표 II-77>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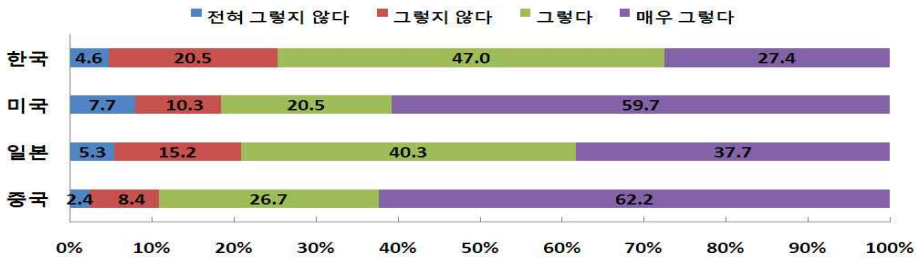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5	10.5	49.0	36.4	0.5
	여 자	100(1,929)	1.9	7.5	48.0	42.2	0.4
	전 체	100(3,933)	2.7	9.1	48.5	39.3	0.5
미국	남 자	100(455)	3.3	5.9	19.6	69.9	1.3
	여 자	100(550)	6.4	6.5	16.7	69.6	0.7
	전 체	100(1,005)	5.0	6.2	17.9	69.5	1.3
일본	남 자	100(597)	6.0	11.1	39.7	41.5	1.7
	여 자	100(515)	3.3	9.9	37.5	48.3	1.0
	전 체	100(1,112)	4.8	10.5	38.6	44.7	1.4
중국	남 자	100(568)	11.4	15.0	29.0	44.5	0.0
	여 자	100(604)	9.4	14.4	22.0	54.0	0.2
	전 체	100(1,172)	10.5	14.6	25.3	49.4	0.2

30-9. 경제적 지원 -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8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74.4%로 가장 낮았다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74.4%로 가장 낮았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88.9%로 가장 높았고, 미국 80.2%, 일본 78%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9]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표 II-78>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1	19.4	47.9	28.2	0.4
	여 자	100(1,929)	5.2	21.8	46.1	26.5	0.4
	전 체	100(3,933)	4.6	20.5	47.0	27.4	0.4
미국	남 자	100(455)	5.5	11.2	18.7	63.1	1.5
	여 자	100(550)	9.5	9.6	22.2	57.3	1.5
	전 체	100(1,005)	7.7	10.3	20.5	59.7	1.8
일본	남 자	100(597)	4.9	15.6	41.2	36.7	1.7
	여 자	100(515)	5.8	14.8	39.2	39.0	1.2
	전 체	100(1,112)	5.3	15.2	40.3	37.7	1.5
중국	남 자	100(568)	2.3	9.7	28.5	59.3	0.2
	여 자	100(604)	2.5	7.1	25.2	65.1	0.2
	전 체	100(1,172)	2.4	8.4	26.7	62.2	0.3

■ 부모의 지원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 부모의 지원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경제적 지원과 부모지원 전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국가별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원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았고, 한국과 일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원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경제적 지원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았다. 부모의 지원 전체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79> 부모의 지원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구분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지원(전체)		
		<i>M</i> (<i>SD</i>)	<i>t</i>	<i>F</i>	<i>M</i> (<i>SD</i>)	<i>t</i>	<i>F</i>	<i>M</i> (<i>SD</i>)	<i>t</i>	<i>F</i>	<i>M</i> (<i>SD</i>)	<i>t</i>	<i>F</i>
한국	남자 (n=2,004)	2.80 (0.70)	1.46		2.82 (0.71)	1.23		3.11 (0.62)	-1.70		2.91 (0.57)	0.53	
	여자 (n=1,929)	2.76 (0.71)			2.79 (0.73)			3.15 (0.60)			2.90 (0.56)		
	전체 (n=3,933)	2.78 (0.71)			2.81 (0.72)			3.13 (0.61)			2.91 (0.57)		
미국	남자 (n=455)	3.16 (0.83)	4.81 ***	42.85 ***	3.31 (0.78)	2.54 *	153.98 ***	3.14 (0.75)	2.75 **	52.86 ***	3.21 (0.66)	4.03 ***	70.81 ***
	여자 (n=550)	2.89 (0.97)			3.17 (0.90)			3.00 (0.82)			3.02 (0.78)		
	전체 (n=1,005)	3.02 (0.92)			3.24 (0.85)			3.06 (0.79)			3.11 (0.73)		
일본	남자 (n=597)	2.75 (0.78)	-1.36	(ab, ad, bc, cd)	2.60 (0.76)	1.37	(ab, ac, ad, bc, bd, cd)	3.14 (0.71)	-0.84	(ab, ad, bc, bd, cd)	2.83 (0.61)	-0.33	(ab, ac, ad, bc, cd)
	여자 (n=515)	2.81 (0.82)			2.54 (0.76)			3.17 (0.69)			2.84 (0.62)		
	전체 (n=1,112)	2.78 (0.80)			2.57 (0.76)			3.15 (0.70)			2.83 (0.61)		
중국	남자 (n=568)	2.93 (0.75)	-2.44 *		2.93 (0.71)	-1.45		3.31 (0.61)	-3.64 ***		3.06 (0.56)	-3.01 **	
	여자 (n=604)	3.04 (0.76)			2.99 (0.69)			3.44 (0.60)			3.16 (0.55)		
	전체 (n=1,172)	2.99 (0.76)			2.96 (0.70)			3.38 (0.61)			3.11 (0.56)		
전체 M(SD)		2.85(0.77)			2.86(0.77)			3.16(0.66)			2.96(0.61)		

주1. * $p<.05$, ** $p<.01$, *** $p<.001$, 주2. a=한국, b=미국, c=일본, d=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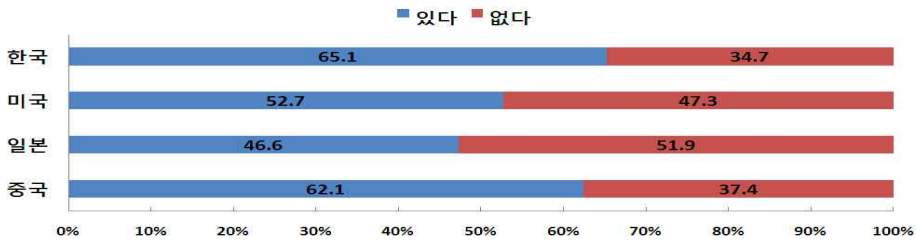
5) 지역사회영역 - 지역사회 지원

31-1. 지역사회 지원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한국의 긍정 응답률이 65.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46.6%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5.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국 62.1%, 미국 52.7%, 일본 46.6%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0]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표 II-80>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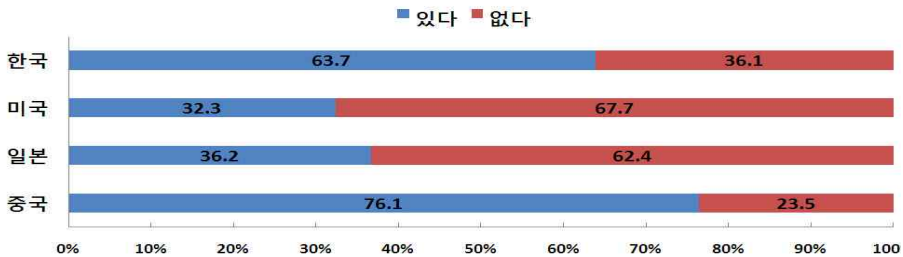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9.4	30.3	0.2
	여 자	100(1,929)	60.7	39.2	0.1
	전 체	100(3,933)	65.1	34.7	0.2
미국	남 자	100(455)	55.2	44.8	0.0
	여 자	100(550)	51.3	48.7	0.0
	전 체	100(1,005)	52.7	47.3	0.0
일본	남 자	100(597)	45.9	52.6	1.5
	여 자	100(515)	47.6	51.3	1.2
	전 체	100(1,112)	46.6	51.9	1.4
중국	남 자	100(568)	66.5	33.1	0.4
	여 자	100(604)	57.8	41.7	0.5
	전 체	100(1,172)	62.1	37.4	0.5

31-2. **지역사회 자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32.3%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63.7%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36.2%로 한국 보다 낮았다. 미국은 32.3%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표 II-8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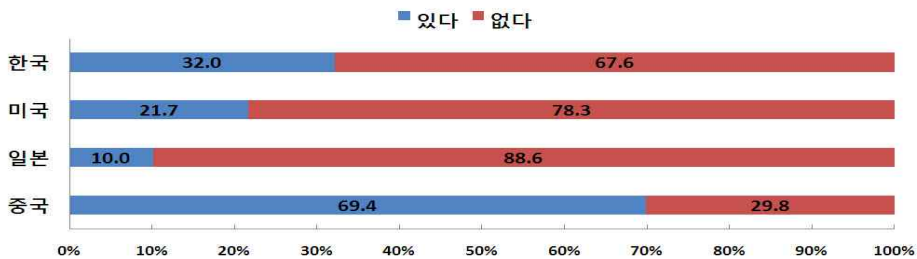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66.6	33.1	0.2
	여 자	100(1,929)	60.7	39.1	0.2
	전 체	100(3,933)	63.7	36.1	0.2
미국	남 자	100(455)	31.2	68.8	0.0
	여 자	100(550)	33.6	66.4	0.0
	전 체	100(1,005)	32.3	67.7	0.0
일본	남 자	100(597)	33.0	65.5	1.5
	여 자	100(515)	40.0	58.8	1.2
	전 체	100(1,112)	36.2	62.4	1.4
중국	남 자	100(568)	79.4	20.4	0.2
	여 자	100(604)	73.0	26.5	0.5
	전 체	100(1,172)	76.1	23.5	0.4

31-3. **지역사회 자원**-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69.4%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0.0%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32%로 나타났다. 중국은 긍정 응답률이 69.4%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21.7%로 한국보다 낮았다. 일본은 10%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과 중국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2]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표 II-82>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구분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6.9	62.7	0.4
	여 자	100(1,929)	26.9	72.6	0.5
	전 체	100(3,933)	32.0	67.6	0.4
미국	남 자	100(455)	20.2	79.8	0.0
	여 자	100(550)	22.9	77.1	0.0
	전 체	100(1,005)	21.7	78.3	0.0
일본	남 자	100(597)	11.6	86.9	1.5
	여 자	100(515)	8.2	90.7	1.2
	전 체	100(1,112)	10.0	88.6	1.4
중국	남 자	100(568)	66.7	32.7	0.5
	여 자	100(604)	72.0	27.2	0.8
	전 체	100(1,172)	69.4	29.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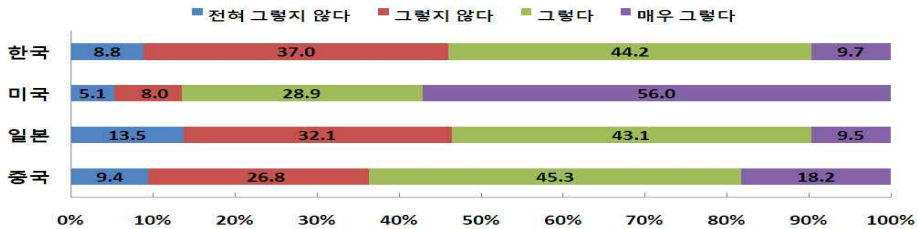
6) 학교영역 - 교사, 친구 관계

32-1. 교사 관계 -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4.9%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52.6%로 가장 낮았음

○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63.5%, 한국 53.9%, 일본 52.6%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3]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83>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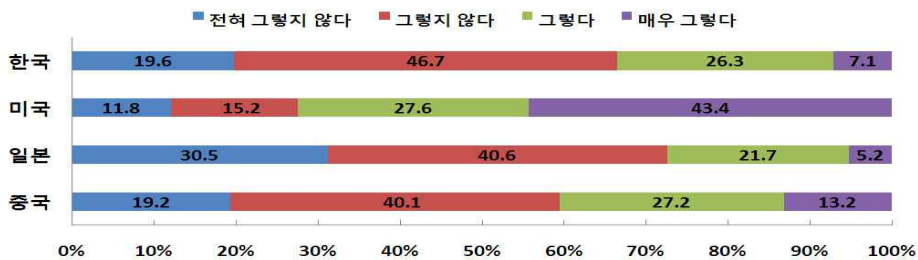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7.9	35.1	45.5	11.3	0.2
	여 자	100(1,929)	9.8	39.0	43.0	8.0	0.3
	전 체	100(3,933)	8.8	37.0	44.2	9.7	0.3
미국	남 자	100(455)	5.1	8.8	28.4	56.0	1.8
	여 자	100(550)	5.3	7.5	29.6	56.4	1.3
	전 체	100(1,005)	5.1	8.0	28.9	56.0	2.0
일본	남 자	100(597)	12.6	31.7	43.0	10.6	2.2
	여 자	100(515)	14.6	32.6	43.3	8.3	1.2
	전 체	100(1,112)	13.5	32.1	43.1	9.5	1.8
중국	남 자	100(568)	8.6	25.7	46.1	19.4	0.2
	여 자	100(604)	10.1	27.8	44.5	17.2	0.3
	전 체	100(1,172)	9.4	26.8	45.3	18.2	0.3

32-2. 교사 관계 -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7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26.9%로 가장 낮았음

○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40.4%, 한국 33.4%, 일본 26.9%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4]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84>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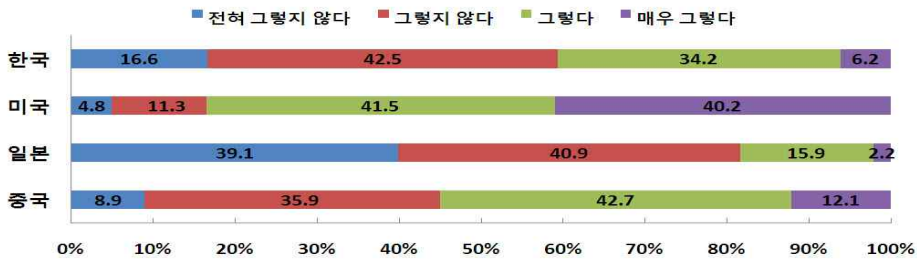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7.1	44.7	29.1	8.7	0.4
	여 자	100(1,929)	22.3	48.7	23.4	5.4	0.2
	전 체	100(3,933)	19.6	46.7	26.3	7.1	0.3
미국	남 자	100(455)	11.4	16.0	24.4	45.9	2.2
	여 자	100(550)	12.0	14.7	30.5	41.8	0.9
	전 체	100(1,005)	11.8	15.2	27.6	43.4	2.0
일본	남 자	100(597)	28.3	41.0	22.8	5.7	2.2
	여 자	100(515)	33.2	40.2	20.6	4.7	1.4
	전 체	100(1,112)	30.5	40.6	21.7	5.2	1.9
중국	남 자	100(568)	19.2	38.7	28.0	13.9	0.2
	여 자	100(604)	19.2	41.4	26.5	12.6	0.3
	전 체	100(1,172)	19.2	40.1	27.2	13.2	0.3

32-3. 교사 관계 - 내가 우수(성공하고 있다)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1.7%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8.1%로 가장 낮았음

○ ‘내가 우수(성공하고 있다고)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1.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54.8%, 한국은 40.4%로 나타났다. 일본은 18.1%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과 중국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5] 내가 우수(성공하고 있다)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85> 내가 우수(성공하고 있다)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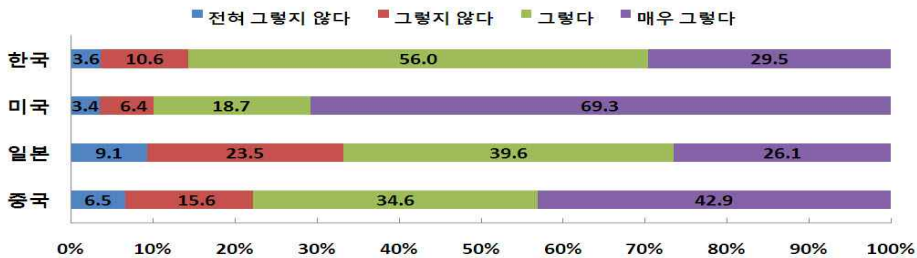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15.5	40.0	36.8	7.3	0.3
	여 자	100(1,929)	17.6	45.0	31.6	5.0	0.7
	전 체	100(3,933)	16.6	42.5	34.2	6.2	0.5
미국	남 자	100(455)	6.6	12.3	39.8	39.6	1.8
	여 자	100(550)	3.5	10.5	43.5	40.9	1.6
	전 체	100(1,005)	4.8	11.3	41.5	40.2	2.2
일본	남 자	100(597)	34.8	42.9	17.3	2.8	2.2
	여 자	100(515)	44.1	38.6	14.4	1.4	1.6
	전 체	100(1,112)	39.1	40.9	15.9	2.2	2.0
중국	남 자	100(568)	9.7	38.2	38.4	13.6	0.2
	여 자	100(604)	8.3	33.6	46.9	10.8	0.5
	전 체	100(1,172)	8.9	35.9	42.7	12.1	0.4

32-4. 친구 관계 -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88%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65.7%로 가장 낮았음

○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미국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이 85.5%로 나타났다으며, 중국은 77.5%로 한국보다 낮았다. 일본은 65.7%로 가장 낮았다.

○ 성별 분석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II-86]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표 II-86>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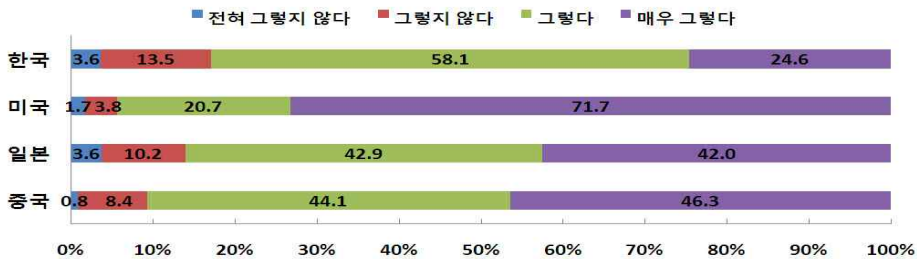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3.9	11.5	57.1	27.2	0.3
	여 자	100(1,929)	3.3	9.6	54.8	32.0	0.2
	전 체	100(3,933)	3.6	10.6	56.0	29.5	0.3
미국	남 자	100(455)	2.9	7.3	19.8	67.5	2.6
	여 자	100(550)	3.6	5.8	18.0	71.6	0.9
	전 체	100(1,005)	3.4	6.4	18.7	69.3	2.2
일본	남 자	100(597)	10.2	29.8	38.2	19.6	2.2
	여 자	100(515)	7.8	16.3	41.4	33.6	1.0
	전 체	100(1,112)	9.1	23.5	39.6	26.1	1.7
중국	남 자	100(568)	6.9	16.0	39.1	37.9	0.2
	여 자	100(604)	6.3	15.1	30.6	47.7	0.3
	전 체	100(1,172)	6.5	15.6	34.6	42.9	0.3

32-5. 친구 관계 -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미국의 긍정 응답률이 92.4%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82.7%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82.7%로 가장 낮았다. 미국은 긍정 응답률이 92.4%로 가장 높았고, 중국 90.4%, 일본 84.9%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분석에서는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긍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87]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표 II-87>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구분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한국	남 자	100(2,004)	4.2	12.5	59.2	23.7	0.4
	여 자	100(1,929)	2.9	14.5	56.9	25.6	0.2
	전 체	100(3,933)	3.6	13.5	58.1	24.6	0.3
미 국	남 자	100(455)	1.8	4.0	18.5	73.0	2.9
	여 자	100(550)	1.6	3.6	22.7	71.3	0.7
	전 체	100(1,005)	1.7	3.8	20.7	71.7	2.2
일 본	남 자	100(597)	4.4	10.2	43.2	40.0	2.2
	여 자	100(515)	2.7	10.1	42.5	44.3	0.4
	전 체	100(1,112)	3.6	10.2	42.9	42.0	1.4
중 국	남 자	100(568)	0.7	9.0	43.7	46.3	0.4
	여 자	100(604)	0.8	7.9	44.5	46.4	0.3
	전 체	100(1,172)	0.8	8.4	44.1	46.3	0.4

■ 학교영역에 대한 성별, 국가별 차이 분석

○ 학교영역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교사관계와 친구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사관계는 남학생이 친구관계는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 국가별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영역 전체 등 모든 요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두 요인을 합한 결과 미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88>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구분		교사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영역(전체)		
		<i>M</i> (<i>SD</i>)	<i>t</i>	<i>F</i>	<i>M</i> (<i>SD</i>)	<i>t</i>	<i>F</i>	<i>M</i> (<i>SD</i>)	<i>t</i>	<i>F</i>
한국	남자 (n=2,004)	2.42 (0.72)	6.03 ***	484.27 *** (ab, ac, ad, bc, bd, cd)	2.85 (0.12)	-6.04 ***	183.67 *** (ab, ad, bc, bd, cd)	2.67 (0.57)	3.36 **	529.58 *** (ab, ac, ad, bc, bd, cd)
	여자 (n=1,929)	2.28 (0.69)			2.95 (0.49)			2.61 (0.53)		
	전체 (n=3,933)	2.35 (0.71)			2.90 (0.52)			2.64 (0.56)		
미국	남자 (n=455)	3.20 (0.77)	-0.42		2.99 (0.58)	1.75		3.36 (0.61)	-0.52	
	여자 (n=550)	3.22 (0.71)			2.93 (0.58)			3.38 (0.58)		
	전체 (n=1,005)	3.21 (0.74)			2.96 (0.58)			3.37 (0.59)		
일본	남자 (n=597)	2.16 (0.68)	2.49 *		2.74 (0.60)	-4.03 ***		2.47 (0.59)	-0.72	
	여자 (n=515)	2.05 (0.67)			2.88 (0.54)			2.50 (0.54)		
	전체 (n=1,112)	2.11 (0.68)			2.80 (0.58)			2.49 (0.57)		
중국	남자 (n=568)	2.56 (0.75)	0.53		3.22 (0.69)	-1.65		2.83 (0.59)	-0.36	
	여자 (n=604)	2.54 (0.75)			3.28 (0.69)			2.84 (0.59)		
	전체 (n=1,172)	2.55 (0.75)			3.25 (0.69)			2.83 (0.59)		
전체 <i>M</i> (<i>SD</i>)		2.47(0.78)			3.18(0.71)			2.75(0.63)		

주1. **p*<.05, ***p*<.01, ****p*<.001, 주2. a=한국, b=미국, c=일본, d=중국

Ⅲ.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Ⅲ. 요약 및 결론

1. 요약

한·미·일·중 4개국 청소년들의 신체건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건강, 영양 및 식습관, 수면, 흡연, 음주, 개인위생, 활동제한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건강 측면에서 신체활동량을 비교한 결과, 30분 이상의 운동을 주당 3일 이상 한 비율은 미국이 55.3%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28.5%로 4개국 중 가장 적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이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체육수업시간에 주당 2시간 이상 운동을 한 비율은 일본이 81.7%, 중국이 75.2%로 많았고, 한국이 31.9%로 가장 적었다. 반면, 최근 일주일동안 체육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적이 한 시간도 없었던 경우는 미국이 54.9%, 한국이 44.1%로 중국과 일본보다 많았다.

4개국 고등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미국보다 작고 가벼웠지만, 일본보다는 크고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장에서는 미국이 169.0cm로 가장 컸고, 일본이 164.7cm로 가장 작았으며, 평균 체중에서도 미국이 65.6kg으로 가장 무거웠고, 일본이 56.1kg으로 가장 가벼웠다. 한국은 평균 신장이 167.6cm, 평균 체중이 59.2kg으로 미국과 중국 다음 순이었다. 성별 비교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신장은 미국이 가장 컸고 한국과 중국은 같았으며, 체중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무거웠다. 여자의 경우 신장은 중국이 가장 컸으며, 체중은 미국이 가장 무거웠다.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절반이 넘는 50.8%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6.8%로 가장 적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경험률이 4개국 모두 많았고, 특히 한국의 경우 여

학생의 다이어트 경험률은 67.1%나 되었다.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한 경험에 있는 4개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식사량 줄임’과 ‘규칙적 운동’이었다. ‘식사량 줄임’ 방법은 한국이 83.9%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5.7%로 가장 적었으며, ‘규칙적 운동’ 방법은 중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44.3%로 가장 적었다. 미국과 중국은 ‘식사량 줄임’과 ‘규칙적 운동’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식사량 줄임’ 방법이 ‘규칙적 운동’에 비해 각각 22.6%와 32.2%나 많았다. 특히, 한국 여학생들 중 ‘규칙적 운동’으로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우는 55.6%인 반면, ‘식사량 줄임’의 비율은 90%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미국과 중국의 고등학생들에 비해 ‘식사량 줄임’ 방법을 통해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생각을 비교한 결과, ‘살이 찢 편’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일본이 48.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3.7%로 가장 적었다. 성별 비교 결과, 4개국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살이 찢 편으로 생각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여학생들은 71.1%나 자신이 살이 찢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긍정응답률은 미국이 80.7%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6.6%로 가장 적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여학생들은 81.4%와 86.7%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및 식습관 측면에서 주당 아침식사 빈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일본이 81.4%, 중국이 80.1%로 많았고, 미국이 39.2%로 가장 적었다. 특히, 최근 일주일동안 ‘아침식사를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5.2%, 미국이 14.3%로 일본과 중국의 3.9%보다 많았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자주 먹은 음식을 비교한 결과, ‘주 3회 이상’ 과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우유를 먹은 비율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라면과 채소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초콜렛/사탕/아이스크림, 고기나 생선, 가공식품은 일본이 가장 많았고, 커피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고등

학생들은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먹은 비율이 가장 적었지만, 라면, 과자, 초콜렛/사탕/아이스크림을 먹은 비율은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 비교에서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우유, 고기나 생선, 가공식품은 남학생들이 더 많이 먹었고, 과자, 초콜렛/사탕/아이스크림은 여학생들이 더 많이 먹었다.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51.8%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7.8%로 가장 적었으며, 한국은 19.5%로 적은 편이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비교한 결과, ‘7시간 이상’인 비율은 미국이 46.7%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6.1%로 가장 적었다. 자신의 수면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 긍정응답률은 미국이 40.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30.7%로 가장 적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더 길었고,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조사 중, 지금까지 흡연과 음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30.1%와 72.8%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22.2%와 49%로 적지 않았다. 성별 분석에서는 4개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흡연경험이 많았고, 음주경험은 한국과 중국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많았다.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처음으로 흡연한 시기가 ‘초 6 이전’인 비율은 중국이 45.3%와 38.8%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7%와 7.2%로 가장 적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 중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71%와 60.3%는 중학교 시기에 처음 흡연과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4개국 청소년들의 부정응답률은 각각 86.3%~95.8%, 61.6%~86.3%로 많은 편이었다. 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중국이 76.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0.9%로 가장 적었고 한국은 65.9%였으며, 최근 1년동안 음주예방이나 금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62.8%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30.4%로 가장 적었다.

개인위생에 대한 조사 중 최근 일주일동안 식사하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 후에 손 씻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 또는 ‘매번’ 씻은 비율은 각각 중국이 78.0%, 일본이 95.7%, 한국이 80.4%로 가장 많았다. 한국 고등학생들은 식사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에 손 씻은 비율이 45.9%와 89.0%로 가장 적었고, 외출 후에는 미국이 43.7%로 가장 적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대체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씻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국이 42.1%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0.4%로 가장 적었다.

활동제한에 대한 조사 중, 최근 1년동안 질병이나 다쳐서 ‘일주일 이상’ 결석한 비율은 미국이 28.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9.5%로 가장 적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결석한 비율이 더 많았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미국이 87.4%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4.4%로 가장 적었으며, 한국은 79.4%가 건강한 편으로 응답하였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에 긍정응답률은 중국이 92.8%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81.4%로 가장 적었으며, 본인의 관심정도는 미국이 90.2%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74.1%로 가장 적었다. 한국 고등학생들의 부모와 본인은 각각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미·일·중 4개국 청소년들의 심리건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내적 영역(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학교 영역(교사, 친구관계)으로 구분하여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내(內) 부적응적 측면(우울감, 불안감, 적대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모든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미국과 중국도 적대감 요인을 제외한 이 외의 모든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성별 평균을 보면, 중국의 우울감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았을 뿐 이 요인을 제외하고 성별 차이가 있는 4개국의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국가별 평균을 보면, 한국, 일본 및 중국 청소년들의 경우 개인 내 부적응적 측면 중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불안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국가 간 차이에서는 우울감에서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49.16$, $p<.01$), 사후검증 결과 한국($M=1.93$)과 일본($M=2.21$), 한국과 중국($M=2.14$) 그리고 미국($M=1.94$)과 일본($M=2.21$), 미국과 중국 간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의 경우도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F=192.50$, $p<.01$), 사후검증 결과 한국($M=1.65$)과 미국($M=2.22$), 한국과 일본($M=1.91$), 한국과 중국($M=1.93$), 미국과 일본 및 미국과 중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대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183.02$, $p<.01$). 사후검증을 통해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M=1.43$)과 미국($M=2.05$), 한국과 일본($M=1.79$), 한국과 중국($M=1.72$), 미국과 일본 및 미국과 중국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별 및 국가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에서 4개국 모두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비교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87.8%가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4개국 중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분포를 보였고, 응답자 중 48.5%는 자주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의 경우 82.4%, 미국은 81.6%로 이들 국가들도 비교적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는데, 중국은 69.7%로 조사국가 중 가장 낮은 긍정 응답 분포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면, 국가별 순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부문제, 진로문제, 부모관계, 친구관계, 용모 등이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공부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미국의 경우 진로문제 보다는 이성관계가 5순위 내에 들었고, 중국의 경우는 용모보다는 심리건강이 더 높은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잠을 잔다, 혼자서 논다, 참는다 등과 같이 주로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거나 친구와 노는

등의 방법은 앞서 제시한 방법들 보다는 낮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개인 내(內) 적응적 측면(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의 결과를 보면, 중국의 자아 존중감 요인을 제외하고 4개국의 모든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개인 내 적응적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각 요인에 대한 국가별 평균을 보면, 4개국 모두 자기 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정서조절이 가장 낮았다. 다만 미국은 낙관주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국가 간 차이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및 정서조절 요인의 경우 미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낙관주의 요인의 경우 중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은 미국의 경우 모든 요인(정서, 정보, 경제적 지원)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과는 달리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 보다 더 높았다. 부모의 지원에 대한 국가 간 차이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경제적 지원의 경우 중국이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결과를 보면,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의 긍정 응답률이 65.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46.4%로 가장 낮았다.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에서는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78.1%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3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에서는 중국의 긍정 응답률이 69.4%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영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교사 관계에서는 한국($t=6.03, p<.01$)과 일본($t=2.49, p<.05$)이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 평균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 보다 더 높았다. 친구관계에서도 한국($t=-6.04, p<.01$)과 일본($t=-4.03, p<.01$)이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을 보면, 교사 관계와 달리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 보다 더 높았다. 각 요인에 대한 국가별 평균을 보면,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관계가 친구관계 보다 평균이 더 높았지만, 다른 3개국은 모두 친구관계가 교사관계 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사 및 친구관계에 대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교사관계($F=484.27, p<.01$) 및 친구관계($F=183.67, p<.01$)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교사관계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친구관계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전술했던 4개국 청소년들의 신체건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신체건강 지표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나머지 3개국에 비해 평소 운동량이 적고, 그 차이도 컸으며, 학교 체육시간에도 운동량이 적은 편이었다. 한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167.6cm, 평균 체중이 59.2kg으로 미국과 중국 다음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체중은 중국과 일본보다 무거웠고, 여학생은 일본보다 무거웠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은 ‘규칙적 운동’보다는 ‘식사량 줄임’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은 체중이 가장 무거웠던 미국 고등학생들보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 살이 찐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많았고 만족도도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의 만족하는 체형이나 살이 찐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국의 고등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양 및 식습관 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일본과 중국이 많은 반면, 1주일에 한 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비율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초콜렛/사탕/아이스크림, 가공식품은 미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었으며,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반면,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았던 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적게 나타나 향후 영양교육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면 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4개국 중 가장 적은 수면 시간을 나타냈고, 수면 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생각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개인의 생활패턴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면시간 부족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흡연과 음주 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흡연과 음주 경험률은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도 22.2%와 49%로 적지 않았다.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흡연과 음주를 중학교시기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들이 모두 대부분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최근 1년동안 금연과 금주 교육을 받은 비율은 나머지 3개국에 비해 적은 편으로 나타나 흡연과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개인위생 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식사하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에 손 씻는 정도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적어 개인위생 관념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인위생교육 경험여부에서도 한국이 10.4%로 가장 적어 개인위생교육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활동제한 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비율은 미국이 28.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9.5%로 가장 적었지만, 자신

의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국이 87.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79.4%가 건강한 편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질병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강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부모와 본인의 관심은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중국과 미국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4개국 청소년들의 심리건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개인 내(內) 부정적 정서들을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인 내 부정적 정서 중에서는 불안감이나 적대감 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우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의 경우 자살 상념 뿐 아니라 실제 자살 행위를 유발하는 정신과적 질병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우울감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적 지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87.9%로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경험을 자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과반수에 가까운 48.5%라는 점이 주목된다. 더욱이 여학생들의 경우는 58.8%가 자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 스트레스 원인은 공부문제가 72.6%로 단연 높게 나타났는데, 공부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40~50%대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진로나 친구문제, 부모관계 등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계에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학습

및 진로 상담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특별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관계형성 기술이나 문제해결 방식과 같은 관계 증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을 보면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청소년들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이나 중국 청소년들 보다는 낮았다. 개인 내 적응적 심리요인 간에는 자기 효능감이나 자아 존중감이 비슷하게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낙관주의 정서조절 순으로 나타나 정서조절과 관련된 건강 수준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성별 간 차이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낮았는데,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의 심리건강 수준이 남학생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심리적 민감성이나 예민성 혹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정서 중심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지역사회 영역에서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있다는 긍정 응답률이 각각 65.1%와 63.7%로 나타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술한 두 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32%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 시·군·구별로 청소년지원센터가 배치되어 있고 교육청 소속의 상담센터가 있으나, 홍보의 부족이나 각 지역의 학생 수에 비해 기관이나 시설 수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들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도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영역에서의 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이 교사나 친구관계 모두 일본보다는 높았으나 미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성별 차이를 보면, 교사관계는 남학생이 친구관계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 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개입이 요구된다.

부 록

1. 한국 설문지
2. 미국 설문지
3. 일본 설문지
4. 중국 설문지

[부 록 1: 한국 설문지]

신체건강

1. **최근 일주일 동안**,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

- ① 없다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이상

※ 신체활동: 달리기(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신체활동

2. **최근 일주일 동안**, 체육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직접 운동을 한 적이 몇 시간 있었습니까? ()

※ 교실에서 하는 자습이나 어른수업은 제외합니다.

- ① 한 시간도 없었다 ② 주 1시간 ③ 주 2시간 ④ 주 3시간 이상

3. **현재** 자신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cm 몸무게: ()kg

4.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 4-1번으로) ② 아니오 (☒ 5번으로)

4-1.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했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시도했던 방법이 있으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몸무게 줄이는 방법	있다
1) 식사량을 줄임	
2) 규칙적인 운동	
3) 단식(24시간이상 굶는 경우)	
4) 의사(한 의사 포함) 처방을 받아 살 빼는 약을 먹음	
5) 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살 빼는 약을 먹음(예: 설사약, 이뇨제 등)	
6) 식사 후 구토	
7)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예: 포도, 달걀, 우유, 감자 등)	
8) 기타(구체적으로:)	

5. 자신의 체형(몸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마른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살이 쪼 났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쪼 났 편이다

6. 자신의 체형(몸매)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 한다

7.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

※ 우유나 쥬스만으로 끼니를 때운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에 해당됩니다.

※ 빵, 선식 또는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으로 식사를 한 경우는 식사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 ② 주 1~2일
③ 주 3~5일 ④ 거의 매일

8. **최근 일주일 동안**, 다음의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번	1주일에 3~5번	거의 매일
1) 과일	①	②	③	④
2) 탄산음료(사이다, 콜라 등)	①	②	③	④
3)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	①	②	③	④
4) 라면 혹은 컵라면	①	②	③	④
5) 과자(감자튀김 등의 스낵류)	①	②	③	④
6)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①	②	③	④
7) 채소	①	②	③	④
8) 우유(흰 우유, 색깔우유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9) 고기나 생선	①	②	③	④
10) 가공식품(돈까스, 햄, 냉동만두 등)	①	②	③	④
11) 커피	①	②	③	④

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영양교육(예: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식생활 관련 지식 등)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10.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까? ()

- ① 5시간 미만 ② 5시간~6시간 미만 ③ 6시간~7시간 미만
④ 7시간~8시간 미만 ⑤ 8시간~9시간 미만 ⑥ 9시간 이상

11. 자신의 수면 시간이 피곤함을 푸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③ 대체로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12.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13~~ 13번으로) ② 아니오 (~~14~~ 14번으로)

13.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

- ① 초등학교 4학년 이전 ② 초등학교 4학년~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14.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④ 건강에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15.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흡연예방 혹은 금연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16.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
- ※ 저사, 차례 또는 성찬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 ① 있다 (☞ 17번으로) ② 없다 (☞ 18번으로)

17.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
- ※ 저사, 차례 또는 성찬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 ① 초등학교 4학년 이전 ② 초등학교 4학년~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18. 음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④ 건강에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1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음주예방 혹은 금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20. 최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안 씻었다	가끔 씻었다	대부분 씻었다	매번 씻었다
1) 식사하기 전				
2) 화장실 다녀온 후				
3)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2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개인위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22. 최근 1년 동안, 결병이나 다쳐서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다 ② 1~3일 ③ (모두 합쳐서) 일주일 정도
 ④ (모두 합쳐서) 열흘정도 ⑤ (모두 합쳐서) 2주일 이상

23.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한 편이다

24.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2) 본인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심리건강

25. 지난 일주일 동안(오늘을 포함해서) 아래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한 정도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외롭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울적하다	①	②	③	④
3) 허무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5)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6)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7)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①	②	③	④
8)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민다	①	②	③	④
9)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0)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1)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①	②	③	④

26. 최근 1년 동안, 당신은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었다 ② 별로 없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27.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에 모두 써 주세요()

- ① 부모와의 관계 ② 형제·자매와의 관계 ③ 용모(신장, 스타일, 얼굴) ④ 신체건강
⑤ 심리건강 ⑥ 금전문제 ⑦ 친구와의 관계 ⑧ 이성과의 관계
⑨ 선·후배와의 관계 ⑩ 교사와의 관계 ⑪ 진로문제 ⑫ 성적이나 공부문제
⑬ 기타()

28. 스트레스를 주로 어떻게 푸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에 모두 써 주세요()

- ① 참는다 ② 잠을 잔다 ③ 운동을 한다 ④ 친구와 논다
⑤ 혼자서 논다(게임, 음악듣기 등) ⑥ 물건이나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⑦ 누군가에 이야기 한다 ⑧ 먹는다 ⑨ 담배를 핀다 ⑩ 술을 마신다
⑪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⑫ 기타 ()

29.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	0	0	0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0	0	0	0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0	0	0	0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	0	0	0
5)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0	0	0	0
6)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0	0	0	0
7)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0	0	0	0
8)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0	0	0	0
9)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0	0	0	0
10)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0	0	0	0
1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0	0	0	0
12)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0	0	0	0
1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	0	0	0
1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0	0	0	0

3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0	0	0	0
2) 고민을 들어 주신다	0	0	0	0
3)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0	0	0	0
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0	0	0	0
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0	0	0	0
6) 올바른 공부태도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0	0	0	0
7) 용돈을 주신다	0	0	0	0
8)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0	0	0	0
9)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0	0	0	0

31.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있다	없다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0	0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0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0	0

32. 다음은 학교생활과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우수(성공하고 있다)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5)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33.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34.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5. 당신의 학교는? () ① 일반계고 ② 전문계고

3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에 번호를 모두 써 주십시오. ()

※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직장 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37. 반에서 학업성적(2010년 1학기)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적	하	중하	중	중상	상
반성적	①	②	③	④	⑤

[부 록 2: 미국 설문지]

Surve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Physical health

Q1: How many days of the past week, did you exercise for more than 30 minutes to the point you sweat?

1. None 2. One day 3. Two days
4. Three days 5. Four days 6. More than five days

Q2: During the past week, how many hours did you exercise on the athletic field or in the gymnasium in your PE classes?

1. Never 2. One hour 3. Two hours 4. More than three hours

Q3: What is your height and weight?

Q3-1: Height () feet () inches

Q3-2: Weight () lb.

Q4: Have you been on a diet during the last one year?

1. Yes (Go to **Q4-1**) 2. No (Go to **Q5**)

Q4-1 What methods of diet have you used? (Circle all that apply.)

1. Ate less.
2. Exercised regularly.
3. Fasted more than 24 hours.
4. Took a prescribed diet medicine.
5. Took over the counter diet medicines such as laxatives or diuretics.
6. Threw up all after eating.
7. Ate only one kind of food, such as apples, eggs, milk, potatoes.
8. Others

Q5: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figure?

1. Skinny 2. Slim 3. Just right
4. Chubby 5. Fat

Q6: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body figure?

1. Not at all satisfied. 2. Not so satisfied. 3. Sort of satisfied. 4. Very satisfied.

Q7: How many days during the past week did you eat breakfast?

*Please do not count days when you had only milk or juice.

1. None. I didn't have a breakfast in last one week. 2. Once or twice.
3. Three to five days 4. I had breakfast almost everyday

Q8: How often did you eat the following food during the past week? (Please circle one on each item.)

	Never	Once or twice	Three to five times	Almost everyday
1) Fruits	1	2	3	4
2) Soft drinks	1	2	3	4
3) Fast foods such as pizza, hamburgers and fried chicken.	1	2	3	4
4) Instant noodles or cup noodles	1	2	3	4
5) Snacks such as potato chips	1	2	3	4
6) Chocolate, candies and ice creams	1	2	3	4
7) Vegetables	1	2	3	4
8) Milk	1	2	3	4
9) Fresh meats or fish	1	2	3	4
10) Processed foods including frozen foods.	1	2	3	4
11) Coffee	1	2	3	4

Q9: During the past year, have you received education on nutrition (i.e. how to eat for good health) at school?

1. Yes 2. No

Q10: During the last week, on weekdays, how many hours did you sleep on average?

1. less than 5 hours a day
 2. More than 5 hours but less than 6 hours a day
 3. More than 6 hours but less than 7 hours a day
 4. More than 7 hours but less than 8 hours a day
 5. More than 8 hours but less than 9 hours a day
 6. More than 9 hours

Q11. Do you think you get enough hours of sleep?

1. Not enough at all 2. Not enough 3. Enough 4. Too much

Q12. Have you ever smoked a cigarette?

1. Yes (Go to **Q13**) 2. No (Go to **Q14**)

Q13 When was the first time you smoked a cigarette?

1. Before 4th grade 2. Between 4th to 6th grade 3. 7th grade 4. 8th grade
 5. 9th grade 6. 10th grade 7. 11th grade 8. 12th grade

Q14: How do you think smoking affects your health?

1. It doesn't affect my health at all.
 2. It doesn't have major adverse affects on my health.
 3. It's not so good for my health.
 4. It's very bad for my health.

Q15: Have you been educated at school on smoking prevention, how to quit smoking or adverse health affects of smoking cigarettes during the last year?

1. Yes 2. No

Q16: Have you ever drunk alcohol?

1. Yes (Go to **Q17**) 2.No (Go to **Q18**)

Q17: When was the first time you drank alcohol?

1. Before 4th grade 2. Between 4th to 6th grade 3. 7th grade 4. 8th grade
5. 9th grade 6. 10th grade 7. 11th grade 8. 12th grade

Q18: How do you think drinking affects your health?

1. It doesn't affect my health at all.
2. It doesn't have major affects on my health.
3. It's not so good for my health.
4. It's very bad for my health.

Q19: During the last year has your school given you an education on the harms of drinking alcohol or how to stop drinking?

1. Yes 2. No

Q20: How often did you wash your hands on the following occasions during the last week?

(Please circle one that applies.)

	Never	Sometimes	Often	Always
1) Before meals	1	2	3	4
2) After using the bathroom	1	2	3	4
3) After I came home	1	2	3	4

Q21: Have you had a personal hygiene education at school during the last year?

1. Yes 2.No

Q22 : Have you ever been absent from school because of illness or injury during the last year?

1. Never 2. One to three days cumulatively 3.About one week cumulatively
4. About 10 days cumulatively 5. More than two weeks cumulatively

Q23: What do you think of the state of your health?

1. Not at all healthy 2. Not so healthy 3. Rather healthy 4. Very healthy

Q24: How interested are you and your parents/ guardians in your health?

	Not at all	Not so	Somewhat	Very interested
1) Interest level of parents/ guardians	1	2	3	4
2) Interest level of your self	1	2	3	4

Mental health

Q25: Did you ever experience the following feelings during the past week? (Please circle one on each feeling.)

	Never	Sometimes	Occasionally	Often
1) Lonely	1	2	3	4
2) Gloomy	1	2	3	4
3) Empty	1	2	3	4
4) Edgy and agitated	1	2	3	4
5) Worried for no reason	1	2	3	4
6) Nervous	1	2	3	4
7) Anxious	1	2	3	4
8) Confused and annoyed	1	2	3	4
9) Wanted to punch and hurt someone	1	2	3	4
10) Wanted to break something	1	2	3	4
11) Wanted to yell and throw something	1	2	3	4

Q26: Have you felt stressed during the past year?

1.Never 2.Not so often 3.Sometimes 4.Often

Q27: What was the reason of your stress?

1.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2. Relationship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3. My looks (height, figure, features etc.) 4. Physical health 5. Mental issues
 6. Money issues 7.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8. Friendship with the opposite sex
 9. Relationship with seniors and juniors 10. Relationship with my teachers
 11. My career options 12. My grade and academic achievements
 13. Other ()

Q28: When you feel stressed, what do you do? (Circle all that apply)

1. Take it 2. Sleep 3. Exercise 4. Play with friends
 5. Play by myself (Play video games, listen to music etc.) 6. Take it out on others or things
 7. Talk about it with others 8. Eat 9. Smoke 10. Drink alcohol
 11. Don't do anything special 12. Other ()

Q29: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Circle one on each statement.)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mewhat agree	Agree
1) I am a valuable person.	1	2	3	4
2) I have a good personality.	1	2	3	4
3) I can cooperate well with others most of the time.	1	2	3	4
4) I evaluate myself positively.	1	2	3	4
5) I am satisfied with myself.	1	2	3	4
6) I can do pretty much anything if I make an effort.	1	2	3	4
7) There are many things I can do.	1	2	3	4
8) I can overcome hardships.	1	2	3	4
9) I can focus on work or study without becoming emotional.	1	2	3	4
10) I don't get depressed when I'm sad or having a difficult time.	1	2	3	4
11) I can control myself when I feel mad or bad.	1	2	3	4
12) I don't get depressed no matter how many times I fail.	1	2	3	4
13) I believe my dreams will come true.	1	2	3	4
14) I can get over easily when I fail to reach goals.	1	2	3	4

Q30: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parents/ guardians? (Circle one on each statement.)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mewhat agree	Agree
1) They understand me well.	1	2	3	4
2) They listen to my problems.	1	2	3	4
3) They help me when I'm having difficult times.	1	2	3	4
4) They give me advices on my career options.	1	2	3	4
5) They give me useful advices on my studies.	1	2	3	4
6) They teach me the right attitudes about studying and life.	1	2	3	4
7) They give me allowance.	1	2	3	4
8) They buy me necessary items for study.	1	2	3	4
9) They support me so that I can live without financial worries.	1	2	3	4

Q31: Following are statements about your neighborhood. (Circle all that apply)

- I have someone I can trust besides my family, friends and teachers.1.yes.....2. No
- I have someone who helps me when I'm having a hard time besides my family, friends and teachers.
.....1.yes.....2. No
- There are groups,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that help me when I'm having a hard time.1.yes.....2. No

Q32: Following are statements about your teachers and friends. (Circle one on each statement.)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mewhat agree	Agree
1) There is/are teacher(s) who understand(s) and accept(s) me at my school.	1	2	3	4
2) There is/are teacher(s) whom I can ask for advices on any issues.	1	2	3	4
3) Teachers recognize me as an excellent student.	1	2	3	4
4) There is/are friend(s) whom I can ask for advice on any issue.	1	2	3	4
5) I feel easy and happy when I am with my friend(s).	1	2	3	4

Q33: What is your gender?

1 Male 2. Female

Q34: What grade are you in?

1. 10th 2. 11th 3. 12th

Q35: Describe your school. Choose one of the following

1. Academic High school 2. Vocational High school

Q36: Who are you living with at home right now? (Circle all the choices that apply to you)

1. Father 2. Mother 3. Grand Parents. 4. Brothers & Sisters
5. Relatives 6. By myself 7. Other

Q37: What was your academic ranking in your grade last school year?

1. Bottom 2. Lower middle 3. Middle 4. Upper middle 5. Top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We will make good use of this survey.**

[부 록 3: 일본 설문지]

体の健康

問 1 最近一週間、汗をかく程度の運動を 30 分以上した日はどのくらいありましたか?

- | | | |
|-----------|-----------|-------------|
| 1. ない | 2. 週に 1 日 | 3. 週に 2 日 |
| 4. 週に 3 日 | 5. 週に 4 日 | 6. 週に 5 日以上 |

問 2 最近一週間、体育の時間にグラウンドや体育館で運動をした事がどのくらいありましたか?

※ 教室での自習や理論授業は除きます。

- | | | | |
|----------|------------|------------|--------------|
| 1. 一度もない | 2. 週に 1 時間 | 3. 週に 2 時間 | 4. 週に 3 時間以上 |
|----------|------------|------------|--------------|

問 3 現在あなたの身長と体重はどのくらいですか?

身長: ()cm 体重: ()kg

問 4 最近 1 年間、あなたはダイエットに挑戦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 | | |
|-------------------|------------------|
| 1. はい (☞ 問 4-1 へ) | 2. いいえ (☞ 問 5 へ) |
|-------------------|------------------|

↓

問 4-1 どのダイエット方法ですか。あてはまるところ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1. 食事量を減らす
2. 規則的な運動
3. 断食(24 時間以上 何も食べない場合)
4. 医者に処方してもらってダイエット剤を飲む
5. 医者の処方なくダイエット剤を飲む(例: 下剤、利尿剤など)
6. 食事後、全部吐き出す
7. 一種類の食べ物だけを食べる (例: リンゴ、卵、ミルク、ジャガイモなど)
8. その他

問 5 あなたは、自分の体型をどう思いますか?

- | | | |
|------------|------------|-----------|
| 1. 痩せている | 2. 少し痩せている | 3. ちょうどよい |
| 4. 少し太っている | 5. 太っている | |

問 6 あなたは自分の体型にどのくらい満足していますか?

- | | | | |
|------------|-------------|-------------|--------------|
| 1. 全く満足しない | 2. あまり満足しない | 3. まあ満足している | 4. とても満足している |
|------------|-------------|-------------|--------------|

問 7 最近一週間、あなたが朝食を食べた日はどのくらいありましたか?

※ ミルクやジュースなどだけで食事を済ませた場合は「食べなかった」と考えます。

- | | | | |
|-------------|----------|----------|---------|
| 1. 全く食べなかった | 2. 1~2 日 | 3. 3~5 日 | 4. ほぼ毎日 |
|-------------|----------|----------|---------|

問 8 最近一週間、次の食べ物をどのくらい食べましたか? 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く食べ なかった	週に1~2回	週に3~5回	ほぼ毎日
1) 果物	1	2	3	4
2) 炭酸飲料(サイダー、コーラなど)	1	2	3	4
3) 피자、ハンバーガー、チキンなどのファストフード	1	2	3	4
4) 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 や カップラーメン	1	2	3	4
5) ポテトチップスなどのスナック菓子	1	2	3	4
6) チョコレートや飴、アイスクリーム	1	2	3	4
7) 野菜	1	2	3	4
8) 牛乳	1	2	3	4
9) 新鮮な肉や魚	1	2	3	4
10) 加工食品(カツ、ハム、冷凍肉まんなど)	1	2	3	4
11) コーヒー	1	2	3	4

問 9 最近一年間、学校で栄養に関する教育(例: 健康のための食生活の知識など)を受けましたか?

1. はい 2. いいえ

問 10 最近一週間、あなたは平日、一日に平均してだいたい 何時間ぐらい寝ていますか?

1. 5時間 未満 2. 5~6時間 未満 3. 6~7時間 未満
4. 7~8時間 未満 5. 8~9時間 未満 6. 9時間 以上

問 11 自分の睡眠時間が充分だと思えますか?

1. 全然足りない 2. あまり足りない 3. だいたい足りている 4. 充分すぎるくらいだ

問 12 あなたは今までタバコを吸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はい (☞ 問 13 へ) 2. いいえ (☞ 問 14 へ)

↓

問 13 初めてタバコを吸ったのはいつころですか?

1. 小学校 4年前 2. 小学校 4~6年 3. 中学校 1年 4. 中学校 2年
5. 中学校 3年 6. 高校 1年 7. 高校 2年 8. 高校 3年

問 14 あなたは喫煙が健康にどんな影響をおよぼすと思いますか?

1. 健康に全く悪くない 2. 健康に大きな害はないと思う
3. 健康にあまりよくないと思う 4. 健康にとっても悪いと思う

問 15 最近一年間、学校で喫煙予防 や 禁煙やたばこの害についての教育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はい 2. いいえ

問 16 あなたは、今までお酒を飲んだ事がありますか?

1. ある (☞ 問 17 へ) 2. ない (☞ 問 18 へ)

問 17 初めて酒を飲んだのはいつころですか?

1. 小学校 4 年前 2. 小学校 4～6 年 3. 中学校 1 年 4. 中学校 2 年
5. 中学校 3 年 6. 高校 1 年 7. 高校 2 年 8. 高校 3 年

問 18 あなたは飲酒が健康にどんな影響をおよぼすと思いますか?

1. 健康に全く悪くない 2. 健康に大きな害はないと思う
3. 健康にあまりよくないと思う 4. 健康にとっても悪いと思う

問 19 最近一年間、学校で 飲酒の害についての教育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はい 2. いいえ

問 20 最近一週間、下記の場合にどれくらい手を洗いましたか? 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然洗わなかった	たまに洗った	大体洗った	いつも洗った
1) 食事前	1	2	3	4
2) トイレの後	1	2	3	4
3) 帰宅後	1	2	3	4

問 21 最近一年間、学校で個人の衛生教育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はい 2. いいえ

問 22 最近一年間、あなたは病気や怪我で欠席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 1) 全くない 2) のべ 1～3 日あった 3) のべ一週間程度あった
4) のべ 10 日間程度あった 5) のべ二週間以上あった

問 23 あなたは自分の健康状態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1. 全然健康ではない 2. あまり健康ではないほうだ
3. まあ健康なほうだ 4. とても健康だ

問 24 あなた自身とあなたの保護者はあなたの健康についてどのくらい関心を持っていますか。それぞれについて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然関心ない	あまり関心がない	まあ関心がある	関心が強い
1) 親（保護者）の関心度	1	2	3	4
2) あなた自身の関心度	1	2	3	4

こころの健康

問 25 この一週間、あなたは下記のようなことを感じたことがありますか。それぞれについて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くない	たまにそうだ	時々そうだ	よくそうだ
1) 寂しい	1	2	3	4
2) 憂鬱	1	2	3	4
3) むなしい感じがする	1	2	3	4
4) 神経がたかぶり、心が安定しない	1	2	3	4
5) わけもなく不安だ	1	2	3	4
6) 緊張する	1	2	3	4
7) 胸が騒ぐ	1	2	3	4
8) なんとなくもやもやしたいらいら感がある	1	2	3	4
9) 誰かを殴ったり、傷つけたりしたくなる	1	2	3	4
10) 何かをブツ壊したくなる	1	2	3	4
11) 叫んだり物を投げたりしたくなる	1	2	3	4

問 26 最近一年間、あなたはストレスを感じ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全くない 2. あまりない 3. 時々ある 4. よくある

問 27 どのようなことでストレスを感じたのですか。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いくつでもつけてください。

1. 親との関係 2. 兄弟姉妹との関係 3. 容姿（身長・スタイル・顔立ちなど）
 4. 体の健康 5. 心の問題 6. お金のこと 7. 友人関係
 8. 異性の友人関係 9. 先輩・後輩との関係 10. 先生との関係 11. 進路の問題
 12. 成績など勉強について 13. その他（ ）

問 28 ストレスを感じた時に、あなたはどうしますか？当てはまるところ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1. 我慢する 2. 寝る 3. 運動する 4. 友達と遊ぶ
 5. 一人で遊ぶ（ゲーム、音楽など） 6. ものや人に当たる
 7. 誰かに話す 8. 食べる 9. タバコを吸う
 10. お酒を飲む 11. 特に何もしない 12. その他（ ）

問 29 あなたは自分自身をどう思っていますか。それぞれについて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然そう ではない	あまり そうではない	まあそうだ	全くそうだ
1) 私は価値のある人間だと思う	1	2	3	4
2) 私は人柄がよいと思う	1	2	3	4
3) 私は大体の場合、人とうまく協力できる	1	2	3	4
4) 私は自分を肯定的に評価するほうだ	1	2	3	4
5) 私は自分に満足している	1	2	3	4
6) 私は努力すれば大体のことができる	1	2	3	4
7) 私ができることはいっぱいある。	1	2	3	4
8) 私は辛いことがあっても乗り越えられる	1	2	3	4
9) 感情に走らず、仕事や勉強に集中できる	1	2	3	4
10) 悲しい時や辛い時も落ち込まない	1	2	3	4
11) 怒った時や気分が悪い時でも自分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	1	2	3	4
12) どんなに失敗しても落ち込まない	1	2	3	4
13) 自分の希望はいつか叶うと思う	1	2	3	4
14) 目標達成に失敗してもすぐ立ち直ることができる	1	2	3	4

問 30 あなたは親（保護者）についてどう思っていますか。それぞれ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然そう ではない	あまり そうではない	まあそうだ	全くそうだ
1) 親(保護者)は私をよく分かってくれる	1	2	3	4
2) 親(保護者)は私の悩みを聞いてくれる	1	2	3	4
3) 辛い時、親(保護者)は私の力になってくれる	1	2	3	4
4) 親(保護者)は私の進路についてアドバイスしてくれる	1	2	3	4
5) 親(保護者)は私の勉強に役立つ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る	1	2	3	4
6) 親(保護者)は正しい勉強態度や生き方を教えてくれる	1	2	3	4
7) 親(保護者)は小づかいをくれる	1	2	3	4
8) 親(保護者)は勉強に必要な物を買ってくれる	1	2	3	4
9) 親(保護者)は経済的な心配なく生活できるようにしてくれる	1	2	3	4

問 31 次のことについて、あなたにあてはまるところ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 1) 家族、友達、先生のほかに信頼できる人がいる…………… 1. はい…… 2. いいえ
- 2) 家族、友達、先生の他に、つらい時、助けてくれる人がいる… 1. はい…… 2. いいえ
- 3) つらい時、助けてくれる団体や組織、施設がある…………… 1. はい…… 2. いいえ

問 32 あなたの先生や友だちについて、あてはま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然そう ではない	あまり そうではない	まあそうだ	全くそうだ
1) 学校に私を理解し、認めてくれる先生がいる	1	2	3	4
2) 学校に何でも相談できる先生がいる	1	2	3	4
3) 私は先生に優秀だと認められている	1	2	3	4
4) 学校に何でも相談できる友達がいる	1	2	3	4
5) 友だちといっしょにいる時、気が楽で楽しい	1	2	3	4

問 33 あなたの性別： 1. 男 2. 女

問 34 あなたの学年： 1. 高 1 2. 高 2 3. 高 3

問 35 あなたの学校： 1. 普通科 2. 専門学科 3. 総合学科

問 36 あなたは誰と一緒に住んでいますか（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1. 父親 2. 母親 3. 祖父・祖母 4. 兄弟
5. 親戚 6. 一人暮らし 7. その他

問 37 あなたの成績（前学期）は、クラスでどのくらいですか。

1. 下 2. 中の下 3. 中 4. 中の上 5. 上

これで終わりです。結果は有効に使わせていただきます。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부 록 4: 중국 설문지]

身体健康

问 1 最近一个星期,有几天活动量比较大(一天的活动时间在半小时以上)?

1. 没有 2. 有一天 3. 有两天
4. 有 3 天 5. 有 4 天 6. 五天以上

问 2 近一星期,在操场或体育馆上的体育活动课有几次(教室的自习或体育理论课除外)?

1. 没有 2. 一次(课) 3. 两次(课) 4. 三次以上

问 3 你现在的身高体重:

Q3-1. 身高:()cm Q3-2. 体重:()kg

问 4 近一年里,你有没有尝试过减肥?

1. 有 (☞ 问 4-1) 2. 没有 (☞ 问 5)

问 4-1 最近一年你所尝试的减肥方法有哪些?请在下列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可多选)

1. 减少饭量 2. 进行运动
3. 绝食(24 小时以上什么都不吃) 4. 吃医生开的减肥药方
5. 吃些非处方减肥剂(如通便、利尿的药) 6. 餐后呕吐出来
7. 只吃一种食物(如苹果、鸡蛋、牛奶等) 8. 其它(请写明:)

问 5 与朋友相比,你觉得自己的体形如何?

1. 很瘦 2. 比较瘦 3. 正好 4. 比较胖 5. 很胖

问 6 你对自己的体形是否满意?

1. 非常不满 2. 不太满意 3. 还算满意 4. 很满意

问 7 近一星期,你每天吃早餐吗?(只喝牛奶或果汁的请在“没吃过”上划○)

1. 没吃过 2. 有一两天 3. 有 3~5 天 4. 基本每天吃

问 8 近一周，下列食物你经常吃（喝）吗？请在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

	从不吃	1 周 1~2 次	1 周 3~5 次	几乎每天
①水果	1	2	3	4
②碳酸饮料（可乐、雪碧等）	1	2	3	4
③西式快餐（比萨饼、汉堡、炸鸡等）	1	2	3	4
④方便面类	1	2	3	4
⑤薯片等膨化小食品	1	2	3	4
⑥巧克力、糖果、冰激淋	1	2	3	4
⑦蔬菜	1	2	3	4
⑧牛奶	1	2	3	4
⑨鲜肉或鲜鱼类	1	2	3	4
⑩加工食品（火腿肠、冷冻半成品等）	1	2	3	4
⑪咖啡	1	2	3	4

问 9 近一年，你在学校上过有关营养教育（如健康的饮食习惯等）的课吗？

1. 有 2. 没有

问 10 近一周，你每天大概睡几小时？

1. 不到 5 个小时 2. 5~6 小时未滿 3. 6~7 小时未滿
4. 7~8 小时未滿 5. 8~9 小时未滿 6. 9 小时以上

问 11 你觉得自己的睡眠时间是否充足？

1. 完全不够 2. 不太够 3. 还算充足 4. 过于充足

问 12 你抽过烟吗？

1. 抽过 (☞ 问 13) 2. 没有 (☞ 问 14)

↓

问 13 第一次抽烟是什么时候？

1. 小学四年级前 2. 小学四~六年级 3. 初一 4. 初二
5. 初三 6. 高一 7. 高二 8. 高三

问 14 你认为吸烟影响健康吗？

1. 毫无影响 2. 对身体无大害 3. 对身体不太好 4. 对身体很不好

问 15 近一年，学校进行过禁止吸烟或吸烟危害的教育吗？

1. 有 2. 无

问 16 你喝过酒吗?

1. 喝过 (☞ 问 17) 2. 没有 (☞ 问 18)

↓

问 17 第一次喝酒是在什么时候?

1. 小学四年级前 2. 小学四~六年级 3. 初一 4. 初二
5. 初三 6. 高一 7. 高二 8. 高三

问 18 你认为喝酒影响健康吗?

1. 毫无影响 2. 对身体无大害 3. 对身体不太好 4. 对身体很不好

问 19 近一年, 学校进行过预防或禁止饮酒的教育吗?

1. 有 2. 无

问 20 近一周, 下列时间你洗手吗?

	从没洗过	多半不洗	多半都洗	每次都洗
①饭前	1	2	3	4
②上厕所后	1	2	3	4
③回到家后	1	2	3	4

问 21 近一年, 你在学校上过个人卫生课吗?

1. 有 2. 没有

问 22 近一年, 你因病或受伤请过假吗?

1. 没有 2. 请过 1~3 天 3. 请过一个星期左右
4. 请过 10 天左右 5. 请过两个星期以上

问 23 你认为自己的身体健康状况如何?

1. 很不好 2. 不太好 3. 较好 4. 很好

问 24 父母以及你本人对你健康的关心程度如何?

	从不关心	不太关心	比较关心	非常关心
①父母的关心程度	1	2	3	4
②你本人的关心程度	1	2	3	4

心理健康

问 25 近一周, 你有过下列感觉吗? 请在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

	完全没有	偶尔有	时常有	总有
① 寂寞	1	2	3	4
② 忧郁	1	2	3	4
③ 空虚	1	2	3	4
④ 神经敏感而情绪不稳	1	2	3	4
⑤ 无原因的不安	1	2	3	4
⑥ 紧张	1	2	3	4
⑦ 忐忑不安(心惊肉跳)	1	2	3	4
⑧ 控制不住地积愤	1	2	3	4
⑨ 有想打人、骂人的冲动	1	2	3	4
⑩ 有想摔砸东西的冲动	1	2	3	4
⑪ 想叫喊、扔东西	1	2	3	4

问 26 近一年, 你感到有精神压力或精神紧张过吗?

1. 完全没有 2. 不太有 3. 有时有 4. 经常有

↓

问 27 你感到有精神压力或紧张的原因是什么? 请在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可选多项。

- | | |
|---------------------|------------------|
| 1. 和父母的关系 | 2. 和兄弟姐妹的关系 |
| 3. 自己的长相(身高、体形、容貌等) | 4. 身体健康问题 |
| 5. 心理问题 | 6. 经济状况(家庭状况) |
| 7. 朋友关系 | 8. 恋人关系 |
| 9. 与学哥(姐)、学弟(妹)的关系 | 10. 与老师的关系 |
| 11. 毕业后的去向 | 12. 学习问题(考试、成绩等) |
| 13. 其它(请说明: _____) | |

问 28 你在感到精神压力或不安的时候, 一般采取什么发泄方式? 可选多项。

1. 忍耐 2. 睡觉 3. 运动 4. 找朋友玩 5. 一个人玩(玩游戏或听音乐等)
 6. 拿东西或人出气 7. 找人说出来 8. 吃东西 9. 吸烟 10. 喝酒
 11. 什么也不干 12. 其它(请说明: _____)

问 29 你对自己如何评价？请在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

	完全不是	不太符合	大致符合	完全如此
① 我觉得自己有价值	1	2	3	4
② 我觉得自己性格好	1	2	3	4
③ 我基本上可以与人和好相处	1	2	3	4
④ 我对自己持肯定态度	1	2	3	4
⑤ 我对自己感到满意	1	2	3	4
⑥ 只要努力，一般的事我差不多可以干好。	1	2	3	4
⑦ 我可以干好很多事	1	2	3	4
⑧ 我有能力解决困难	1	2	3	4
⑨ 我能够不受感情的影响，集中精力学习。	1	2	3	4
⑩ 遇到痛苦或困难我也不会泄气	1	2	3	4
⑪ 即使心情不好的时候，也能够控制自己的情绪	1	2	3	4
⑫ 无论任何事失败都不会泄气	1	2	3	4
⑬ 我觉得自己的理想能够实现	1	2	3	4
⑭ 即使目标没有实现，也能够马上重新振作起来	1	2	3	4

问 30 你认为父母待你如何？请在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

	完全不是	不太符合	大致符合	完全如此
① 父母很理解我	1	2	3	4
② 父母听我诉说烦恼	1	2	3	4
③ 在我困难的时候，父母给我力量	1	2	3	4
④ 在升学或毕业去向的问题上，父母帮我出主意	1	2	3	4
⑤ 父母在学习上帮助我	1	2	3	4
⑥ 父母教育我正确的学习·生活态度	1	2	3	4
⑦ 父母给我零花钱	1	2	3	4
⑧ 父母给我购买学习必需品	1	2	3	4
⑨ 父母能够让我安心学习，不用担心家里的经济	1	2	3	4

问 31 下列各项，请在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

- ①除了家人、朋友、老师，我还有其他可信赖的人……1. 是……2. 否
 ②除了家人、朋友、老师，还有其他可帮助我的人……1. 是……2. 否
 ③在我困难的时候，周围有可以帮我的团体或设施……1. 是……2. 否

问 32 下列各项，请在接近你情况的选项上划○。

	完全不是	不太符合	大致符合	完全如此
①学校有理解我的老师	1	2	3	4
②学校有我可以谈心的老师	1	2	3	4
③老师认为我是成功的	1	2	3	4
④学校有无所不谈的朋友	1	2	3	4
⑤和同学在一起的时候很愉快	1	2	3	4

问 33 你的性别： 1. 男 2. 女

问 34 你的年级： 1. 高 1 2. 高 2 3. 高 3

问 35 你的学校： 1. 普通类高中 2. 职业高中

问 36 你平时和谁住在一起？可选多项。

1. 父亲 2. 母亲 3. (外)祖父·(外)祖母 4. 兄·弟·姐·妹
 5. 亲戚 6. 学校宿舍 7. 其他

问 37 你上学期的综合学习成绩在班上属于：

1. 下 2. 中下 3. 中 4. 中上 5. 上

——完，谢谢合作！——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운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김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운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오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
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한·미·일·중 4개국 비교)-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885-4

ISBN 978-89-7816-881-6(세트)